113
2d set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3 - JUL 28
Copy 1960

3 호 3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7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3호 (136)

1957년 3월 25일

내 용

상품 류통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전국 상업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연설

김 일 성

나는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이 회의를 통하여 우리 나라 상업 부문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체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 일'군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가 제 1차 5개년 계획의 새로운 단계에로 넘어 가면서 우리 상업 부문 앞에는 거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업은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형태로 됩니다. 따라서 상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공업과 농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없으며 로농 동맹을 강화할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전후 우리 나라 상업은 매우 곤난한 환경에서 자기 사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전 직후 우리에게는 상품 원천도 극히 부족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에서의 상업망들은 거의 다 파괴되였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3개년 계획을 수행한 결과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 공급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업과 농업 생산이 급속히 복구 발전되고 상업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결과 우리는 전쟁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 상품들을 근로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더욱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물가 인하를 실시하였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상당히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정 현물세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수매 가격을 현저히 인상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956년 말에 와서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이 전쟁전 수준을 릉가하게 되였으며 농민들의 수입도 급속히 장성하였습니다.

정전후 불과 3년 동안에 우리가 거둔 이 성과는 결코 적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민 생활의 개선 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민 생활 향상에서 거둔 이 성과 하나 만 보더라도 이제 와

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민들의 생활 형편이 이제는 유족하게 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 형편은 아직도 곤난합니다. 3년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인민 경제가 혹심하게 파괴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 생활이 류례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주택은 물론, 가재 도구, 의복, 기타 모든 개인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해방후 수년간 쌓아 온 자기들의 생활 토대를 전쟁에 의하여 몽땅 잃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전쟁 전보다 훨씬 많은 상품을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였으며 그들의 수입이 더욱 장성하였지 만 인민 생활은 아직 곤난하며 전쟁 전에 비하여 눈에 띄우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민 생활의 이러한 형편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인민들의 구매력의 급속한 장성은 한편으로는 생활 필수품 생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편으로는 상품 공급 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국내 생활에서 성숙된 이 요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제 대책의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인민 생활의 금후 향상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는 이러한 형편을 옳게 타산하여 1957년도 계획 과제들을 설정하였습니다.

1957년 국가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 총액은 730억 원으로 규정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비하여 23.7%나 더 높은 방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이 계획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초과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달성할 만한 상품을 보장할 수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동무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 공업, 농업 및 운수 부문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에 립각하여 생산에서 모든 예비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증산과 절약을 위한 광범한 애국적 경쟁 운동에 한 사람같이 궐기하고 있습니다.

비상히 앙양된 전체 근로자들의 대중적 궐기는 벌써 금년도에 필요한 상품 원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상품 예비를 축적할 수 있는 전망까지 보입니다.

우리가 앙양된 근로자들의 열성을 잘 조직만 한다면 적어도 상품이 없어서 주민들의 구매력을 보장하지 못할 위험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의 증산 하나 만으로써는 장성된 주민들의 수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상품 공급 사업의 개선과 발전이 따라 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상업은 생산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요구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업은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낡은 틀 안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상업 부문에 존재하는 제반 결함들을 시정하고 상품 류통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업에 현존하는 결함들과 금후 과업에 대하여서는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와 얼마 전에 있은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들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였습니다.

나는 현 시기에 있어서 국내 상품 류통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히 강조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서 만 다시 한번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상업을 강화하며 특히 식료품 공급 사업을 훨씬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전후 기간 우리의 도시와 로동자 지구들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수다한 공장, 광산, 탄광들이 복구 건설되고 방대한 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결과 도시 인구는 장성되고 새로운 로동자 지구와 주택 지구가 형성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제때에 합리적으로 개편되지 못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상업망들은 불합리하게 포치되였으며 소비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지역별 배정과 공급도 수요에 적응하여 잘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상업 기관들은 로동 공급 사업에 중'점을 둘 대신에 이 사업을 매우 등한히 하여 왔습니다.

상업 기관들은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배정된 상품을 로동자 지구에는 적게 공급하고 팔기 쉬운 중 소 도시나 시장들에 편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업 일'군들이 로동자들의 생활 개선에 대하여 관심이 적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상업 일'군들은 계급적 립장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군들에게는 우리 당의 상업 정책을 깊이 연구하며 철저히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날 상업성내의 일부 일'군들은 당 정책을 불충실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로동 공급 사업에서 심한 락후성을 초래하였습니다. 탄광, 광산들을 비롯한 중요 산업 지대에 대한 상품 공급은 중 소 도시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은 더 말할 수 없이 락후한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로동자 지구의 상업망들은 국가 배정 공업 상품에 만 매달리고 있으며 그것마저 극히 불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로동자 지구 상업망들이 식료품 공급에 대하여 거의 무관심한 데로부터 로동자들의 로임을 절반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형편에서는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절반 이

상을 차지합니다.

물론 식량과 간장, 된장 등은 국가에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들에게는 량곡 외에도 채소 및 기타 각종 부식물과 조미료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상업 기관들이 공급하지 않는 까닭에 로동자들의 생활 향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강선, 남포, 송림 등 큰 로동자 지구들에 가 보았습니다. 강선같은 데는 로동자 인구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점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직장 상점은 공업 상품 만 취급하고 식료품은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로동자 지구의 상점들에는 식료품에 대한 자체 수매 권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동자 지구에서는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을 통한 식료품 공급 통로는 사실상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동자들은 개인 상인들을 통하여 식료품을 공급 받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상인도 적으니까 로동자들이 요구하는 식료품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며 강선같은 곳에서는 그의 가격이 평양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식료품 공급이 이렇게 락후하면 우리가 로동자들의 임금을 아무리 높여 주어도 그들의 생활은 개선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료품 공급의 락후성은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서 심한 식료품 부족을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그의 가격을 등귀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와 모리 간상배들의 활동을 조장시킬 것이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을 저하시킬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상업 기관들은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대한 공업 상품의 공급을 계속 증가하는 동시에 식료품 공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폭적으로 인상된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에는 국영 상업 만 참가할 것이 아니라 소비 조합 상점망도 참가하며 국영 농 목장들과 농업 협동 조합들의 직매 활동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 소비 협동 조합들은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식료품을 공급하기 위한 농산물 상점망을 더욱 확장하고 소매 뿐만 아니라 도매도 하며 농민들의 위탁 판매도 적극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 농 목장들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도 도시와 로동자 지구들에서 자체가 생산한 소채, 저류, 과실, 육류, 가금류 등 식료품과 기타 농산물에 대한 직매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동자들의 부양 가족들로서 생산 및 판매 협동 조합을 조직하는 등으로 리용 생산 및 가공 판매 사업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 조합들은 농민들로부터 직접 식료품을 사서 공급할 수도 있으며 또는 자체로서 각종 부식물을 생산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로동자 지구들에서 사회 급양망을 확장할 것이며 대중적인 간이 식당 및 간단한 음료품 판매점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방법을 리용한다면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을 훨씬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가격도 저하될 것이며 따라서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동자 지구들에서는 식료품 공급만 락후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배정하는 공업 상품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동자들을 위하여 국가가 배정한 귀중한 공업 상품들이 부당하게도 모리 상인들의 손에 허다히 넘어 가는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자들은, 식료품은 국가가 배정하지 않아서 못 받고 국가가 배정하는 공업 상품은 상인들의 손에 넘어 가서 이것도 저것도 다 충분히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금후 로동자 지구에 상점, 식당망을 더욱 확장하며 로동자들의 구매력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대중적 소비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을 결정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매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 배정품의 기본적 부분이 공업 상품이며 식료품의 많은 부분이 국가 계획 권내에 인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가 수매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여 식료품과 기타 농산물을 광범히 흡수하지 않는다면 도시에 식료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업 기관들은 국가 배정 상품에 만 매달리고 자체로서 농촌의 광범한 상품 원천을 동원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농촌 경리의 압도적 부분이 협동화되여 식료품에 대한 수매 교류 사업을 일층 계획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였습니다.

우리들은 농촌이 개인 경리로 있을 때와는 달라서 소채, 저류, 육류, 가금류, 조미료 등을 농업 협동 조합들의 농산 계획에 편입하여 그의 생산을 계획적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수매 공급 사업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매 사업에 대한 지역, 가격, 품종 등에 걸치는 각종 무용한 통제는 농촌의 광범한 상품 원천 동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수매 사업은 수매 량정성과 소비 조합 만 하라, 규정된 낮은 값으로 만 수매하라, 일정한 지역에서 만 수매하지 다른 지역에서는 수매하지 말라는 등등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통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수매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이 사업을 잘 진행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자기도 잘 수매하지 않으면서 남도 수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여러 가지 통제가 수매 활동을 구속하며 광범한 농산물 원천을 동

원하지 못하게 하며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외에는 아무 것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 수매 품종과 기타 계획 수매에 포함된 품종을 제외하고는 국영 상점, 사회 급양 기관 및 기타 모든 수요 기관들이 자유롭게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체 수매에서는 지역 및 품종에 대한 통제를 폐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매 가격에서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하여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동무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요 기관들이 자유롭게 수매하면 수매 기관들 상호간에 경쟁이 일어나 가격이 등귀될 것이 아닌가고……. 물론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으로 어떠한 품종에 대하여 가격을 등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농촌 경리의 협동화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고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지도적 지위가 더욱 제고된 조건하에서 일시적 가격 등귀가 있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체 수매에 대한 모든 통제를 폐지함으로써 광범한 상품 원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매 사업의 활발한 전개는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할 것이며 그의 생산을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수매 가격을 안정시키게 될 것입니다.

각종 통제로써 수매 가격을 고착시키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농산물과 부산물 생산을 증가시키고 상품 원천을 더욱 풍부히 하는 방법으로써 가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통제가 농산물 원천의 동원을 구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제가 상업 기관들에게 자체 수매를 적극 진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구실로도 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자체 수매에 대한 모든 통제를 폐지하는 만큼, 수매 사업에서 지금까지의 소극성을 퇴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업 기관들은 앉아서 농민들이 여유 산물을 가져 올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현물 교역, 위탁 수매, 예약 수매, 순회 수매 등 각종 방법을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업 기관들이 농업 협동 조합 및 수산 협동 조합들과 수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제멋대로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상업 기관측으로부터의 수매 계약의 위반은 생산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며 그들의 생산 의욕을 매우 저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물고기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매하여 주지 않을가 두려워서 낮은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실례

까지 있습니다.

수매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하부 상업망들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기관들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중앙 기관에서 하부 상점망들에 수매품에 대한 운반 및 저장 시설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까닭에 그들은 상품의 변질이 두려워서 부득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하여 상업망들에 운반 도구, 창고 및 랭장고 등을 건설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단번에 큰 것을 광범히 건설할 수는 없으나 적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해결하여 주어야 합니다.

농산물의 수매 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농촌 시장의 발전에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농촌 시장은 농산물의 집산지로, 농산물 수매 교류의 중심지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 시장들은 거의 완전히 방임 상태에 있으며 그에 대한 하등의 관리 지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적지 않은 농산물을 농촌 시장에 반출하지 만 그들은 그것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반출한 상품을 도로 가져 갈 수도 없고 보관시킬 데도 없고 하니 나중에는 개인 투기업자들에게 되는 대로 팔아 버립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중개 상인을 거쳐서 농산물을 공급 받게 되는 로동자, 사무원들에게도 불리한 것입니다.

당 및 정권 기관들은 협동 조합들과 매개 조합원 및 개인 농민들이 농산물과 각종 부업 산물을 농촌 시장에 광범히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상업 기관들은 농촌 시장에서 농민들이 반출하는 상품을 광범히 수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을 광범히 동원하며 그의 수매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만 식료 상품 원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그의 공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째로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도시나 로동자 지구의 상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무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후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농촌에서의 협동화 운동의 승리는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 왔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현저히 장성시켰습니다. 농촌 구매력의 급속한 장성은 보다 많은 상품을 요구하게 되였습니다.

특히 농업 생산이 전쟁전 수준을 초과한 오늘에 와서는 우리 농촌에서 식량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였으며 다수의 농업 협동 조합들과 개인 농민들은 자기의

1년 식량을 해결하고도 많은 여유 량곡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와서는 농민들의 공업 상품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이로부터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하며 특히 공업 상품의 공급 비중을 현저히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비 조합 상업 기관들은 상업망을 농민들의 집단 부락에 더욱 접근시키며 더 많은 상품을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작업복, 아동복을 비롯한 각종 일용품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도 광범히 전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자연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며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 농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에 더욱 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편의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대와 농업 협동 조합내에서 리발소, 재봉소, 세탁소, 구두 수리소 등도 조직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 대한 공업 상품 공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소비 협동 조합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여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당은 소비 협동 조합의 조직 개편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전국 각지에 농촌 소비 협동 조합들이 새로 조직되였습니다.

이 조치는 소비 조합 사업에서 적지 않은 개선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 조합 사업에는 부족점이 많습니다. 농촌 소비 협동 조합들은 철저히 조합원 대중들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며 조합 사업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농촌에 대한 농기계 및 건설 재료의 공급에 큰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농촌 경리의 협동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조건에서 농업에서의 기술 발전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대한 농기계 공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적지 않은 선진 농기계와 농기구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농촌에 잘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민들이 어떠한 농기계가 생산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농민 생활이 개선됨으로써 농민들은 많은 주택과 기타 건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농촌에 대한 건재 공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기계 및 건재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대내외 상업성에 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내외 상업성은 성으로부터 매개 군 소재지들에 이르기까지 농기계와 건재의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농기계 및 건재 상점들은 선진 농기계를 선전하며 농민들로부터 주문도 받는 등 농기계와 건재 공급의 강화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 상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할 데 대하여 몇 마디 말하려 합니다. 현 시기에 있어서 개인 상업을 적당하게 리용하는 문제는 국내 상품의 예비 자원

을 동원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 상품 류통의 통로는 협소하며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 기관들은 인민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개인 상업은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손이 아직 덜 미치고 있는 분야에서 보충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상인들이 지방 상품 원천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상인들에게 일정한 상품을 배정하여 주며 그들이 적당한 리윤을 얻어 생활하여 나갈 수 있게끔 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개인 상인들에 대한 세금을 너무 높이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 원천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 이외에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높이면 개인 상인들은 그 만큼 생산자나 또는 소비자를 더 착취하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요컨대 개인 상인들이 국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상업 활동을 전개하여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상업 활동을 인민들의 리익에 복무시키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개인 상업의 긍정적 역할을 리용하면서도 그의 부정적 측면을 적극 제한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 상업의 부정적 작용을 제한하는 사업을 방임하거나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시킨다면 개인 상업은 언제나 투기와 모리 행동에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개인 상인들의 모리 투기적 행동과 각종 국가법 질서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제한과 단속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조치 만으로써는 개인 상업의 부정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해 낼 수 없습니다.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 기관들에서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며 더욱 더 많은 상품을 동원 공급하며 봉사의 질을 적극 제고하여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개인 상인들이 투기와 모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 상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으로도 됩니다.

오늘 농촌 경리의 협동화가 기본적으로 승리하고,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더욱 장성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개인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개인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자연 발생성에 방임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연구와 지도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개인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에 립각하여 그들에게 사회주의적 개조의 구체적 방법과 명확한 전망을 제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위탁 판매를 하며 판매 협동 조합을 조직하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형태를 제시하여 주지 않

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결함입니다.

개인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은 그들의 의식의 성숙 정도와 제반 경제적 조건들을 충분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이나 수공업의 개조에서와 같이 이 사업에서도 조급성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로력 문제를 비롯한 기타 제반 부대적 조건들을 해결할 데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상업이 급속히 확대됨과 관련하여 증가되는 로력 문제를 해결할 과업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상업이나 소비 조합이 경영하는 식당, 상점, 배급소들에서는 오늘까지 국가 로력이 아니면 상업을 못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상인들은 국가의 배급쌀을 받지 않고도 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도 국가 로력은 되도록 적게 쓰고 부양 가족 로력, 림시적인 로력 등을 광범히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품의 수송, 보관 및 포장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업은 상품을 생산지로부터 비생산지에 교류하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는 상품의 수송 및 보관 문제와 포장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조건들이 따르게 됩니다. 상업은 이와 같은 부대적 조건들이 옳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잘되여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상업에는 이와 같은 조건들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상업에서 제기되는 일체 부대적 조건들을 경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상업의 발전은 수송 문제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철도 및 자동차 수송 기관들에서는 상업의 기동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수송 조직을 개편하여야 하겠습니다.

상품의 보관과 포장을 잘하는 것은 질적으로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훌륭한 상품이 생산되여도 보관과 포장을 잘못하면 많은 상품이 파손될 뿐만 아니라 그의 질이 저하됩니다. 특히 식료품같은 것은 보관과 포장을 잘하는 것이 그의 질을 보장하는 극히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

우리는 생산 기관들에 상품의 질을 제고하라는 요구 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 보관하여 상품을 변질시키는 경향과도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원래 상품 원천이 풍족하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 그것을 파손 변질까지 시키면 상품은 더욱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업 기관들에서의 절약을 위한 투쟁의 중심 목표를 상품의 파손을 감소시키며 그의 변질을 퇴치하는 데 두어야 하겠습니다. 파손 및 변질의 감소는 새로운 상품 원천을 획득하는 것과 꼭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절약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업 기관들은 류통비를 체계적으로 저하시켜야 하겠습니다.

상품의 질을 보존하는 동시에 상품의 진렬과 포장을 보기 좋게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포장과 진렬은 소비자들이 보기 만 하여도 구매욕을 일으키게끔 되여야 합니다. 어떤 상품은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잘못되고 너저분하게 진렬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상품을 되는 대로 거두며 사려면 사고 싫으면 그만 두라는 식의 상업 일'군들의 사업 태도를 근절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

이상에서 나는 상업의 개선을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만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상업 일'군들은 류통 분야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업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영예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 가운데는 상업을 경시하며 심지어는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천한 일로 생각하는 그릇된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우리 상업은 리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상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상업은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상업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업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한 신성한 사업에 복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천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상업 일'군들이 자기의 임무를 옳게 인식하고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을 가지며 근로자들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사업에 대한 상업 일'군들의 영예감과 책임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자들에 대한 그들의 봉사성은 제고될 것입니다.

상업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되면 상업 일'군들은 근로자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상업 일'군들은 상업의 기술과 방법들을 적극 연구하며 선진 국가들의 상업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기 사업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없이는 창발성도 나올 수 없으며 사업에서 개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상업 일'군들이 발동된다면 우리 상업은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전체 상업 일'군들이 현 계단에 있어서의 상업의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의 개선을 위하여 모든 열성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거대한 기여를 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경제 건설에 대한 지도 수준을 제고하자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는 거대한 전변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승리적으로 총화하고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증산과 절약으로써 넘쳐 실행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궐기한 우리 나라 근로 대중의 류례 없이 앙양된 정치적 열성과 창조적 로력 투쟁에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력사적인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는 조성된 우리 나라 경제 형편으로부터 출발하여 투자를 극력 축소하고 현존 설비의 최대한의 리용, 온갖 예비의 탐구 활용과 엄격한 절약으로써 40--50 억원의 상품, 5 000—10 000 톤의 강재, 5 만톤 이상의 알곡을 계획보다 더 생산할 것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이 방대한 증산 과제의 실현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선 금년도의 국가 계획 자체만도 공업 총 생산액에 있어서 1956년에 비하여 122%의 장성을 예견한 것이며 농촌 경리에서는 알곡 총 수확고를 102.5%로 장성시킴과 아울러 공예 작물의 현저한 증수를 예견한 것인 만큼 계획 과제를 달성하는 것 만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물며 여기에 첨가하여 상기한 방대한 증산 과제를 실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고 간고한 투쟁이겠는가 하는 것은 가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당에 의하여 육성 단련되였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따라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정책의 정당성과 지도의 정확성을 몸소 체험하고 당에 대한 굳건한 신뢰감으로 충만되여 있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털끝만한 주저도 없이 당이 제시한 증산 과제를 넘쳐 실행하기 위한 장엄한 창조적 투쟁에 확신성있게 돌입하였다.

우리의 로동자들은 선진 기술 및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 적용, 생산 공정의 합리화 등 제 방법으로 설비의 리용 및 원료, 자재의 소비에서 낡은 기술 지표를 타파하고 새로운 기술 지표를 창조하는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94억원의 상품과 2만 8천 6백 톤의 강재를 증산할 것을 맹세하였다. 우리의 농민들은 협동 경리를 더욱 강화하며 선진 영농 방법의 적극적 도입, 선진 농기계의 적용, 온갖 예비의 동원으로써 34만톤의 알곡을 증수할 것을 굳게 결의하여 나섰다. 이리하여 이미 지난 두달 어간의 불꽃튀는 증산 투쟁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는 우리의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결의와 맹세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써 보여 주고 있다.

황해 제철소 로동자들은 제강 시간을 기술 지표보다 평균 1시간 37분 내지 1시간 58분 단축하는 등 창조적 투쟁으로 지나간 2개월간에 강괴 3 668톤, 강재 1 786톤을 초과 생산하였다. 김책 제철소 로동자들은 고로의 내용적 리용 계수를 0.79립방 메터에까지 높이였으며, 2월 27일에는 1월중 최고 생산량보다 근 200톤이나 더 많은 844.7톤으로 일당 생산량을 제고시키는 등 선진 국가의 수준에 못지 않는 기록적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

농민들은 선진 영농 방법을 광범히 연구 습득하며 농촌에 잠재하는 온갖 예비를 동원하면서 재해 일찍부터 토지 복구 및 정리, 우량 종자 선별 확보, 퇴비 반출 등 영농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논 면적의 15% 내외를 보장할 수 있는 랭상모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결정은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것은 12월 전원 회의 결정이 우리 나라의 현 경제 형편을 정확히 분석한 기초우에서 취하여진 가장 정당한 정책임을 확증하여 주는 동시에 이 정확한 정책은 우리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의를 비상히 앙양시켰으며 그들이 다진 결의는 반드시 실천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각급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발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 도에 파견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들을 비롯한 지도 그루빠의 군중적 지도 작풍과 지도 방법이 근로 대중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을 동원함에 있어서 시범적이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내의 일부 일'군들은 당의 결정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대하며 불덩어리같이 타오르는 대중의 창조적 정열을 보려고 하지 않으며, 대중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으며, 대중의 새로운 발기에 둔감하며 자기의 낡은 보수성, 침체성을 고집하면서 대중의 뒤꼬리에 서서 앞서 나아가는 근로자 대중의 지향과 전진 운동을 가로막는 죄악적 결과까지 초래시키고 있다.

일례로 락연 광산 로동자들은 삭도의 운광률을 높이며 원광 품위를 높이며 폐석 수선 작업의 실시 등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과 온갖 예비의 탐구 리용으로써 자기들의 맹세를 기어이 실천하려고 백방으로 애쓰고 있는데 이곳 지도 일'군들은 소위 《설비 확장》과 《설비 교체》를 웨치며 수만 공수의 로력 투하와 수백만 원의 국가적 투자를 꿈꾸면서 로동자들의 창발적 발기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락후한 상태에서 답보하고 있다. 이와 류사한 현상들을 특히 전력, 석탄, 건설, 수산 부문의 지도 일'군들 속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일'군들은 새로운 건설이 국가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되는대로 《10개년 계획》이니 《증설》이니 하면서 새로운 예산 지출을 요구하는 데만 눈이 어둡고 기존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할 데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은 어데 기인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일부 지도 일'군들이 당의 정책과 결정에 불충실하며 형식적으로 대하는 데서 오는 것인 바 나타난 사실은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전력, 석탄, 건설 및 기타 일련의 성들과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력사적인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 및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거의 연구하지 않았거나 극히 형식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따라서 사상적 준비에서부터 뒤떨어져 있게 되였다. 이러한 부문일수록 생산은 보다 락후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였다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둘째로 일부 지도 일'군들이 대중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며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믿지 않으며 대중과 접촉하지 않고 하부 실정에 어두우며 자기의 독단과 주관주의, 경험주의를 고집하는 관료주의적 지도 작풍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일수록 번잡한 문서 놀음이 성행하며, 아무 효과 없는 회의가 많으며, 현장보다 사무실에 더 많은 기술자들을 붙들어 매놓고 있으며 고귀한 창의 고안들이 책상 설합 속에서 썩고 말며 대중의 창발적 제의는 묵살되고 마는 것이 통례로 되여 있다.

그것은 세째로 일부 지도 일'군들이 경제 건설에 대한 깊은 지식과 능숙한 수완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며 자기 공장, 기업소의 생산 능력 및 가능성을 샅샅이 파악 료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리용할 줄 모르며 계획 실행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동원될 줄 모르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전투적 과업은 우리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일'군들의 경제 건설에 대한 지도 방법과 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의 방대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은 절대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특히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이며 가장 어려운 고비인 금년도의 증산 목표는 아주 긴장된 과제이다. 이 방대한 경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다.

첫째로는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이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우리의 기업소를 지도하려는 책임 일'군들의 의욕과 수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첫째 조건, 즉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있다고 서슴치 않고 대답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풍부한 자연 부원이 있으며, 이 부원을 인민에게 유리하게 동원 리용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담당하기에 훌륭히 준비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는 강력한 인민 주권이 있으며, 공황을 모르며 경제의 계획적 운영을 보장하는 공고한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착취에서 해방되고 나라의 주인으로 된 수백만 근로 대중의 창조적 열성이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지도되며 100 여 만의 우리 나라 선진적 근로자들을 집결하여 철통같이 통일되여 있으며 정확한 정책과 령도로서 항상 조선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였으며 인도하고 있는 위력한 우리 당이 있으며,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나라들의 성의 있는 물질—정신적 원조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증산 과제를 초과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문제는 둘째 조건, 즉 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지도 일'군들의 사상적 동원과 이 가능성을 능숙하게 리용하는 그들의 지도 수준과 수완에 달려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 우리 인민 경제 부문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변들이 크면 클수록 이를 견지하며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더욱 더 주밀하고 높은 수준에서의 조직 사업이 병행되여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에게 경제 건설에 대한 지도 수준을 가일층 제고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일'군들의 경제 건설에 대한 지도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우선 그들 자신이 당의 경제 정책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며 이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확고히 서며 당의 결정에 불충실한 태도와 비타협적인 사상 투쟁, 당성 단련을 위한 투쟁을 가강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근로 대중의 총명과 창발적 지혜에 의거하지 않으며 그들과 리탈되는 온갖 관료주의적 작풍을 시정 퇴치하고 군중 관점, 군중적 사업 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과학 리론은 당에 의거하지 않으며 대중의 역할을 무시하는 자들이 어떠한 운명에로 전락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모든 선진 당들의 경험과 함께 우리 당의 경험은 이를 실증하여 주고 있다.

관료주의를 퇴치함으로써만 지도 일'군들은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갈 수 있으며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간고를 같이 할 때 여하한 난관도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된,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증산하기 위한 투쟁 과업은 우리 지도 일'군들에게 경제 건설에 대한 지식의 더욱 깊은 소유와 생산을 능숙하게 지도할 줄 아는 수완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깊은 경제 기술 지식과 능란한 수완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 긴장된 과업을 지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오늘 앞서 나아가고 있는 대중의 창조적 로력 투쟁을 더욱 높이 전진시키기는 고사하고 지도에서 물러 서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경제 건설에 대한 능숙한 지도와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이 완전히 결합되는 때에라야만 우리 기업소들은 더 한층의 발전과 전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경제 건설에 대한 지도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금번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가 직접 조직 진행한 지도 방법은 획기적 모범으로 된다. 우리 지도 일'군들은 이 경험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지도에서의 산 모범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의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은 이와 같이 자기의 지도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킴으로써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하여 궐기한 근로 대중의 앙양된 정치적 열성을 더욱 제고시키며 그들이 채택한 맹세의 실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심한 고려를 돌릴 것이다.

근로자들의 고귀한 맹세가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실적 문서주의를 배격하고 현지 지도를 강화하며 작업 조건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며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꼭꼭 달성하도록 지도 보장할 것이며 창조적 열의에 들끓는 증산 경쟁 운동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것이다.

특히 오늘 광범한 예비를 적발 동원한 경험은 적발된 예비의 규모가 우리들의 기술 수준 여하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술 수준의 제고에 깊은 주의를 돌릴 것이다. 생산 기술을 부단히 개선하며 기술자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제고시키며 주의 깊게 기술에 대하며 그것을 철저하게 리용할 것이다. 선진 기술의 도입, 선진적 작업 방법의 적용, 소기계화, 생산 조직의 합리화 등 각종 창의 고안을 백방으로 지지 발전시킬 것이며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시키며 락후한 자를 선진 분자의 대렬에 끌어 올리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진지하게 조직 집행할 것이다.

한편 증산에 치중하는 나머지 생산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오작품을 많이 내거나 혹은 기계를 혹사하는 경향을 허용하지 말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절약 제도를 더욱 확립하며 원가를 더욱 저하시키며 경제적 재산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행정 기구를 간소화하고 비생산적 관리비를 축감하며, 로력의 랑비를 근절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또한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부단히 실시하며 그들의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 제고에 세심한 관심을 돌리며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할 것이다.

농촌 경리 부문의 지도 일'군들은 선진 영농 기술과 방법을 광범히 도입 일반화하는 사업에 지도의 중심을 두며 특히 다수확 영농 방법인 랭상모의 광범한 실시를 적극 지도 보장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농업 협동 조합들의 가일층 강화에 계속 부절한 고려를 돌릴 것이며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강화하며 조합의 기술적 장비를 촉진시키며 다각적 경리를 장려하며 옳게 조직 지도할 것이다.

오늘 우리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 앞에는 우리 사업에서 아직 존속되고 있는 제 결함을 시급히 시정 극복하고 우리가 거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한계단 높은 비약을 위한 커다란 전환점을 돌파하는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 전개하여야 할 책임적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지도 일'군들이 이 전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써 꾸준한 투쟁을 전개한다면 경제 건설에 대한 지도 사업에서 발로되고 있는 제 결함은 최단 기간내에 시정될 것이며 경제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 사업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여 정치적 과업의 수준에까지 제고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관철될 것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는 촉진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더욱 아름답고 부강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영원히 쏘련 인민과 함께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김 창 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간에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8년이 지나갔다.

지난 력사 행정이 증시하는 바와 같이 조 쏘 량국 인민간의 친선 관계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이 협정이 가지는 의의는 참으로 거대하다.

장구한 시기에 걸쳐 억압 받고 학대 당하던 조선 인민은 자기의 주권—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자기 력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민족적 평등과 위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대 강국 쏘련과 국제적 협조와 친선 관계를 설정하였다.

조 쏘 량국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은 오랜 전통과 깊은 력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는 조 쏘 량국 인민간의 친선 단결의 강화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은 력사적 도표로 되였다.

지난 기간에 있어서의 조 쏘 량국간의 친선과 협조 관계의 확고한 발전은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우리의 공동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청소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하며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의 식민지 체계로부터의 리탈과 강대한 세계 사회주의 체계에로의 인입은 동방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영원히 끊어 놓았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자주적 발전과 조 쏘 량국 인민간의 친선 협조의 강화는 국제 사회주의 력량의 확대 강화와 아세아와 세계 평화 유지 사업에서 적지 않은 기여로 되였다.

조 쏘 량국 인민간의 친선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 위업을 고수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시련되였으며 오늘 그 무엇으로써도 파괴할 수 없는 불패의 력량으로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친선 단결의 내용은 앞으로의 생활과 실천 과정에서 더욱 풍부해질 것이며 조 쏘 량국 인민의 협조는 두 나라 인민의 생활에서 더욱 거대한 역할을 놀 것이다.

우리 조선 인민은 오늘 쏘련 인민과 함께 조 쏘 경제,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8주년을 의의 깊게 맞이하면서 세계 평화의 불패의 성새이며 사회주의 진영의 선두에 서 있는 위대한 쏘련의 위력이 반석같이 튼튼해지고 있는 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며 기뻐한다.

최근 년간에 쏘련 인민은 영광스러운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의 령도 밑에 력사적인 20차 당 대회가 제시한 로선을 따라 확고하게 전진하면서 장엄한 공산주의 건설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였다.

인민 경제 발전 제 5차 5개년 계획을 성과있게 완수하고 1956년부터 제 6차 5개년 계획 실행의 길에 들어 선 쏘련 인민은 그의 첫 해 계획 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1956년 공업 총 생산액은 1955년에 비하여 11% 증가하였으며 농업 생산에서도 전례 없는 장성을 보이여 곡물 총수확고는 1955년에 비하여 1956년에는 약 20%가 증가하였다. 쏘련의 과학, 문화는 최근 시기에 새로운 앙양의 길을 걷고 있다. 생산의 장성과 함께 쏘련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은 더욱 향상되며 풍부해지고 있다.

쏘련 인민이 달성하고 있는 이러한 성과는 쏘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또한 국제 사회주의 력량을 더욱 튼튼히 하여 주고 있다.

위대한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는 곧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 인민은 쏘련의 성과를 자기의 성과로서 기뻐하며 공산주의 건설 사업에서 쏘련 인민에게 더욱 새로운 승리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바라고 있다.

조선 인민은 쏘련의 위력의 장성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에서의 전초 진지를 확고히 수호하며 우리 혁명 승리를 향하여 믿음직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가장 강대한 현대적 군사 기구의 야수적 침략을 격파한 조선 인민은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투쟁에서도 혁혁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전후 3년 동안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그처럼 혹심하였던 전쟁 피해를 극복하고 전쟁 전 수준을 릉가하였다.

1956년 공업 총생산액은 전쟁 전 1949년 수준에 비하여 약 2배로 장성되였으며 알곡 총수확고도 1949년 수준을 8% 더 릉가하였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성과 있게 촉진되여 1956년말 현재로 총농가 호'수의 80.9%, 총경지 면적의 77.9%가 협동 경리에 망라되였다.

공업 및 농업 생산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함께 우리 인민 생활도 훨씬 개선되였다.

전후 년간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고비를 성과적으로 넘어 선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제시된 제 1차 5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한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 인민이 쟁취한 이러한 성과는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으며 세계 사회주의 력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로 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모든 승리와 성과에 대하여 말할 때 언제나 이것을 사회주의 진영 제국, 우선 무엇보다도 위대한 쏘련의 거대한 원조와 련결시켜 보고 있다.

우리 인민은 곤난과 가혹한 시련으로 가득찬 자기의 현대 력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특히 민족적 독립의 완성과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최근 10 여 년간의 실제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쏘련과의 친선, 협조 동맹의 불패의 힘을 충분히 체험하고 있다.

식민지 망국의 설음을 누구보다도 쓰라리게 체험한 조선 인민은 자기가 지불한 막대한 희생과 고통의 대'가로 얻은 교훈을 통하여 오늘 누구가 우리의 진정한 벗이며 누구가 우리의 원쑤인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오직 위대한 레닌에 의하여 창건된 사회주의 국가만이 고립 무원한 조선 인민의 믿음직한 벗이였으며 그의 리익의 진정한 옹호자였다.

조선 인민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위대한 10월이 가리키는 길에서 조선 민족 해방의 길을 찾았으며 세계에서 첫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을 커다란 희망으로 우러러 보며 그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일제 강탈자들과 싸웠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한 해방으로 조선 인민은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았으며 빼앗겼던 주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다.

해방된 우리 나라에는 진정한 인민의 주권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였으

며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창설되고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우리의 우방인 쏘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국제 혁명 세력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해방 후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의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의 혁명적 기세는 고도로 앙양되였다.

그러나 반 세기 동안이나 식민지 노예의 멍에에 얽매여 국가 정치 생활에 직접 참가할 기회와 경험을 가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파괴된 낡은 통치 기구의 페허 우에 곧 전혀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 국가를 자기의 손으로 창건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해방된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국내 반동 세력과 야합하여 조선 인민을 반대하여 나섰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 앞에는 해방과 혁명의 성과를 수호하며 공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자체의 혁명 력량을 준비하며 단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쏘련 군대는 조선을 해방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반동으로 하여금 혁명을 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게 하였으며 해방의 열매가 진실로 조선 인민의 소유물로 되도록 적극 보장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위대한 쏘련 인민은 조선 인민의 해방자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믿음직한 계급적 동맹자로, 원조자로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강력한 국제 혁명 세력의 지지 하에 우리 당은 모든 난관을 타개하면서 로동 계급의 대렬을 결속시키며 그 주위에 광범한 애국적 혁명 세력을 집결함으로써 북조선에서 혁명적 민주 기지와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창건하는 데 승리하였다.

쏘련 인민의 원조는 북조선에서 민주 혁명 과업의 성과적 완수를 보장한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되였으며 이 력사적인 혁명적 전환을 촉진시켰으며 용이하게 하여 주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새 생활 건설에서 위대한 레닌의 혁명적 사상과 리론 및 그의 실천 과정에서 달성한 쏘련의 고귀한 경험들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쏘련의 사심 없는 물심 량면의 원조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여 주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를 보장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쏘련은 국제 무대에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 행동을 폭로 규탄하며 조선 인민의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며 조선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쏘련의 막대한 경제 기술적 원조는 우리 나라가 락후한 경제적 토대 우에서 자주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으며 락후한 기술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발전한 현대적인 공업을 창건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쏘련과 기타 형제적 국가들의 원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로선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생산 수단의 생산은 4배로 장성되였으며 소비재 생산은 2.1배로 장성하였다.

쏘련의 원조 하에 금후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수 많은 대 중 기업소들이 복구 신설되였으며 일제 하에는 거의 보잘 것 없던 우리 나라의 기계 공업은 오늘에 와서 금후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다.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이 1944년에 전체 공업 생산고 중에서 불과 1.6%를 이루었다면 1956년에 와서는 17%로 장성하였으며 방직 공업은 1944년에 6%였던 것이 1956년에 와서는 18.4%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공화국 북반부는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식민지 경제의 락후성을 현저히 극복하고 경제 구조와 기술적 토대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쏘련의 거대한 경제 기술적 원조와 우리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 하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중요한 성과이다.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제 국가들과의 경제적 련계의 강화는 과거 쏘련이 자국 내에서 중공업의 모든 분야를 반드시 창설하여야 하였던 그러한 곤난을 우리 나라가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 가장 필요한 중공업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자기의 자재와 로력을 집중적으로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 주었다.

조 쏘 경제 및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쏘련 전문가들이 직접 우리 나라에 와서 제공하여 준 방조는 우리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해방 직후에 인민 경제를 복구하며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들과 관리 일'군들의 격심한 부족과 파괴된 공업과 그의 심한 편파성은 장구한 일제 통치가 우리 나라에 남겨 놓은 엄중한 후과였다.

그러나 청소한 우리 나라 경제 일'군들은 쏘련 기술자들의 성심 성의의 방조로 말미암아 지금에 와서는 현대적인 대 기업소들을 지도할 능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의 젊은 기술자들은 생산에서 곤난한 기술적 문제들을 쏘련 기술자들의 방조 하에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능히 자주적으로 현대적인 생산 시설과 기계들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

쏘련 인민은 또한 많은 우리의 류학생과 실습생들을 자기들이 달성한 선진적 과학 기술로 무장시킴으로써 우리의 민족 간부 양성에 거대한 방조를 주고 있다.

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의 과학, 문화 분야에서도 위대한 쏘련의 방조와 경험은 우리의 전진 운동에 큰 힘을 주었으며 우리의 새로운 민족 문화의 개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악독한 식민지 통치는 조선 인민의 우수한 민족 문화 유산을 유린하고 락후한 봉건적 자본주의적 사상을 조선 인민들에게 부식시켰다. 또한 일제 하에서 조선 인민들은 쏘련을 비롯한 전 세계의 선진 과학과 발전된 문화를 섭취할 수 없었으며 그와의 접근을 일제는 온갖 방법을 다하여 가로 막았다.

해방된 조선 인민 앞에는 자기의 새로운 과학, 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제기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방으로는 일제에 의하여 말살 당하였고 억눌리였던 우수한 민족 문화 유산을 소생시켜야 할 것이였으며 타방으로는 쏘련을 비롯한 기타 세계의 선진 과학과 문화를 광범히 섭취하여야 할 것이였다.

그리하여 쏘련을 향하여 배우라는 당의 구호에 따라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의 로작들을 위시한 쏘련의 과학, 문화의 모든 분야의 도서들이 다량으로 번역 출판되여 인민들 속에 광범히 보급되였다. 1956년말 현재로 우리 나라에서는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비롯하여 문학, 예술, 기술 등 분야에서 4천 338종의 4천 357만 1천 704부에 달하는 쏘련 서적들이 번역 출판되였다. 이 출판물들은 우리 인민의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여 주었으며 조선 인민들의 정신 생활에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우리 나라에서 문화 혁명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서적들을 통하여 조선 인민들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을 체득하고 있으며 과학, 문화, 교육, 기술 등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의 해결에서 거대한 방조를 받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사상으로 되였으며 우리 당은 그 리론에 의거하여 인민들을 승리에

로 향도하고 있다.

조 쏘 량국간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는 두 나라 인민들의 상호 리해를 더욱 두터이 하며 형제적 친선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조선 인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는 《자유》, 《평등》의 허울 좋은 간판 하에 민족의 자주권이 미제에 매도되고 있으며 《원조》의 미명 하에 공공연한 식민지적 략탈이 허용되고 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시종 일관하여 조선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군사 기지로 만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리 승만은 미제의 이러한 탐욕적 목적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남조선 경제를 미국 독점 자본의 전면적인 지배와 통제 하에 내말기고 동족 상쟁의 내란을 계속 고취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중요한 생산 시설들과 경제 기관들은 완전히 미국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으며 리 승만 정부는 독자적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에서는 1955년에 공업 생산량이 일제 시대의 2분지 1에 불과하였다. 곡창이라고 불리워지던 남조선의 미곡 생산량은 1956년에 1936—1940년 간의 년평균 생산량보다 25%나 감소되였다. 미제가 그렇게 소리 높이 떠드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 《원조》의 결과는 바로 이러하다.

그가 남조선에 강요한 온갖 군사적 및 경제적 협정들은 미제에 의한 남조선의 정치적, 군사적 및 경제적 예속을 강화하는 목적에 복무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빈궁과 무권리와 암흑 속에서 허덕이게 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 체결된 《한 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은 남조선을 미제 상품 시장으로 뿐만 아니라 미국 독점 자본에 의한 무제한의 략탈 대상으로 내맡기는 매국적 본질을 여지 없이 폭로하였다.

오늘 남조선의 주인은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여기에서는 오직 미국과 리 승만을 위한 것 만이 용허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그 어떠한 것도 말살 당하고 있다. 오늘의 남조선의 현실은 조선 력사에서 가혹한 암흑 시기라고 불리워진 리조 말기와 일제 통치 시기보다도 참혹하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약한 나라에 대한 강한 나라의 지배와 예속, 타국 내정에 대한 몰렴치한 간섭, 민족적 자주권의 유린에 기초하고 있다.

리 승만 도배와 미국과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의 전형적 실례이다.

조 쏘 량국간의 친선 관계는 우리의 원쑤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거나 또는 어떤 《추종 관계》가 아니다. 이는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인민들 스스로의 동맹이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제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두 나라는 사회 제도의 공통성, 공동의 사상과 목적들에 의하여 결합되여 있으며 그들의 협조 관계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제 원칙과 민족 평등에 관한 레닌적 원칙에 튼튼히 기초하고 있다.

조 쏘 량국 인민간의 친선과 동맹은 우리 두 나라 인민의 근본적 리해 관계의 일치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며 동시에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된다.

우리 당이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함께 10월의 길을 따르며 쏘련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며 쏘련의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풍부한 경험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우선 우리들 자신의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이는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와 원칙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레닌은 과도기의 기본 경제 형태와 기본 계급 력량 관계는 각 나라에서 동일하다고 교시하였다.

이것은 각국 당들의 정치, 경제, 문화 건설 부문에서 제기되는 강령적인 정책적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공통하며 계급 투쟁의 분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며 자본주의를 결정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각 나라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규정하여 준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류가 걸어 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쏘련 인민들이 축적한 고귀한 경험들은 인류의 공동 재산으로,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지침으로 되고 있으며 그의 기본적인 것은 실천에서 검열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로 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 보물고에 기여한 모든 것, 그의 리론과 전략 전술의 기본은 각국 당들의 실천 속에 생생히 살고 있으며 그의 당 건설 원칙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건설 원칙으로 확고히 뿌리 박히였다. 그의 영광스러운 전통은 혁명적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통으로 되였으며 각국 당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만약 맑스—레닌주의가 현실로 된 강대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쏘련이 없고 그로부터의 거대한 물질 정신적 원조가 없다면 오늘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을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쏘련은 후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에 예속됨이 없이 자주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기술 경제적 원조를 능히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물질적 력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소 민족들의 리익과 제 인민간의 친선과 세계 평화를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할 수 있는 강유력한 평화의 성새로 되고 있으며 그의 거대한 도덕적 권위와 견인력은 진보적 인류의 한결같은 지지와 동정을 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공산주의자들은 쏘련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공인된 중심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쏘련을 향하여 배우며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로동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을 자기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력사적 경험은 쏘련과의 견고한 형제적 단결이 없이 그 어느 나라도 련합된 제국주의 반동 세력 앞에서 자기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성과적으로 고수할 수 없으며 인민 경제와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바로 쏘련을 제일 미워하며 무서워 하고 있으며 쏘련을 비방하고 쏘련을 중심으로 단결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분렬시키기 위한 《반쏘 반공》의 도발 책동에 그렇게도 악착하게 달려 붙고 있다.

공산주의의 원쑤들은 우리 대렬 내에 소위 《민족 공산주의》를 고취함으로써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의 통일 단결의 사상적 기초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파괴하려 하며 자본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가장 유력한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훼방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제각기 《홀로》, 《중립》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을 설교하는 정객들의 기도는 그것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사회주의 진영을 분리시켜 놓고 하나씩 파멸시키려고 날뛰는 이러한 국제 반동의 흉책과 발맞추는 것으로 된다.

웽그리야 사건은 웽그리야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하나의 첨예한 계급 투쟁이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심각한 시련이였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단합된 력량으로 제국주의의 침략적 기도를 분쇄하였으며 우리 로동 운동 대렬 내에 나타난 부분적인 소부르죠아적 동요와 우경 기회주의적 편향과 종파 분자들의 음모 책동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기치하에 로동 운동 대렬의 통일을 더욱 철석같이 견지하고 있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와 국제 로동 계급의 련대성을 가일층 강화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견해와 행동의 통일 그리고 국제 로동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쏘련에 대한 태도 문제는 현 시기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본 문제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부인하며 쏘련의 기본적인 혁명 경험들을 부인하는 것은 세계 사회주의 력량의 단결을 약화시키며 결국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과 사회주의의 위업에 배치되는 것이다.

만일 진실로 공산주의의 승리를 원하며 그의 위업에 충실하려 한다면 누구도 위대한 10월이 가리키는 혁명의 대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는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발전 및 그 가일층의 강화의 기본에 관한》 선언에서 제 인민간의 평등과 주권 존중의 원칙에 립각한 레닌적 대외 정책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이는 현 계단에서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 간의 친선과 협조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며 세계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각국 로동 계급의 국제주의적 과업과 목적은 그들의 민족적 리익과 완전히 합치된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칙으로부터의 리탈은 곧 자기 자신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에 대한 배반으로 된다.

각국 공산당과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충실성의 산 모범을 바로 쏘련 공산당의 실천적 활동에서 보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 배우고 있다.

쏘련 인민은 타국 인민들의 평등과 자주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옹호하기 위하여 언제나 자기의 모든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다.

레닌은 일찌기 자기의 민족적 리기주의를 보존하면서 민족들 간의 평등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국제주의라고 생각하는 소부르죠아 민족주의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첫째로 한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의 리익을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이 투쟁의 리익에 복종시킬 것을 요구하며 둘째로 부르죠아지를 타승하고 있는 민족에게 국제 자본을 전복하기 위하여 거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나갈 능력과 각오를 요구한다》고 교시하였다.

레닌의 이 교시에 끝까지 충실한 쏘련 인민은 10월 혁명 이후 간고한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외로이 혁명의 위업을 고수해 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파쑈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을 반대하는 영웅적 투쟁에서 인류와 문명을 파쑈 노예화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함으로써 자기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전후에는 자기들의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해방된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의 경제, 문화 건설에 방조하였으며 최근에는 웽그리야 인민을 방조하여 반혁명을 진압하고 웽그리야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며 구라파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세계 진보적 인류는 쏘련 인민의 이 숭고하고 위대한 업적과 공헌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며 력사가 흐름에 따라 쏘련 인민이 인류 앞에 수행하고 있는 사명의 세계사적 의의를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이것은 련합된 국제 자본의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국제 로동 계급의 필승 불패의 무기이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이 원칙을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무기를 무디게 하려는 유해로운 각종 수정주의 경향들을 무자비하게 폭로하며 맑스—레닌주의 기치하에 자기 대렬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고수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며 형제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고 있는 우리 당이 최근 자기들의 로골적인 종파 음모 행위로써 당에 도전하여 나섰을 뿐만 아니라 형제 당들과 우리 당과의 리간을 조성하려던 반당 종파 분자들의 책동을 묵과할 수 없었으며 그를 제때에 과감하게 폭로 극복하고 당 내부 통일을 견지한 것은 정당하였으며 당연한 일이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할 것이며 쏘련을 선두로 한 중화 인민 공화국 및 형제적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극동에서의 초소를 튼튼히 고수함으로써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위업에 기여할 것이다.

조선 인민은 영원히 쏘련 인민과 함께 전진할 것이며 그의 충실한 벗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군중 공작에서의 지도 일'군들의 복무성

김 영 식

해석과 설복은 군중 공작의 기본 방법이다

대중 속에서의 우리의 모든 군중 공작의 기본 내용으로 되는 것은 대중을 교양하며 그들에게 당 정책을 철저히 침투시키며 그들을 당 정책 실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군중 공작에서는 시기와 대상, 과업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의 군중 공작의 기본 방법은 설복과 해설이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 사업은 인민 자신의 일이며 인민 자신의 힘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며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인민 대중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민 대중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반영하며 옹호하는 우리 당 정책은 그것이 맑스—레닌주의 과학의 기초 우에서 작성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직 자기의 의식 수준이 당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인민 대중에게는 상세하고 통속적으로 해설하지 않으면 그의 본질, 그의 의의를 완전히 정당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심오한 과학적 내용이나 복잡한 정치적 내용을 가진 당 정책, 결정이라 하여도 그것은 인민의 리익을 반영하고 있음으로 인내성 있게 설명하고 해석한다면 대중은 그것을 납득하며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대중이 당 정책을 리해하고 자기의 것으로 파악하였을 때 그들은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같은 영웅성과 창발성을 발휘한다. 이것은 리론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지 경험이 더욱 잘 확증해 준다. 그것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발휘한 인민 대중의 영웅성과 적극성, 특히 최근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에서 발휘하고 있는 인민 대중의 놀라운 창발성과 적극성의 례 만으로써도 충분한다.

대중에게 그 정당성을 인식시키고 파악시킴이 없이는, 어떠한 천재도, 영웅도 대중의 적극성을 동원할 수 없으며, 또 대중을 발동시킴이 없이는 어떠한 혁명 사업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확고한 진리이다.

우리 당이 대중의 무진장한 지혜와 적극성을 그렇게 성과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 정책이 항상 인민의 리해에 부합되고 또 그 정책을 대중이 납득하고 파악하도록 인내성 있게 해석하고 설복할 줄 아는 거기에 있다.

인민의 리익을 위한 참으로 좋은 당 정책도 그를 옳게 대중에게 리해, 파악시키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내려 먹인다면 그 정도에 따라 이러 저러한 손상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실제 경험이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대중을 설복할 대신에 대중에게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주의, 군중 정서를 료해하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내려 먹이는 주관주의, 사업에서 목적과 내용을 추구하지 않고 겉 차림만 하는 형식주의 등등의 그릇된 경향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면서 모든 당원들,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을 튼튼히 장악하고 그것을 인내성 있고 능숙하게 대중에게 해석 설복하여 대중의 힘으로써 관철하도록 할 것을 시종일관 강조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은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등등의 경향을 극복하고 당 정책을 대중 속에서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당원들, 특히 지도 일'군들이 옳은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인민적 공작 방법을 체득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오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일'군들이 그 모두가 자기의 실천적 활동에서 해설과 설복으로써 대중을 지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험이 어리여 군중 공작에 서투른 일'군은 물론이거니와 조급히 사업 성과만 따지기에 관습된 부분적 일'군들에게 있어서는 왕왕 설복과 해설을 군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에게 진실을 납득시키는 교양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해야만 되오》, 《왜 못했소》, 《사상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정치적으로 옳지 못하오》하는 식으로 강요하고 묻고 따지는 것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시기 평남도 내 부분적 당 단체에서는 농업 협동 조합을 건설하던 초기에 있어서나 옥수수 재배 면적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던 초기의 군중 공작에서 이러한 결함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옥수수 재배를 장려하던 초기에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농민들을 해설하고 설복할 대신에 지어 단순히 《발 곡식의 왕이니 옥수수를 심어야 만 하오》 하는 식으로 그의 재배 면적을 확장하려 하였다.

옥수수 재배가 알곡 증산에서 노는 역할이나 이미 옥수수를 재배한 농민들의 알곡 수확의 증대에 대하여 진실로 납득이 되도록 해설하고 설복할 대신에 부분적 지도 일'군들은 옥수수 재배를 내려 먹이는 식으로 선전하였다. 많은 농민들은 옥수수 재배 면적을 확장하라는 지도 일'군들의 강조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도내 일부 산간 지대 농민들은 해마다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이 문제 해결의 고리로 되는 옥수수 재배 면적을 확장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척박한 토지에다 조를 심고 콩과 팥을 박으면서, 옥수수는 오곡 중에 들지 않는다 하여 푸철에 한 두자루 맛으로나 먹지 사람은 오곡을 먹어야 만 된다고 완고하게 고집하였다.

그러나 당 정책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를 관철시키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중을 인내성 있게 해설 설복하기에 노력한 당 단체들은 농민들의 완강한 고집을 깨뜨리고 옥수수 재배에서 성공하였던 것이다.

례하면 북청군 당 단체를 비롯한 기타 일부 시, 군 당 단체가 그러하였다. 북청군 당 단체는 옥수수 재배 면적 확장의 유익성을 리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농민들에 대하여 행정적 방법으로 내려 먹이지 않고 옥수수 재배의 유익성을 몇번이고 거듭 인내성 있게 대중 속에서 해설 설복하였다. 그들은 농민들의 생활 속에 침투하여 생활 형편을 료해하면서 해방 후 10년간 척박한 산전에 옥수수 마치종을 계속 재배하여 식량난을 모르고 사는 여러 농민의 숨은 실례를 비롯한 귀중한 실증적 자료를 수 많이 포착하여 그를 전체 농민들에게 해설 보급하였다. 그들의 생활 형편의 구체적 료해와 생생한 실례들은 군당 단체의 해설 설복 공작에서 가장 실효있는 례증으로 인용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청군 내 농민들은 옥수수를 주작물로 전환하였는 바 이 결과 기본적으로 식량난을 모르게 되였다. 따라서 당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신심이 확고해졌으며 지도 일'군에 대한 신임이 일층 높아졌다. 그리하여 그 후 다른 과업들의 실행에 있어서 대중의 발동이 일층 용이하고 순조롭게 되였던 것이다.

평남도 당 단체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군중 공작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조급성 등과 투쟁하며 대중을 인내성 있게 설복 교양하는 사업을 강화하여 지난 해에 일부 농민들이 《하

느냐 마느냐》하던 씰로쓰 생산 문제도 비교적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농촌 경리 전반적 분야에서 선진 영농 기술 도입 문제, 특히 금년도 랭상모 보급 문제 등 기타 알곡 증산을 위한 당과 정부의 정책을 대중 속에 보다 성과 있게 침투시킬 수 있었으며 그의 실현에로 대중을 사상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였다.

군중 공작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을 튼튼히 장악하고 그를 관철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안일성과 조급성을 버리고 대중이 납득하도록 인내성 있게 그들을 설복하며 그리하여 대중이 당 정책의 정당성과 지도 일'군들의 대중에 대한 복무성을 실제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것이다. 또한 일단 어느 한 공작에서 진실로 설복되여 동원된 군중들은 참되게 교양되여 다음 군중 공작에서는 이전보다 비교적 더 높은 자각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며 그와 반대로 관료주의적 무책임한 사업 작풍의 결과로 어느 한 군중 공작에서 실패하여 대중의 신임을 손상시킨다면 당 정책 집행에 손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시정하기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일'군들은 어느 때나, 어떠한 사소한 과업을 집행하는 행정에 있어서나 대중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납득시킴이 없이 문제를 부당하게 내려 먹이거나 호령하고 명령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중 앞에서의 지도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자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자기의 공작 결과에 대하여 당 앞에 책임지는 동시에 인민 대중 앞에서 책임진다. 그가 당에 충실하게 일하였는가 못하였는가는 곧 인민 대중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여 인민 대중의 리익을 적절히 옹호하였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의 리익, 인민 대중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는 당성의 최고 척도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군중 공작에서 인민 대중 앞에서 책임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당에 대한 인민 대중의 신임이 비할 바 없이 제고되였고 그들이 우리 당 정책에서 자기의 행복과 번영을 더욱 더 확신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 특히 지도 일'군들은 대중의 리익이 손상당하는 것을 묵과할 권리가 없으며 대중이 당하고 있는 곤난과 애로를 알면서 방관하여서는 안된다. 그와 반대로 대중의 초미의 문제를 알아내기에 노력하며 그것을 자기 자신의 애로와 고통과 같이 느끼고 제때에 해결해 주는 것이 의무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당원들, 지도 일'군들의 대중에 대한 복무성과 책임성, 지도성이 있는 것이다.

당과 인민 앞에서의 자기의 책임감을 정당하게 리해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창발적이고 능숙한 공작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있어서 평남도 내 일부 군당 단체들에서는 긍정적 경험을 보여 주었다.

례하면 문덕군 당 위원회는 전후 한때 군내 일부 농민들 속에서 농사보다 상적 행위에 더 몰두하는 현상이 발로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였다.

군당 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이 전쟁으로 인하여 생활이 령락된 일부 농민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무책임하게 방임하지 않았든 것이다.

동시에 그것을 일부 농민들의 불견실한 사상적 결과로만 규정하지 않았으며 그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손쉬운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군당 위원회는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이 상 행위를 하게 된 조건을 조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지도 일'군들이 대중과 직접 접촉하며 그들의 애로를 책임적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열성에 의하여 농민들은 자기들의 애로를 숨기지 않고 말하였다.

농민들은 말하기를 정전 직후이라 아직 생활은 곤난한 데 바다'물이 논에 밀려 오고 비는 제때에 내리지 않아 농사는 가망 없으니 할 수 없이 장사라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였다.

문제는 그들에게 자기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명시하여 주며 또 새로운 생활을 건설하도록 인도하여야 하였는 바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이 제시한 방침에 립각하여 농토를 복구 개량하며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였다.

여기에서 군당 위원회는 일부 농민들이 이러한 곤난을 상적 행위로서 타개하려는 불건전한 기도를 한갖 《곤난을 극복하라!》 《상적 행위를 그만두라!》는 식으로는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을 포착하였다.

그리하여 군당 위원회는 이러한 대중의 초미의 문제를 책임적으로 해결하려고 대중 속에 들어가 연구하고 의논하여 밀려드는 해수를 막고 논에 단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관개 공사 계획을 작성 추진시켰다. 관개 공사 계획을 추진시키는 초기에 적지 않은 농민들이 그를 수행할 힘이 없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군당 위원회는 일부 주민들의 고집이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지도의 정당성을 견지하면서 전시에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써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에 참가한 체험을 회상시키면서 몇번이고 꾸준하게 설복하는 동시에 선진적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지도 일'군들이 팔을 걷고 선두에 나서서 사업을 추진시키기 시작하였다. 지도 일'군들이 대중의 초미의 문제 해결을 도우려고 군중의 앞장에 나섰을 때 상 행위를 하던 농민들도 그를 그만두고 농사에 전력하며 관개 공사에 열성적으로 동원되였다. 그리하여 수천 정보에 달하는 수리 불안전답을 옥토로 전환시켜 농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킬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대중에게 책임적으로 복무하려는 지도 일'군의 지극한 열성과 노력이 대중을 각성시키고 감동시켰으며 대중의 초미의 문제를 책임지고 기본적으로 성과있게 해결한 좋은 경험의 하나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 무의 무탁한 이주민들의 생활 안착을 위하여 공작한 숙천군 내 지도 일'군들의 군중 공작 경험도 또한 그러하다. 이 주민들의 곤난을 자기의 곤난과 같이 간주한 숙천군 내 지도 일'군들은 주민들 속에서 호상 원조하며 협조하는 기풍을 앙양시키면서 그들의 주택 건축을 도우며 거처를 알선하며 가마를 부쳐 주고 대여곡을 운반하여 주는 등 대중의 앞장에 서서 솔선하여 수범하였다. 이러한 모범은 주민들에게 이주민들에 대한 원호 사업을 훌륭한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게 한 단서로 되였었다.

물론 이와 같이 대중에게 책임적으로 복무하려는 지향과 적극적 행동은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감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무성은 그것이 특수적으로는 당원인 지도 일'군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 의무감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지도 일'군들이라는 그러한 직무상 책임감에서도 생길 수 있는 바 이것은 대중 앞에서 책임을 지는 지도 일'군의 귀중한 표징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중 앞에서 책임을 지며 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한다는 것은 곧 당원이 당 앞에서 책임을 지며 당에 복무한다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은 대중 앞에 책임지는 것과 당 앞에서 책임지는 것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며 구별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그릇된 견해는 두가지 편향으로 나타난다. 일부 일'군들은 당과 인민들의 리익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시켜 생각하면서 대중을 《위한다》는 구실 밑에 지방주의적, 기관 본위주의적 편향을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평남도 당 산하 일부 당 단체 일'군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일부 생산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생산 계획을 적게 세우려 하거나 당 정책, 전 국가적 견지에 엄밀히 립각하지 않고 기관 본위주의적으로 작성하려 한 경향 또는 일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이 지난해 농산 수확고를 장부에 일부러 적게 보고하려한 편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군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기관이나 조합의 리익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가의 통일적 계획적 지도에 저애를 주며 내부 예비를 사장하게 하는 등 당과 인민 대중에게 손실을 주는 것이다.

당과 인민의 리익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다른 편향의 하나는 자기 지방 혹은 기관의 구체적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상급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관료주의적으로 그릇되게 내려 먹이며 지어는 인민의 리익를 침범하면서까지도 그것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일부 시, 군 지도 일'군들이 지난 시기 옥수수 재배, 면화 재배 기타에 있어서 선진 기술이라 하여 립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내려 먹인 사실 등은 그러한 례의 하나이다.

이러한 일'군들은 상부에는 아첨하며 하부에 대해서는 관료주의적으로 대하므로 군중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지 못하여 당과 대중과의 리탈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그 어느 것이나 다 당과 대중의 리익에 배치되는 것이며 책임을 지지 않는 경향인 것이다.

우리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에게 복무한다는 것은 인민의 개별적 사람이나 개별적 지방 주민 및 기관, 기업소가 아니라 우선 전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내세우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당의 리익에 일치되며 인민의 개별적 사람, 계층, 지방 및 기관 성원들의 리익에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인민의 리익에 모순되지 않는 이러 저러한 인민의 개별적 성원이나 지방 혹은 기관의 리익을 무시하거나 그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전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내세우며 그에 모순되지 않는 인민의 개별 성원이나 개별적 지방 주민들의 리해를 잘 옹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전 인민의 리익의 일부로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 일'군들은 군중 공작에서 전 인민의 리익을 반영한 당 정책을 철저히 책임지고 관철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것을 구체적 지방 혹은 기관의 실정, 대중의 정서에 부합되게 창조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 결정이 자기 지방, 기관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면 그대로 그를 관철시켜야 하며 실정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상급에 건의하여 시정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도 일'군들에게는 군중 공작에서 절대로 《상부에서 하라니 하시요》, 《그것은 상급 결정이니 난 모르오》하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중을 대할 권리가 없다. 또 전 국가적 견지를 떠나서 협소한 자기 코앞만 보는 식으로 대중을 지도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당과 대중 앞에서 책임을 느끼고 그를 관철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비록 대중으로부터의 그의 개별적인 사소한 문제에 대한 제의, 신소에 대하여서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책임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일부 일'군들 중에는 대중으로부터 신소와 제기를 접수하였을 때 《거 참 좋은 문제요, 곧 해결하도록 하지요》하고 약속한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한 결말을 고대하는 군중들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고 유야 무야해 버리고 마는 일들이 종종 있다. 특히 현지 공작 중에 군중들로부터 구두로 접수한 문제에 대한 취급에서 이러한 실례를 자주 볼 수 있다.

군중들의 신임을 받지 못할 이러한 소행은 상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해결을 받으려고 기대하는 군중들의 건설적인 의욕을 삭감시키며 나아가서는 개별적 일'군들의 위신 뿐만 아니라 지도적 기관들의 권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한 현상이다.

대중과의 밀접한
접촉을 강화하자

우리 당의 모든 결정은 대중 속에서 대중의 적극성에 의하여 실 생활에서 구현되는 만큼 당 결정 실천을 위한 군중 공작에서 대중과의 접촉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당 사업이란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산 사업이 그 내용의 기본을 이룬다. 대중과의 구체적 접촉이 없는 군중 공작이란 생각할 수 없다. 직접 대중 속에 들어가 실정을 연구 료해하고 대중의 의견과 제의들을 분석 종합하며 그를 지도적 기관에 제기하여 당면한 과업들에 대한 지도적 방침을 채택하도록 방조하여 다시 그것을 대중에게 해석 침투시키며 대중을 조직 동원하며 당 결정 실행을 검열하는 것—이것이 우리의 모든 당원들, 지도 일'군들의 일상적 중심 과업이다.

지도 일'군들은 현지에서 대중과의 접촉을 통하여 당 정책을 해석 침투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에게 실효있는 방조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사무실적 사업 작풍을 반대하여 지도와 대중을 련결시키며 대중 속에서 산 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도내 적지 않은 시, 군들에서는 사무실적 사업 작풍이 적지 않게 존재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현지에서 직접 대중과 접촉을 통한, 정확하고 생동한 사업 대신에 실효없는 잡다한 문서 공작으로써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하부 일'군들에게서까지 대중 속에 침투할 시간을 박탈하였으며 문서에 포로되게 하였다.

대중과의 접촉을 등한히 하며 문서질로 소일하던 이러한 경향은 당 중앙 위원회의 집중적 지도 검열을 전후하여 현저히 시정되였으며 일부 시, 군 당 단체들에서는 군중과 접촉하는 공작에서 긍정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에 있어서 양덕, 맹산군 당 단체들을 그러한 례로 들 수 있다.

이 군당 위원회들에서는 자기 관하 주민들의 정서를 연구하며 당면한 파종 사업 수행에로 대중을 동원하기 위하여 지도 일'군들이 군중들의 가정에 침투하여 공작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 많은 경우에 파종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지도 일'군들이 순회하면서 재촉하고 지시하고 떠들석하게 구는 독촉군에 지나지 못하던 지도상의 결함을 극복하고 자기의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기 위하여서였다.

지도 일'군들은 파종 사업에서의 선후차와 경중을 농민들과 친히 의논하여 명백히 갈라주며 불합리한 로력 조직을 개편하여 주고 파종이 잘 촉진되지 못하는 약한 고리를 포착하여 시정을 권고하며 영농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주는 등 이러한 실무적 지도는 지나가던 길'가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전야에서 농민들을 친근히 상대하고 해결하여 주었다.

현지 공작 일'군들은 주민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물을 길어 주고 장작을 빠개 주고 마당을 쓸어 주는 일도 같이하였다. 주민들의 사양을 극복하면서 군중과 친밀하려는 간절한 념원에서 출발한 이러한 군중 공작은 군중의 감동을 일으켰으며 그들의 친근한 벗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군중과 접촉하며 고락을 같이 하는 행정에서 이전에는 들을 수 없던 새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개별적 사람들에게서 불충분하게 료해하였던 애매한 점들도 정확히 가릴 수 있었으며 호상 신임과 존경도 더욱 두텁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군중 공작이 평범하고 사소한듯 하나 그것이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상부 지도에 대한 군중들의 신임을 보다 두텁게 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지도 일'군들의 군중에 대한 복무성을 실지로 감득하게 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그것은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대중에게서 배우며 당 정책을 구체적 실정에 잘 부합되게 조직 지도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일부 시, 군 책임 일'군들은 현지 공작에서 군중의 개별적 사람들을 찾아 안부와 사업 정형을 물으며 사적 담화나 공적 담화에서도 군중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대중과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등으로써 하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며 그리하여 대중과의 련계를 두텁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이 현지 공작에서 류숙하는 숙사에는 군중들이 빈번히 찾아 온다. 그들은 자기들의 애로와 요구를 지도 일'군에게, 자기의 친근한 벗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로인들과 로파들 혹은 지방 유지들이 반영할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읍에 왔

던 차에 안부를 알겸 군당 책임 일'군들을 찾아 오는 현상이 적지 않는 데 이러한 현상은 우선 우리의 지도적 기관들의 권위로써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지도 일'군들이 대중에게 옳게 복무하였으며 대중이 지도 일'군들을 자기의 친근한 상담자로, 방조자로 느끼고 있다는 표시로도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중과 간격이 없이 친근해 지며 그들이 모든 것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일상적으로 대중 속에 깊이 침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주의 깊게 연구하며 그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도와 주며 특히 모든 행동과 언사에서 진정으로 대중의 인격을 존중히 하며 인민 대중의 재능과 무진장한 힘을 믿을 줄 아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활은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많은 경우에 대중과는 사무적으로 접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도 일'군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투르다 하기 보다 군중 관점이 정확치 못하며 당의 군중 로선에 대한 리해가 부정확하다. 이러한 데로부터 왕왕 일부 지도 일'군들은 대중과의 관계에서 유감스럽게도 이러 저러한 좋지 못한 현상을 산생시켰다.

자기의 초미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수십리 길을 걸어 지도적 기관들을 찾아온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일부 지도 일'군들은 곧 해결할 문제나 혹은 해결을 주선할 문제도 자기의 편리와 안일을 위하여 수시간 밖에서 대기하게 하거나 때로는 후일로 미루고 돌려 보내는 일도 있었다. 특히 행정 기관들에서 일부 일'군들의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작풍으로 인하여 개별적 대중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긴급한 문제인 데 서류 양식에서의 사소한 결함 때문에 퇴'자를 맞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먼길을 돌아가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급히 시정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자기의 편리보다 대중의 편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들의 편리를 백방으로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지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부분적 일'군들에게는 상대한 사람과의 담화에서도 많은 경우에 상대자로 하여금 심문을 당하는 듯한 또한 인격상 모멸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겸손치 못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군들은 현지에서 군중 실정을 료해함에 있어서도 비록 많은 것을 공작 노트에 기록하여 갖고 돌아 오나 진실을 포착하지 못하며 왕왕 추상적인 것이거나 지엽적인 현상만을 포착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일부 지도 일'군들은 군중의 정서나 형편을 정확하게 상부에 반영시킬 수 없으며 적지 않은 경우에 사업을 실정과 맞지 않게 주관주의적으로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패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군중과 친근하게 접촉하지 않으며 개별적 사람들의 준비된 정도를 고려하지 않으며 군중이 제기한 요구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덮어놓고 《옳지 못하오》하거나 개별적 사람들의 인식상 혹은 능력상의 사소한 착오를 《엄중하오》 하는 식으로 과격한 평가를 주어 군중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현상도 없지 않았다. 또 군중들을, 심지어 로인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여보》 하는 식으로 부르거나 반말을 써서 대중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등 현상도 아직 부분적으로 남아 왔다.

이러한 결함은 대중과의 접촉에서 간격을 조성하며 그것이 나아가서는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는 엄중한 위험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대중이 당 정책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과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보다 더 많은, 무거운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진중하고 진실한 복무자의 립장을 견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 사업, 군중 공작에서는 리성과 감정을 가진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점에 류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군중 공작에서 대중의 리성을 항상 각성시키며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고 고무하여야 하는바 리성의 힘이 비교적 약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기분, 감정에 대하

여 더욱 깊은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이에 있어서 그들과의 일상적 접촉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격을 존중히 하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남을 깔 보며 대중의 우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기 좋아하는 관료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대중에게서 배우며 그들에게 복무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당의 군중 로선에 확고히 의거한 사업 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대중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군중 공작에 있어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계급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대중 속에서 기본 군중을 판별하며 그 중에서도 열성적 핵심을 판별하고 장악하는 문제이다. 대중에게 복무한다 하여 대중의 뒤를 따르거나 군중의 의견이라 하여 그가 어떠한 계층에 속하고 어떠한 동기에서 어떠한 목적에서 제기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판별함이 없이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도 일'군들은 군중 공작에서 우리의 기본 군중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그들의 리익을 우선 무엇보다 철저히 옹호해야 하며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로농 동맹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전체 군중을 튼튼히 단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기본 군중 속에서도 열성적 핵심을 육성 장악하여 그들의 적극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견과 선입 주관 없이 군중에게 허심하게 대하자

우리의 지도 일'군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옳지 못한 편견, 선입 주관으로써 군중을 대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옳지 않다.

물론 우리 일'군들이 접촉하는 대상이 어떤 계층이며 그들의 특성, 동태, 감정 등을 료해하는 것은 필요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입 주관으로써 출신이 무엇이니, 성분이 어떠하니 가정 환경이 불리하다는 등등의 피상적 현상만으로 자기의 주견을 단정해 놓고 객관적 사실을 자기의 주관에 맞춰 해석하여 처리하는 경향은 대중 사업에서 극히 유해한 것이다.

특히 아직 우리 군중의 계급적 구성이 복잡하며 전쟁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의 가정 환경이 복잡하여진 조건하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사실 일부 지도 일'군들 중에는 지난 시기 우당원이라 하여 동지적인 배려를 소홀히 하며 종교인이라 하여 접촉하기를 꺼렸으며 가정 환경이 나쁘다 하여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의혹하였으며 개인 상공 기업가라 하여 경원 멸시한 일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이러 저러한 주민 계층들에 대하여 일부 지도 일'군들이 편견과 선입 주관을 가지고 그들 속에서 공작한 경우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평남도 당 단체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지난 시기 일부 지도 일'군들은, 중호, 강남군 내 일부 리 주민들은 자본주의 사상 잔재가 농후하여 상행위에 몰두하며 정권 기관 일'군들의 지도에 존엄성 없이 대한다고 나무렸다. 그리하여 이러한 지도 일'군들은 주민들에게 본때를 보여 준다는 식으로 한두번만 대하지 않았다. 물론 주민들의 각성 정도가 높지 못한 데도 결함은 있었으나 이것은 지도 일'군들 측의 결함이 더 컸다. 이곳 주민들은 알곡 생산에 대해서 보다 소채 재배에 더 주력하였다. 그것은 도시 주변에 거주하는 이곳 농민들에게 소채 재배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였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그들을 단순하게 반농, 반상인으로 규정하고 소시민 근성 혹은 자본주의 사상이 농후하다고 비판하였다.

군중에 대한 이러한 편견, 선입 주관은 지난번 관개 공사를 이 리들에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였을 그때에도 일부 지도 일'군들 속에 여전히 존재하였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군들은 관개 공사에 농민들이 잘 참가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단정하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으로 군중 정서를 연구하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설복하는 행정에서 결코 주민들이 당과 정부 정책에 대하여 존엄성 없이 대하거나 혹은 본래부터 상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관개 공사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 바 그들의 말대로 관개 공사를 하지 않고는 알곡 생산을 할 수 없으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채 재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주민들은 관개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모두가 찬성하여 나섰으며 그리하여 단기간 내에 관개 공사를 군중의 힘에 의하여 훌륭히 완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중대한 당 정책을 집행하는 지도 일'군들이 군중을 료해하지 않고 편견과 선입 주관으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동시에 이 경험은 우리에게 편견과 선입 주관이 없이 허심하게 군중과 대하며 군중들로 하여금 지도 일'군들의 친절성과 복무성을 감촉케 한다면 대중은 당과 정부의 정책 수행에 적극적으로 동원된다는 것이다.

군중을 료해하지도 않고 한갖 사업상 의욕 하나만 가지고, 아직 사상적으로 미약한 일부 인민들에 대하여 이러 저러한 부당한 감투를 씌우거나 군중을 《내 모는 식》의 사업 방법은 극히 유해한 것이다.

지도 일'군들은 군중 공작에서 대중을 믿어야 하며 설령 일부 대중이 자기의 락후성으로 인하여 이러 저러한 실수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교양하여 시정하도록 지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지도 일'군으로서의 의무이다. 우리가 각이한 수준, 계층의 대중을 지도하며 그를 믿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을 잘 료해해야 하며 그들과의 공작에서 작풍상 사소한 점에 이르기까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 *

당의 군중 로선에 확고히 의거하여 대중 속에서 당 정책을 관철시킬 줄 아는 군중 공작은 지도 일'군들의 실무적 능력상 문제만으로 되지 않는다. 군중 공작 방법 개선 문제를 실무적 기술적 문제로만 리해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우선 당원의 당성, 당과 대중에 대한 그의 사상적 관점 문제인 것이다.

당과 인민에게 충실하려는 열렬한 념원을 가진 일'군들은 비록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어리드라도 자기의 꾸준한 노력으로써 당 정책을 튼튼히 장악하고 군중 속에서 옳게 공작하여 긍정적 성과를 내며, 반대로 능력과 경험으로써 《로 대가연》하는 일'군이라 하더라도 그가 당과 혁명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대한다면 그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생활은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 일'군들의 군중 공작 방법을 개선함에 있어서 우선 일'군들의 당성 단련, 옳은 혁명 관점, 군중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당 정책과 결정들을 심각히 연구하지 않고 군중 공작에서 무책임한 《지도》를 하며 당 정책에서 리탈하거나 그를 외곡하는 경향과 결정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쟁을 빈 말공부로서가 아니라 실지 공작 행정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리함으로써 실천을 통하여 부단히 사상적 및 실무적 단련과 검열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하나로서 평남도 당 단체는 지난 시기에 왕왕 형식적으로 진행되였거나 또는 진행되지 않던 지도 일'군들의 현지 공작 준비 정형과 공작 결과를 집체적으로 심중히 토의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현지 공작 결과를 정확히 총화하는 것은 지도 일'군들의 교양과 공작 방법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바 그것은 이러한 총화 사업이 공작 결과에 대한 기술적, 수'자적 총화가 아니라 어떠한 공작 행정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를 달성했는가, 새로운 경험은 무엇인가, 공작 일'군들이 당의 군중 로선을 옳게 준수하였는가, 만일 일부 잘 못되였다면 어떠한 그릇된 관점에서 출발되였는가를 검토 비판하여 경험을 일반화하는 정신에서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만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지 공작 결과를 바쁘다는 구실로써 총화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총화하는 경향과 투쟁하면서 지도 일'군들의 군중 관점 확립과 공작 방법 개선을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업화와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

박 삼 윤

우리 나라의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이는 근로자들이 발휘하는 최대한의 창조적 적극성의 기초 우에서 생산을 개선 발전시키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중요 방법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이와 같이 생산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증산 경쟁 운동의 기초는 대중의 적극성과 창조성인 바 이 운동을 통하여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은 가장 훌륭하게 발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의 기본 원칙은 호상 배우고 호상 방조함으로써 선진 로동자들의 생산 수준을 전체 사회적 생산 수준으로 되게 하여 전반적 앙양을 달성하는 것이다.

한 편의 패배와 멸망이 다른 한 편의 승리와 지배를 가져 오는 자본주의적 경쟁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증산 경쟁 운동은 동지적 비판과 자기 비판의 방법에 의하여 앞선 자가 뒤떨어진 자를 방조하며 뒤떨어진 자가 앞선 자를 배우는 방법으로 청소한 일'군들과 부문들이 선진적 일'군들과 부문의 수준에까지 제고됨으로써 전반적 향상을 달성하는 전진 운동이다.

이것은 국가 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몇몇 선진적 일'군들의 힘만으로써는 부족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공동적으로 선진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정에 기인되는 것이다.

이렇듯 이 운동은 대중의 적극성과 창조성에 기초하는 운동이며 낡은 것에 대한 새것, 보수적인 것에 대한 진보적인 것, 소극적인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것의 투쟁이며, 낡은 자본주의적 잠재 의식에 대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의식의 투쟁이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기업 내부에서의 주요 모순인 선진적인 것과 락후한 것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생산을 부단히 발전시키게 하는 기본 요인으로 된다.

이상과 같은 증산 경쟁 운동의 기초와 그의 기본 원칙은 이 운동을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자들의 대중적 적극성과 창조성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호상 배우고 호상 방조하는 정신을 적극 발양시키고 그들의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적극 지지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렇게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에 기초하여 호상 방조함으로써 생산의 전반적 앙양을 달성하는 강력한 수단인 증산 경쟁 운동이 우리 나라에서 발생 발전하고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기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경제에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작용하고 있으며 점차로 그 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바 이것은 이 운동이 발생 발전하고 있는 객관적 조건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본질적 요구와 특징은 높은 기술적 로

대 우에서의 생산의 부단한 장성 및 개선에 의한 전체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 충족의 보장이다.

이 법칙이 작용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의 목적이 착취자들의 리윤 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 충족을 보장하는 데 있으니 만큼 우리 나라에서 생산이 개선되고 확대 발전되면 될수록 그는 직접 전체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 수준을 더욱 개선 향상시킨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생산의 주인으로서 생산을 더욱 개선 발전시키는 데 혈연적인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로동은 근로자들 자신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 자기 조국의 번영 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창조하는 영광스러운 자각적 활동으로 되고 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진실로 새로운 고상한 사회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바 로동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생산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실로 심각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증산 경쟁 운동은 이러한 조건우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운동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의 로동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생산의 발전을 자기의 자유스럽고 행복한 생활의 전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개인적 리익이 사회적 리익과 조화적으로 결합되고 국가의 리익은 그들의 공동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리익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이미 생산에서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으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 생산을 더욱 개선하고 부단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는 증산 경쟁 운동이 발생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운동은 자동적, 자연 발생적으로는 발생될 수도 없으며 발전할 수도 없다. 모든 사업이 그러한 바와 같이 증산 경쟁 운동도 반드시 정확한 조직 사업과 지도 사업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에서 증산 경쟁 운동은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와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 법칙의 요구에 상응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고 생산을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인민 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는 정확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는 우리 당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매 계단에서 근로자들에게 나라의 경제 형편과 우리의 전진 방향 그리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옳게 조직 동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은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제거하기 위한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왔으며 대중과 리탈하여 새것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자들을 폭로하고 근로자들의 온갖 창의 창발성을 적극 지지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정확한 지도와 적극적 지지는 이 운동을 부단히 확대 강화케 하였으며 이 운동의 성과를 백방으로 제고케 하였다.

※ ※

증산 경쟁 운동은 국가의 물질 생산적 조건이 변화 발전함에 따라 즉 국가의 경제 형편, 특히 생산 시설의 기술적 장비 정도, 로동 계급의 기술 및 과학, 문화의 소유 정도, 그들의 물질적 복리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더욱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총로선에 확고히 립각하여 추가적 투자를 하지 않거나 극히 적게 하면서 더 많은 생산을 냄으로써 금년 계획을 초과 완수할 것을 호소한 12월 전원 회의의 결정을 실천하고 있는 현 시기의 경제 형편과 경제 건설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우리 나라 증산 경쟁 운동은 전체 기업소 성원들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양시켜 애로와 난관을 타개 극복하고 기업소 전체 성원들이 반드시 그날 계획을 그날에 완수하여 생산을 높은 기술, 문화적 단계로 추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이다.

현 시기 우리 나라 증산 경쟁 운동의 주요 과업은 당이 호소한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관철하기 위하여 생산 예비를 최대한으로 적발 동원 리용하는 것이다.

오늘 전체 근로자들은 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1957년도 계획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12월 전원 회의가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의에 호소하였던 증산 과제를 훨씬 능가하는 증산 의무를 결의 실천하고 있다.

2월 20일까지 종합된 수'자만 보더라도 야금 공업 로동자들은 선철 2만톤, 립철 1만톤, 강철 3만톤, 강재 2만 8천 6백톤을 더 생산할 것을 결의하여 나섰으며 화학 건재 공업 로동자들은 비료 3만 3천 여톤, 카바이드 1만 4천톤, 쎄멘트 10 만 여톤을, 석탄 부문 로동자들은 석탄 35만 9천 여톤을, 전기 부문 로동자들은 전기 7억 3천 여 킬로 왓트를, 경공업 부문 로동자들은 면사 643톤, 면직물 6 571킬로메터를 계획 이외에 각각 더 생산할 것을 맹세하여 나섰다. 철도 운수 부문 로동자들도 100 여만톤의 화물을 더 수송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온갖 창의 창발을 발휘하여 절약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바 그들은 계획보다 강재 약 2 500톤, 석탄 16만 7천 여톤, 전기 4 400킬로 왓트, 면사 125톤, 휘발유 821톤을 절약하고 연 340만 6천 여 명의 로력을 절약할 것을 결의하고 투쟁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증산과 절약 의무를 어김 없이 실천하기 위하여 내부 예비를 동원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낡은 기술 수준을 타파하기 위한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고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김책 제철소 로동자들은 창발적 투쟁으로써 최근 고로의 내용적 리용 계수를 0.79 립방메터까지 도달케 하고 로 당 능력을 1일 950 톤으로부터 1 000톤에로 제고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강선 제강소 로동자들은 20톤 전기로의 1회당 출강 시간을 4시간 45분으로까지 단축시키는 기록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안 기계 공장 로동자들도 벌써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140 여 건의 합리화 의견을 제기 실천하여 절삭 능률을 39% 더 제고시켰는 바 이리하여 그들은 작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11대가 부족되는 공작 기계를 가지고도 금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증산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 뿐만 아니라 아오지 탄광 로동자들은 굴진을 1개월 60 메터로부터 110메터로 제고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신창 탄광 로동자들도 124건의 창의적 의견을 제기하고 계획보다 6만톤의 석탄을 더 증산할 것을 목표로 경쟁 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애국적 운동은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공장, 기업소들을 휩쓸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 모멘트에 있어서 증산 경쟁 운동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되고 있는 사실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 나라 증산 경쟁 운동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당과 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성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이고 자기 앞에 부과된 금년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높은 애국심과 고상한 헌신성,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적 열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해방후 10 여년간 특히는 지난 3년간의 경제 건설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훌륭한 경제적 토대를 이루어 놓았고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일'군들의 기업 관리에서의 지도 기능이 훨씬 제고되였기 때문

이다.

이리하여 오늘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업소들에서는 국가 계획을 량적으로 뿐만 아니라 품종별로 초과 완수하며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종을 확대하며 원자재와 연료, 전력의 절약, 새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에 의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원가 저하, 로동 규률 강화, 높은 생산 문화의 수립 등 해당 기업소의 특수성에 따르는 각종 의무 조항을 설정하고 대중적인 증산 경쟁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기의 계획을 일별, 월별로 초과 실행하면서 그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쟁 운동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결함들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의 전진 운동을 저애하고 생산의 보다 높은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템포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

결함은 이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옳게 결합될 것이 요구되는 두 력량, 즉 이 운동을 조직 지도하는 지도 일’군의 사업에도, 이 운동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참가자인 근로자들의 사업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 특히 주요하고 기본적인 결함은 이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아직도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 지도 일’군들의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이다.

특히 당과 대중의 련계를 구현하는 인전대로서의 직맹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성을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자기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가 로동 계급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을 아직도 미약하게 보장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작년 8월 전원 회의에서 그 정체가 폭로된 반당 종파 분자 서 휘는 오래’동안 직총의 지도적 지위에 있으면서 인민 주권하에서의 직맹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당과 인민의 리익에 배치되는 각종 책동을 감행하였다.

당의 정확한 정책의 집행을 태공하면서 서 휘는, 로동 계급의 정치적 각오 정도를 부단히 제고하며 근로자들의 리익과 국가의 리익의 일치성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당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시키고 그들이 생산 활동에서 최대한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교양하며 조직 추동할 대신에 직맹 사업을 행정 사업과 무원칙하게 대립시키려 하였으며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높은 자부심과 책임성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있을 수 있는 곤난과 난관과의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증산 경쟁 운동을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서 적지 않은 해독적 작용을 놀았다.

물론 그는 우리 당에 의하여 적시에 폭로 제거되였으나 그러나 그의 여독은 아직도 뿌리채 뽑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황해북도 19건설 트레스트를 비롯한 일부 건설 직장들과 생산 직장 내 공무 동력 부문들에서는 《조건》에 빙자하면서 광범한 경쟁 운동이 옳게 조직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진 제강소 로동자들이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 과정에서 물론 수 많은 좋은 의견들을 제기하였으나 일부 현 실정과 부합되지않는 요구를 내 놓으면서 난관을 극복 하기 위한 투쟁을 미약하게 전개한 것 등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맹 지도 일’군들은 인민 주권하에서의 직맹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옳은 견해를 확립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자각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주며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 달성을 위한 우리의 길에는 응당 곤난과 애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 해결하는 투쟁은 곧 우리 위업을 달성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서 휘가 남겨 놓은 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여 경쟁 운동의 보다 광범하고 심각한 전개를 보장하도록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맹 단체 사업에서의 중요한 결함은

생산을 책임적으로 보장할 데 대한 일부 일’군들의 사상적 동원이 부족하며 그들이 경쟁 운동을 실지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발로시키고 있는 형식주의적 결함인 바 이것은 특히 공개 선전 사업을 미약하게 조직 진행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앞선 자와 뒤떨어진 자들을 공개적으로 대비하며 로동자들의 경쟁 의욕을 자극하는 체계적인 검열 사업과 총화 평가 사업은 증산 경쟁 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작용을 노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직장들에서는 이를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 대상의 호상 검열과 호상 총화 평가 사업 강화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룡성 기계 제작소, 함남 17 건설 트레스트, 서호 수산 사업소 직맹 단체들은 특히 이 사업을 미약하게 조직하고 있는 바 그들은 총화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평가 사업을 로동자들의 대중적 의견에 의거하지 않고 몇몇 개별적 일’군들의 추천에 의거하여 진행함으로써 로동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경쟁 운동에 참가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으며 선진 로동자들의 경험을 고착시켜 이를 대중이 소유하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증산 경쟁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일부 직맹 일’군들의 이러한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주요한 결함은 일부 경제 지도 일’군들과 직맹 단체 일’군들이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시킬 데 대한 고상한 당성으로 자체를 무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결과 이 운동을 당 정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개년 계획을 총화한 우리의 경험은 지난 시기 석탄 생산을 확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본 굴진을 선행시킬 것을 일관하여 요구한 당의 결정을 불충실하게 집행한 석탄 공업성,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에서 기계화와 공업화의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라는 당의 지시를 형식적으로 집행한 건설성 기타 일부 당 결정 지시 집행에서 불성실하였던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로력 투쟁을 당 정책과 유리시켜 그릇되게 인도함으로써 말겨진 경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당과 인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당과 광범한 근로자 대중에 의하여 응당한 비판을 받은 당 정책의 이러한 외곡 현상은 오늘도 아직 우리의 일부 지도 일’군들 속에 잔존하고 있어 증산 경쟁 운동의 보다 높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은 당의 결정 지시들을 접수함에 있어 형식적 태도를 취하며 당 정책을 근로자들 속에 침투시키기 위하여서와 근로자들이 경쟁 운동을 통하여 그를 관철시키도록 지도할 데 대하여 높은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은 당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기의 구체적 과업을 연구하지 않는 데로부터 경쟁 운동을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오늘 제기되고 있는 중요 과업들, 례하면 금속 부문에서의 용해 시간의 단축, 기계 공업 부문에서의 고속도 가공법의 도입과 품종별 계획의 실행, 화학 공업 부문에서의 설비 리용률 제고와 배합 규정의 엄수, 경공업 부문에서의 제품의 질 향상과 품종 확대, 교통 운수 부문에서의 석탄 소비 절약과 무사고 주행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경쟁 운동의 중심 목표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화학 공업 부문 일부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현 시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설비 리용률 제고, 배합 규정의 엄수 등을 경쟁 운동의 중심 과업으로 하지 않고 다만 일반적으로 《생산의 100% 보장》등으로 이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직맹 단체들과 경제 지도 일’군들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높은 배려를 돌리고 있는 우리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생산을 위하여 《절약》한다고 하면서 로동 보호 기타 시설에 대한 경비를 무원칙하게 류용하고 로동자들의 로동 조건과 생

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에 대한 로동자들의 열성을 저하시키고 그들이 경쟁에서 더욱 높은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결함은 또한 일부 직맹 및 경제일'군들이 아직도 군중 관점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지 않고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함으로써 말로써는 이 운동을 지지하며 지도한다고 하나 사실에 있어서 이 운동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군들은 운동의 구체적 문제들을 깊이 분석 연구하지 않으며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낳는 창조적 의견과 선진적 경험들을 적시에 적용 및 일반화하지 않으며 운동의 계속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온갖 필요한 경제 기술적 조치와 조직적 대책들을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증산 경쟁 운동에 궐기한 대중의 열의와 창발적 진출들을 제때에 조직 추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로 막는 현상까지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개년 계획을 56.1%밖에 수행하지 못한 마동 쎄멘트 공장의 지도 일'군들은 응당 지난 사업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고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들어서서도 의연히 근로자들의 증산 경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으며 원료를 비롯한 작업 조건을 보장하여 달라는 로동자들의 제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결과 이 공장에서는 지난 1월에 만 하여도 내화 련와의 품절로 인하여 227 시간의 소성로 휴지 시간을 내고 월 계획을 76.4% 밖에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2월에 들어서서도 계속 동일한 원인으로 9일간에 걸쳐 소성로의 작업을 휴지시키는 엄중한 사태를 지속하고 있다.

오늘의 경험은 이렇게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과소 평가하고 근로자들의 요구를 옳게 해결하여 주지 않으며 증산 경쟁 운동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보장하지 않고 관료주의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지도 일'군들은 그들이 바로 하부의 구체적 실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동자들이 더 많은 증산을 결의하여 나섰을 때 쓸데 없이 자재 발란스에 대한 걱정을 먼저 늘어 놓으면서 계획 실행이 곤난하다고 하며 혹은 예비를 조성하고 일을 헐하게 하려는 등 보수적 경향에 사로잡혀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과 계획 실행에 대한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직맹 및 경제 지도 일'군들의 보수적 사상 경향을 타파하고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극복하는 것은 오늘 경쟁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주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경쟁 운동의 직접 담당자인 근로자들 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부족점들은 어떤 것인가? 지도 사업의 결함 이외에 또 무엇이 우리의 경쟁 운동의 보다 높은 발전을 저애하고 있는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기업 내부의 주요 모순은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것, 선진적인 것과 락후한 것과의 모순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은 항상 변화 발전하는 상태에 있으며 새 기술은 부단히 낡은 기술과 대체되고 있으니 기업 내부의 이 모순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선진적 기술과 작업 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기준량을 창조하고 있는 우수한 로동자들이 적지 않게 있는 반면에 수많은 청소한 로동자들이 있다. 선진 로동자들은 자기의 책임량을 훨씬 초과 완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기준량을 창조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뒤떨어진 로동자들은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브리가다와 직장 앞에 부과된 국가 과제를 미달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 증산 경쟁 운동의 기본 원칙인 호상 배우고 호상 방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극복 해결할 수 있다. 선진 로동자들이 뒤떨어진 로동자들에게 주는 동지적 방조와 뒤떨어진 로동자들이 선진 로동자들의 경험을 습득 실천함으로써 그를 따라잡는 이 과정을 통하여 선진적인 것과 락후한 것과의 모순은 해결되고 우리 사업은 부단히 전진하며 생산은 제고된다.

물론 오늘 우리 나라 로동자들 속에서 호상 배우고 호상 방조하는 기풍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으며 선진 경험의 보급 형식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훌륭한 창의로써 휘발유 절약에서 모범으로 되고 있는 로력 영웅 리 막동 동무는 자기의 경험을 보급시키고 동지들을 방조하는 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선진 경험의 보급 형식도 더욱 발전하고 있다. 경험 교환회, 견학 등을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면서 오늘에 있어서는 선진 로동자들로 조직된 《선진 경험 보급 브리가다》를 로동자 대중 속에 파견하여 직접 배워주어 전반적 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조를 주는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 직총은 8명의 선진 로동자들로 구성된 《선진 경험 보급 브리가다》를 신의주 고무 공장과 제지 공장에 파견하여 이 공장 로동자들의 석탄 절약을 위한 사업을 지도 방조케 하였는 바 이들은 올해에 고무 공장 로동자들이 제기한 절약 목표를 1 800톤으로부터 3 297톤으로 제고시켰고 제지 공장에서도 1 389톤을 더 절약할 수 있는 예비를 탐구하도록 적극 방조하였다.

이 밖에 구성 방직 공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로동자들과 현장 기술 일'군들이 훌륭히 배합되여 로동자들의 각종 창발적 제의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작업 방법을 창조 도입하여 이를 적극 보급시키고 있다.

그러나 로동자들의 호상 배우고 호상 방조하는 사업에는 아직도 부족점들이 존재한다.

주요한 결함은 호상 배우고 방조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인내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로동자들 속에는 일시적으로 뒤떨어진 로동자들로부터는 마치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보고 비동지적인 태도를 취하는 현상이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일부 로동자들의 머리 속에 아직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의 반영인 것이다. 선진 로동자와 락후한 로동자는 항상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생활은 현재 일시적으로 뒤떨어진 자도 앞으로 능히 선진 로동자들의 대렬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지도 방조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일시 뒤떨어진 로동자들을 방조함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진실로 동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내성을 발휘하여 그들이 락후한 원인을 분석 연구하고 (정치, 사상적 면 또는 생산, 기술적 면 등으로)해당한 구체적 방조를 주는 문제이다.

또한 아무리 선진 로동자라 할지라도 그가 모든 면에서 다 선진적일 수는 없으며 그의 지혜와 경험도 완전 무결할 수는 없다. 무궁무진한 지혜와 재능은 바로 광범한 대중 속에 있다. 경험은 선진 로동자가 대중을 방조하면서 동시에 대중에게서 배워 자기를 더욱 완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라야 만 그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주요한 것은 선진 로동자와 광범한 로동자 대중의 옳바른 결합, 동지적인 비판과 자기 비판을 통하여 이들이 호상 배우고 호상 방조하는 것을 진실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옳게 해결될 때 비로소 생산에서 약한 고리는 극복되고 전반적 앙양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가 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것들이 오늘 우리 나라 증산 경쟁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주요한 부정적 현상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시정함이 없이는 광범한 근로자들의 증산 경쟁 운동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운동에 존재하고 있는 제 결함을 급속히 퇴치함으로써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력사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증산 경쟁 운동이 노는 추동적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현 시기 우리 나라 증산 경쟁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그의 추동적 역할을 백방으

로 높이기 위한 과업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맹 단체들과 경제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과 밀접히 결부시켜 이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도를 개선함으로써 이 운동이 더욱 광범히 전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다.

오늘 혁명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열성과 적극성은 비상히 높다. 이것은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성과적으로 축성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밑천이다.

지금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무엇보다도 큰 결함은 이렇게 앙양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에 지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면모를 혁신하고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도 일'군들은 반드시 보수적 사상 경향과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사업 작풍을 극복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극복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도 일'군들은 옳은 군중 관점을 확립하고 실지 생산과 대중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대중을 발동시키고 그들의 창발적 적극성에 적극 의거하면서 생산의 발전을 저애하고 있는 일체 결함을 대담하게 적발 폭로하고 특히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적극 발양시키고 생산 협의회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로동자들을 기업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인입시킴으로써 생산의 약한 고리들을 돌파하고 온갖 잠재력을 모두 동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고 대중적 비판이 충분히 발양될 때 보수적 경향과 관료주의는 능히 극복되고 생산 예비는 최대한으로 동원될 것이며 증산 경쟁 운동은 더욱 생기 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 기초 우에서 지도 일'군들은 특히 선진적 기술과 작업 방법을 생산 및 건설 사업에 도입 일반화하는 데 필요한 온갖 조건을 보장하고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위한 우리의 위대한 계획을 현실로 전변시키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높은 열성 하나 만으로써는 부족하다. 로동자들이 고도의 기술 과학 수준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근로자들의 열성이 제고된 현 조건하에서 선진적 기술과 작업 방법을 적극 보급시켜 그들을 모두 선진적 기술 수준에로 끌어 올리는 것은 이 과업 해결의 주요 고리이다. 선진적 기술과 작업 방법이 전체 근로자들의 공동 재산으로 될 때 비로소 전체 근로자들은 자기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도 일'군들은 로동자들 속에서 증산 경쟁 운동의 기본 원칙——호상 방조하고 호상 배우는——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동시에 기술 일'군들을 로동자들과 밀접히 배합시키며 선진적 기술과 경험을 보급시키기 위한 경험 교환, 견학, 전람회, 선진 경험 보급 브리가다 사업들을 더욱 다양하게, 더욱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모든 합리화 제의들을 신속히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일련의 기술 조직적 대책을 실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경공업성 지도 일'군들은 이 사업에서 일련의 긍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 그들은 근로자들의 모든 유익한 창의 창발적 제의들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를 실현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창의를 성'적으로 종합하기 위한 부서를 경공업성 내에 설치하였으며 성 참의회는 이 사업을 위한 일체 요구들을 적극 해결하여 주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사업은 경공업성 산하 기업소들이 모두 금년 1월 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훌륭한 결과를 낳게 한 주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다음으로 현 시기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 운동이 기초하고 있는 대중의 적극성과 창조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직 지도 사업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이미 지적한 경쟁의 조직 방법, 경쟁 목표

및 의무 조항 설정 그리고 총화, 평가 사업 등 모든 부문에 아직도 존재하는 형식주의적이며 무책임한 사업 방식을 철저하 시정하고 이 사업들을 무엇보다도 현 시기 증산 경쟁 운동의 주되는 과업인 생산 예비의 합리적 동원,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원자재 및 연료, 전력의 절약, 원가 저하, 생산품의 질 향상, 불합격품과 오작품의 근절 등 구체적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한편 로동자들의 경쟁 의욕을 더욱 제고시키고 그들이 최대한으로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며 체계적인 검열 사업과 정확한 총화, 평가 사업을 조직하여 우수한 일'군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표창 사업을 광범히 실시하며 또한 로동 보호, 안전 시설, 로동자들의 주택 문화 시설들을 훌륭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려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로동자들이 경쟁 운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면서 분초를 다투어 련속적으로 생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작업 조직과 로력 조직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주는 문제이다.

평양 제사 공장 기타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월초나 분기초에는 휴식하며 월말 분기말에 가서 《돌격》함으로써 기계 설비를 혹사하고 로력과 자재를 랑비할 뿐만 아니라 로동 시간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게 하고 로동자들을 피로케 하여 그들의 경쟁 의욕과 증산 투지를 저하시키며 결국에 가서는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 일'군들은 대중의 의견을 적극 참작하여 로력 조직과 작업 조직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증산 경쟁 운동의 성과를 더욱 높이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현 시기 증산 경쟁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상과 같은 요구들이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소 내 당 단체들은 직맹 단체의 역할을 더욱 제고시키고 비상히 앙양된 로동자 대중의 자각적 열성에 의거하면서 그들의 창발적 제의들을 생산에 구현시키고 당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당 결정, 지시 집행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경제 지도 일'군들을 방조하여 더욱 구체적인 지도로써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며 지도 일'군들의 보수적인 사상 경향을 퇴치하고 그들이 군중 관점을 확립하고 경제 건설에서 당성을 발휘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한편 로동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과 대중 정치 조직 사업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일체 낡은 것들을 견결히 반대하고 새것을 지향하면서 그들이 항상 긴장된 태세로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 적극 동원되도록 자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을 날과 더불어 더욱 더 확대 발전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시시 각각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위한 과업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일체 장애들을 철저히 적발 폭로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 당의 지도 하에서 그들이 전개하고 있는 이 혁명적 투쟁은 우리 경제를 빠른 속도로 앙양시키고 있는 바 그리하여 기업소들은 급속히 기술적으로 개건되고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 수준은 더욱 더 제고되여 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당면한 주요 문제는 우리의 풍부한 경험들을 옳게 살려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하고 운동의 보다 높은 발전과 보다 광범하고 심각한 전개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건설에서 이 운동이 노는 추동적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며 그리하여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농업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김 성 연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농업 협동화 운동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거대한 력사적 전변을 일으키고 있다. 1956년말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협동경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농호의 80.9%, 경지 면적의 77.9%에 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에 비하여 경리 형태의 개조가 비할 바 없이 빨리 진행되였다》(김 일성)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농업 과학 기술이 매우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 농촌 경리의 현 상태는 아직도 낡은 재래식 영농 방법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로동의 많은 부분은 락후한 손 로동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농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술 수준을 가일층 제고하며 농업 로동의 기계화 수준을 점차 제고함으로써 농업을 빠른 시일 내에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울 것을 요구한다. 특히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기초 우에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으로써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한 근로 농민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은 이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오늘 전체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농민들이 결의한 자기들의 증산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농업 생산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농민들의 로력 여하에 달려 있지만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농업 과학 기술 일'군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방조를 주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나라의 농업 과학 연구 및 기술 보급 분야에서의 실지 형편은 농업 협동 조합들의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의 기술적 락후성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더욱 촉진하며 당면한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농업 과학 연구 사업과 선진 영농 기술 보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

농촌 경리 발전의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나라들의 농업 발전 정도, 그것은 곧 그 나라들의 농업 과학의 발전 정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 과학의 발전 여하는 농촌 경리 발전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측면으로 된다. 특히 농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조건하에서 농업 과학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농업 과학을 발전시킴이 없이는 농촌 경리를 기술적으로 개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자연 조건하에서 농업 생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업의 총생산고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두가지 길, 즉 절대적인 경지 면적을 확장함으로써 농업 생산고를 높이는 길과 토지의 단위당 수확고을 제고함으로써 농업 생산고를 제고하는 길이 있는 바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는 토지 면적을 절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제한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생산고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방도는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하는 데 있는 바 이것은 우리의 농업 과학 일'군들 앞에 농업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어려운 과업들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농업 과학 연구 사업을 개선하며 선진 영농 기술을 도입 보급하는 것은 농촌 경리 발전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농업 과학 연구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일련의 제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 왔는바 1955년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농업 과학 기술 일'군들의 력량을 집중하며, 시험 기자재와 제반 시설들을 더욱 효과 있게 리용하며, 농업 과학 연구 사업의 통일적인 지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농업 과학 연구원을 창설하였으며 이에 계속 물질—기술적 배려를 돌려 주고 있다. 그리하여 농업 과학 연구 기관들은 그 사업 년한이 오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급격한 발전 도상에 있는 농촌 경리의 요구에 비추어 볼때 극히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금후 농촌 경리의 보다 더 높은 생산을 보장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나아가서는 전체 인민 경제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농업의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농업 생산 기술에 있어서 기본적 조건으로 되는 전국적 토양도도 아직 없으며 기후, 풍토 조건에 적응한 우량 품종의 선출, 과학적인 시비 체계와 경종 체계 및 식물 보호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밖에 축산, 수의 등 농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직도 기본적인 기술적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당면한 농업 생산을 증대함에 있어서 긴절하게 제기되는 이러 저러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명함에 있어서도 실지 생산자들에게 적절한 기술적 방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후 농업 과학 기관들은 농촌 경리의 새로운 실정에 적응하게 자기 사업을 시급히 개편하여야 할 것인 바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 농업 과학 기관들의 사업에 현존하는 기본적인 결함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 과학 연구 사업의 기본적 결함의 하나는 그 연구 사업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생산 현실과 떨어져서 실행되고 있는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사회 제도하에서는 과학 연구 사업이 생산을 떠난 단순한 연구로서 진행될 수 없으며 연구 사업의 성과는 어데까지나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때문에 과학 연구 사업은 발전하는 생산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어야 한다.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는 과학 사업에 있어서의 주요한 과업의 하나는 《과학과 생산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 농업 과학 일'군들은 몇개 도에 한 두 개의 시험장을 차려 놓고 거기에 앉아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풍토 조건에 적응한 시험 연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며 생산 현실의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지 못하고 생산과는 동떨어져서 연구하고 있는 현상을 발로하고 있다. 례컨대 오늘 우리의 농업 생산을 기계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할 중소 농기구의 개선을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도외시하였던 사실들은 이것을 실증하여 준다.

생산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이와 같은 농업 과학 연구 사업이 실지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농업 과학 연구 사업은 계통적으로 장성되고 있는 생산의 요구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생산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여야 만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대한 물질적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과학 연구 사업의 성과는 생산에서 검열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연구 성과를 보장하도록 진행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당면한 생산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결국 과학 연구 사업의 성과 여부는 생산에서의 그의 성과 여부로서 평가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결함의 하나는 농업 과학 연구 사업에서 발로되고 있는 교조주의적 경향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농업 과학 연구 사업에서 발로되고 있는 교조주의적 경향의 표현은 우리 나라에서 오래'동안 계속하여 온 귀중한 영농법들과 광범한 농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달성된 고귀한 영농 경험들이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다.

사실 우리의 일부 농업 과학 기술 일'군들은 우리 나라의 자연 경제적 제 조건에 적응한 집약적 영농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를 계승 발전시킬 대신에 외국의 영농법을 기계적으로 도입하려는 경향을 발로하였다. 실례로 경지 면적이 극히 제한된 우리 나라 농촌에 있어서는 실천성이 거의 없는 목초구를 포함한 륜작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였던 사실, 목화 재배에서 45센치 정방형 파종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과 축산업 분야에서 선진 표준 설계라 하여 쏘련의 규격 축사를 기계적으로 도입하였던 사실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축 사료를 연구하는 방면에서도 볼수 있는바 우리 나라의 산야에 많이 있는 칡기, 싸리, 말굴레풀 등 야생 두과 식물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데 대한 연구에는 적게 관심을 돌리고 우리 나라에 없는 《수단가》 《지모시》 등의 재배를 운운하고 있는 현상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후 농업 과학 일'군들의 사업에서 반드시 류의하여야 할 것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내부에 존재하는 풍부한 자연적 원천들과 농민들의 고귀한 경험들을 시험 연구하여 그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선진 국가 쏘련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들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농업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사업과 농민 대중 속에서 나오는 고귀한 새싹들을 결부시켜 연구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해방 이후 우리의 농민들은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국가의 전반적 인민 경제의 발전과 자기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의식적인 창조적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 과정에 있어서 광범한 농민 대중들 속에서는 수 많은 새로운 영농 방법과 창의 창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일'군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이 새싹들을 제때에 포착하여 그를 종합하고 과학적으로 해명하며, 리론적으로 체계화하여 광범한 농민들에게 보급시킴으로써 농업 증산에서 보다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의 농촌 경리에는 옥수수 백색 마치종을 순종으로 27년간이나 보존하면서 다수확을 낸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평남도 운산군 추평 농업 협동 조합 정 삼렬 농민과 46년간의 목화 재배에서 고귀한 경험을 축적하여 1949년에는 2 100평에서 9.6톤의 수확을 거둔 황남도 재령군 부덕리 면화 농업 협동 조합의 강지갑 농민들을 비롯하여 오래'동안의 영농 과정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 수 많은 실천가들이 있다. 그러나 이 우수한 경험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극히 좁은 범위에서 한개의 경험으로 남아 있는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농민들 속에서 창안되여 축적된 이 새로운 것들을 홀시하는 경향을 퇴치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언급하여야 할 것은 농업 과학 일'군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책임성과 인민 대중에 대한 충실성을 보다 높이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며 당과 인민 대중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과학 연구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농업 과학 일'군들의 력량을 충분히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력량을 옳게 조직 발양시킬 수 있는 높은 조직적 지도가 배합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농업 과학 연구 사업에서는 일정한 연구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고 또 과학 일'군들의 연구 사업이 목적 지향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농업 과학 일'군들은 연구 제마들을 무책임하게 선택하여 빈번히 변동시키거나 지어는 연구 도중에 폐기하는 등 엄중한 사실들을 볼 수 있는바 례하면 1956년 농업 과학 연구원의 총 연구 제마 수는 근 300 건이였는데 오늘에 와서는 그의 3분의 1 밖에 안되며 심지어 산림학 연구실의 한 연구원은 7년간에 7차나 연구 제마를 변동하면서 오늘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연구 결과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일부 연구 기관들은 이미 외국에서 연구 발표되였거나 혹은 그렇게 필요치 않은 제마들을 가지고 연구함으로써 로력과 국가 재산에 막대한 랑비를 초래하는 현상들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일부 과학자들이 자기의 연구 사업에 있어서 확고한 목표와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것 저것 되는대로 암중 모색하는 데서 초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과업은 매개 과학자들이 반드시 계획성있게 연구 제마를 설정하고 그를 꾸준히 연구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고 하여 자체 력량과 우리의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지나치게 방대한 큰 문제를 내세우지 말고 적은 것이라도 가치있고 당 정책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설정 연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 과학 연구 분야에서 달성된 성과——그것은 실지 생산 과정에 도입됨이 없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과학 연구 사업과 기술 보급 사업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선진 기술을 직접 생산 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 일'군——실천가들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경시할 수는 없다.

농촌 경리 분야에 있어서 선진 기술이 어느 정도로 도입되였는가 하는 것은 각급 농업 기관들과 농업 기업소 및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일하는 모든 기사, 기수들과 경험자들의 사업 여하에 의하여 규정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촌 경리에 선진 기술을 도입한다면 높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할 수 있으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임으로써 로력을 더욱 절약할 수 있다.

농업 생산에 있어서 선진 영농 기술이 가지는 의의는 그가 농업 증산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예비를 탐색 동원하는가 하는 것 만으로써도 능히 알 수 있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최대한의 증산을 결의하고 나선 황남도 안악군 내 농민들이 탐구해 낸 알곡 증산 예비 14 000톤 중 그 절대적 비중이 농업 기술의 개선과 관련되여 있다는 사실이 이를 실증하여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력한 선진 영농 기술이라 할지라도 이를 제때에 보급하여 도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실효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인 바 우리 기술 일'군들은 이 기술적 예비들을 더 빨리, 더 넓은 범위에서 보급 리용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에게 선진 농기계나 선진 영농 기술이 없어서 그것을 도입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많은 선진 영농 기술과 농기계들이 창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경시하며 대담하게 계획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교시하였다. 우리는 선진 영농 기술을 경시하는 경

향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농촌 경리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는 선진 기술을 광범한 범위에서 대규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제 조건을 충분히 조성하여 주고 있다. 농업 협동화 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결과에 농촌 경리에서 농업 협동 조합들의 비중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초, 고중 졸업생들과 제대 군인들을 비롯한 중등 지식 정도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적지 않게 농업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선진 영농 기술을 광범한 범위에서 도입 보급할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능성에 비하여 우리의 선진 영농 기술은 아주 좁은 범위에서 그나마 일부 지방에서는 부정확하게 도입되여 생산에 보다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선진 농업 기술의 도입 보급을 저해하고 있는 몇가지 편향들을 극복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선진 영농 기술이 제때에 생산에 도입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일부 농민들과 농업 기술자들, 농촌 경리 지도 일'군들 가운데 낡은 것을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꺼리는 보수성이 아직 남아 있는 데 있다. 선진 기술의 도입은 낡은 영농 방법을 고집하는 보수성과 투쟁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바 이것은 농촌 경리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이다. 때문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것은 순조롭고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으며 장구한 시일을 통하여 형성된 낡은 관습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성 있고 완강한 투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당 단체들과 농촌 경리 지도 일'군들, 농업 기술 일'군들은 우선 자기들 자신으로부터 선진 영농 기술이 가지는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를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모든 로력을 다 하여야 하며 농민 대중이 알기 쉽고 손쉽게 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해설 선전하여야 한다. 즉 출판 선전과 강연 사업을 통한 기술 보급 사업을 진행하며 또한 직접 전야에서 실물을 통한 기술 전습, 기술 강습, 경험 교환회 등을 조직하며 실지 생산 활동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진 기술이 가지는 유리성을 확증하여 주기 위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선진 영농 기술이 제때에 도입되지 못하는 원인의 다른 하나는 일부 농촌 경리 지도 일'군들이 농업 기술이 가지는 특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발로되는 결함에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업 기술은 어떠한 설계와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나사못과 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해당한 지역의 기후, 풍토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했을 때라야 만 비로소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업 기술 보급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기간 선진 기술이라 하여 해당 지역의 기후, 풍토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그를 도입함으로써 일부 지방에 있어서는 생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온 사실까지 있다.

지난 해 함북도에 있었던 자연 피해는 바로 이러한 사실과 관련되는 바 그것은 함북도 조건에 적응한 벼의 조숙종 품종을 배치할 대신에 만숙종(원야 2호, 수원 82호)을 배치함으로써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자연 재해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에 농산물 수확에 심대한 손해를 주게 하였다. 량강도와 자강도의 산간 지대에서는 옥수수 마치종이 다수확 품종이라하여 일률적으로 배치케 함으로써 수확의 감수를 보게한 사실들이 있는바 이것은 이를 실증하여 준다.

물론 벼 품종에 있어서 원야 2호, 수원 82호와 옥수수 품종에 있어서 백색 마치종은 모두가 다 과학과 선진 경험에 의하여 립증된 우량 품종인 것 만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요구하는 생육 기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수확이 높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확이 전혀 없거나 혹은 그 지대에 알맞는 재래종보다도 오히려 적은 수확을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과 농촌 경리 지도 일'군들은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기후, 풍토 조건과 광범한 열성 농민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창조적으로 적용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많은 농업 협동 조합들과 농민들은 선진 기술을 창조적으로 도입하여 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바 례하면 돼지의 두품종간 2중 반복 교미를 창조적으로 도입하여 이미 돼지 1두당 년간에 23두의 자돈을 생산한 함북도 종성 목장 리 복순 영웅의 업적과 가축 사료를 확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씰로쓰 저장용 반로굴식 저장고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결과 자재 부족을 극복하고 182 여 만톤의 씰로쓰 생산을 훌륭히 보장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광범한 농민들이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받아 들이며 그것을 우리의 기후, 풍토 조건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과학 기술 일'군들의 방조 사업은 농업 증산을 보장하는 중요 조건의 하나이다.

* *

오늘 농민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그 실천을 위하여 장엄한 로력 투쟁에 궐기하였다. 각 도, 시, 군 농업 협동 조합원 열성자 회의를 비롯하여 농업 협동 조합, 국영 농 목장, 농기계 임경소 등 각종 집회들에서 농민들이 결의한 증산 목표를 종합하여 본다면 국가 과제 이외에 55 만 여 톤의 알곡을 더 증산할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며 근로 농민들의 무비의 애국심과 헌신성, 그들의 무궁 무진한 창발적 힘을 과시하여 주는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 각지 농촌에서는 현재 그들이 결의한 이 영예로운 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쟁취, 자급 비료의 증산, 우량 종자의 확보, 관개 하천 건설 공사와 선진 영농 방법의 광범한 도입 등 제반 물질—기술적 준비를 위한 일련의 당면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사람같이 궐기하고 있다. 농민들의 고도로 앙양된 이 증산 열의는 금년도 농산물 생산량을 현저히 제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담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증산 결의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전체 농업 과학 기술 일'군들과 농촌 경리 지도 일'군들 앞에는 금후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앙양을 위한 기술적 개조 대책과 함께 당면한 1957년도 농업 생산을 기술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금년도의 농업 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일련의 기술적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것은 물론이지 만 그 중에서도 당면한 문제는 랭상모에 의한 벼의 건모 육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랭상모는 농업 과학 기관들의 시험 결과와 열성 농민들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벼의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함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확증되였다. 랭상 모는 벼의 생육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다수확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앙 시기의 농촌 로력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랭상모를 전반적 조합들에서 실시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는 바 각지 농민들은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하여 모판 선정, 방풍장, 나래, 창문 제작 등 제반 물질적 준비 사업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랭상모는 비교적 기술상으로 보아 어려우며 또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는 것 만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랭상모 육성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고도로 앙양된 증산 열의에 기술적 대책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 경리 부문 기술 일'군들은 광범한 농민 군중에게 랭상모 육성 방법을 철저히 보급하며 생산 현지에서 직접 그들에게 기술적으로 방조하여 줌으로써 한 평의 랭상모도 실패함이 없이 높은 성적을 달성하도

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금년도 랭상모의 성공 여부는 다만 금년도의 벼 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될 뿐만 아니라 금후 벼 재배에 있어서 그의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하는 중요한 기술적 방도로 되는바 이 사업은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촉진하며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선진 영농 기술을 도입 보급함에 있어서 옥수수 재배 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고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농촌 경리는 1957년도에 70만 정보에 가까운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는 바 옥수수의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 총 알곡 수확고를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옥수수의 재배 방법을 단시일 내에 선진적 기술 수준에까지 올려 세우는 문제는 우리 기술 일'군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사업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농촌 경리에 있어서 지난 해의 옥수수 재배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바 례하면 평남도 은산군 추평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정 삼렬 조합원이 다년간 축적한 고귀한 경험을 생산에 옳게 도입하여 77 정보에서 정당 평균 4톤 700 킬로의 높은 수확을 거두었으며 개천군 광도리 광명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선진 기술을 정확히 도입하여 80 여 정보에서 평균 3톤 800 킬로의 높은 수확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많은 지방들에서는 선진 기술이 아주 적게 도입되였고 주로 낡은 재배 방법에 의존되여 있는 바 이러한 지대들에 있어서는 아주 높지 못한 수확을 거둔 데 불과하였다.

때문에 옥수수 재배에 대한 선진 기술과 농민들 속에서 축적된 고귀한 경험들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여야 하는 바 특히 파종을 적기에 보장하는 문제, 결주를 퇴치하는 문제, 추비를 적기에 주는 문제, 우량 품종을 확보하는 문제, 지방적 조건에 적응한 파종 방법을 적용하는 문제 등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금년도 영농 준비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자급 비료 생산을 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이다. 농산물 생산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급 비료를 다량 생산 시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금년도와 같이 자급 비료 생산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하에서는 자급 비료의 질을 제고하는 문제와 속성 퇴비를 다량 생산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기술 일'군들은 농민들의 자급 비료 생산을 위한 원천을 최대한으로 탐구 리용하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 전개함과 동시에 자급 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액비통, 재우리, 퇴적장 설치 사업과 퇴비 뒤지기 작업 등 ——들을 철저히 실행하도록 농민들에게 기술적 방조를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각지에 매장되여 있는 니탄을 광범히 리용하기 위하여 니탄 처리 방법을 철저히 보급하며 또한 니탄의 비효(肥効)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시험 연구 사업들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인 우량 종자의 생산 보급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되는 채종 사업을 개선 강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국가 채종 농장을 기후, 풍토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 자체 채종포를 설치하여 다수확 우량 품종을 갱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채종 포전 선택 사업을 정확히 하며 소요 면적을 확보하며 그에 따르는 비배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 과학 기술 일'군들과 농촌 경리 지도 일'군들이 자기들의 농산 기술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당의 농업 정책을 심오히 연구하고 그의 관철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재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현 시기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와 형태에 관한 몇가지 문제

김 한 주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옳은 궤도에서 진행되여 왔으나 부분적으로는 당 로선과 어긋나는 편향들이 없지 않았다.

지난해 농업 협동 조합 조직 분야에서 나타난 편향은 첫째로 협동 조합을 너무 크게 조직하며 또 이미 조직된 협동 조합들을 합치는 운동을 일으키는 데서 표현되였으며, 둘째로 너무 높은 형태만 추구하는 데서 표현되였다.

일부 지방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이와 같은 편향은 제때에 완전히 시정되였다. 그러나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 및 형태 문제에 관한 당의 방침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더욱 깊이 연구하는 것은 농업 협동 조합들의 조직 경제적 강화와 전체 농촌 경리의 협동화의 완성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선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 장성 및 형태 구성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나라들의 실정 및 경험과도 대비하면서 이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농업 협동 조합 조직 분야에 있어서 우리 당은 농민들의 엄격한 자원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의 규모와 형태를 적절히 규정하는 문제에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돌려 왔다. 농업 협동화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던 1954년 1월, 당 중앙 위원회의 《농업 협동 경리 조직 문제에 대하여》의 지시 가운데는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 및 형태에 관한 문제가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었다.

《협동 경리의 규모에 있어서는 협동 경리를 조직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농민들의 준비된 조건을 타산하여 적당한 범위로 조직하여야 한다. 그 규모가 너무 적으면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10호 이상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 협동 경리를 조직하는 초기에 있어서 그 지방 실정과 제반 조건들을 고려함이 없이 처음부터 높은 형태와 규모가 큰 것 만을 요구한다면 그 조합은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적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점차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본 원칙에 립각하여 지난 시기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는 농촌 경리의 제반 물질적 기술적 토대가 복구 강화되고 조합 관리 일'군들의 경험이 축적되는 등 제 조건과 관련하여 점차적으로 장성하여 왔다. 이제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의 장성 동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합당 평균 농호수	1 조합당 평균 경지 면적
1953년 7월	12.6 호	20.6정 보
1954, 6	19.8	31.1
1955, 6	39.7	67.5
1956, 6	49.8	79.7
1956, 12	54.6	85.9

이상과 같이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는 3년반 동안에 망라된 농호수에 있어서나 경지 면적에 있어서나 각각 4배 이상에 달하는 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장성은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농촌 경리의 제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의 복구 강화——농기계 임경소 망의 확장, 대규모 관개 시설의 다수 준공 등——와 협동 조합 관리 및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의 현저한 제고를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농업 협동화 운동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대응하는 것이였다.

농업 협동화 운동의 대중적 발전과 함께 이미 조직된 협동 조합들에 새 조합원들이 다수 가입되고 또 새로 조직되는 협동 조합들이 초기의 협동 조합들에 비하여 점차 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발족하게 됨으로써 협동 조합들의 규모별 구성 비률 동태는 다음과 같이 현저하게 변화되고 있다.

	30호 미만의 조 합	31—50호의 조 합	51—100호의 조 합	101—200호의 조 합	201호 이상의 조 합	계
1954년 12월	57.0%	27.7%	13.1%	2.2%	—	100.0
1955, 6	43.3	33.9	20.3	2.4	0.1%	100.0
1956, 6	26.8	33.9	32.7	6.3	0.3	100.0
1956, 12	23.0	33.0	35.4	7.9	0.7	100.0

규모별 농업 협동 조합들의 구성 동태는 1955년 6월까지는 30호 미만의 조합이 다수를 차지하였다면 1956년 6월에는 31--50호의 조합, 1956년 12월에는 51--100호의 조합이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하여 농호수를 기준으로한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는 벌써 과거 농업 집단화 시기의 쏘련이나 또 현재 우방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그것과 대체로 비등한 크기를 가지게 되였다. (참고로 말한다면 쏘련에서는 과거 농업 집단화 시기의 5년간〔1928--1932〕에 전국적으로 1 꼴호즈당 평균 농호수는 13호로부터 71호로 장성되였으며 1955년 현재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는 체코슬로바키야--약 40호 〔제1 형태 제외〕, 루마니야--약 60호, 알바니야 약 40호, 중국--26호 등으로 되여 있었다).

이상과 같이 농호수를 기준으로한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는 벌써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더라도 적지 않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 문제는 또한 경영적 측면과 직접 관련되는 바 가령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것을 본다면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는 현재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보다 매우 적은 것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협동 조합에 망라된 1 농호 당 평균 경지 면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바 쏘련 및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그것이 보통 5--10정보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그것이 1.6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은 일반적으로 그의 조직(농호수) 규모에 비하여 경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의 제한성과 직접 관련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들이 적지 적작의 원칙에서 작물을 배치하며 정확한 륜작 체계를 도입하며 관개 시설 및 토지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목축, 과수, 양잠 등을 도입하여 그의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한 면적의 통합된 토지가 요구된다. 토지가 제한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또 그의 경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은 우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근 농민들을 새로 인입하여 그의 조직(농호수)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 경리의 사회적 개조에 비하여 기술적 개조가 뒤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가 급속히 장성하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농호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그의 경영 규모를 부단히 확대하려는 농업 협동 조합들의 내재적 요구는 관리 일'군들의 능력과 경험이 아직도 어리며 전문적 기술 인재가 준비되여 있지 못한 주관적 조건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매우 뒤떨어지고 있는 농업 기술적 상태와 관련되는 객관적 조건들과 모순되게 되며 이로부터 해당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제 조건을 무시하고 단순한 주관적 욕망에서 협동 조합의 규모를 확대할 때에는 반드시 불리한 결과들이 초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협동 조합의 규모는 생산 관계의 한 측면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것은 무엇보다 생산력(로동 수단과 일하는 사람 즉 이상에 지적한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의 통일)의 성격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 조건에서는 규모가 매우 큰 것이 적당치 않으며 40호로부터 100호 좌우가 적당하다고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는 바로 생산력의 성격 및 수준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에 대한 정확한 고려가 반영되고 있다. 쏘련에서의 력사적 경험도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하지 않는 대 규모의 꼴호즈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는 바 흐루쑈브 동지는 농업 집단화 운동의 첫 시기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때에 새로 조직된 꼴호즈들은 아직 어리였다. 꼴호즈의 지도 간부들은 대규모 꼴호즈 경리의 운영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농촌에는 농업 기사, 축산 기사 및 기타 전문가들이 적었다. 그때에 대규모의 꼴호즈들만 건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명백하였다. 그때에 당이 농촌과 부락들에 경제적 토대가 없는 거대한 꼴호즈 건설의 확대를 반대하여 경고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꼴호즈들의 가일층의 조직--경제적 강화를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50년판 13—14폐지).

농업 생산력의 발전 수준이 아직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토지가 극히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 조건 하에서 협동 조합들의 규모를 적당하게 규정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그의 규모가 너무 적은 조합들은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며 또 이와 반대로 그의 규모가 너무 큰 조합들은 공동 경리의 관리 운영상 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의 농업 협동 조합들은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 3년 여의 실 생활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너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50--60호 내외의 평균적 규모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들의 경지 면적은 현재 평균 80—90정보에 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도의 토지는 기계화 없이 (원래 이러한 면적의 토지에서는 현대적 농업 기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수공업적 농기들 만 가진 100명 내외의 조합원 로력으로써 능히 합리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균적 규모의 농업 협동 조합들은 농업 이외의 일정한 보조적 생산 부문들을 조직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가 또한 이에 적응하여 점차적으로 장성하여 갈 것은 물론이나 현 시기에 있어서도 이 량자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적응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비고) 1956년도에 전국 각 도(시)에서 추천된 모범 농업 협동 조합(후보)—75개의 규모별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조 합 수	%
30호 미만	—	—
31—50호	16	21.3
51—100호	27	36.0
101—150호	18	24.0
151—200호	9	12.0
201호 이상	5	6.7
계	75	100.0

오늘 우리 나라의 농업 협동 조합들이 일반적으로 현 시기의 제반 현실적 조건에 부합되

는 적당한 규모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농호수) 규모에 대한 경영 규모의 상대적 령세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일반적 특징—모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 규모를 그의 조직(농호수) 규모에 적응하도록 부단히 확대하는 것—이것은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과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현 조건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개량하는 문제와 토지의 리용률 및 단위당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 대책이 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방의 자연 경제적 조건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방향에서 알곡과 공예 작물 이외에 목축, 어업, 양잠, 과수 등 부문들과 각종 부업 생산들을 옳게 결합 발전시켜 경영 규모를 급속히 확대시키도록 보장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토지가 척박하거나 혹은 심히 부족되는 산간 지대와 해안 지대에서는 이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게 나타난다. 산간 지대에는 풍부한 자연 사료들과 방목 적지들이 있으며 바다에는 어류를 비롯하여 무진장한 수산 자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농업 협동 조합들과 아울러 특히 산간 지대에는 반농, 반목축 협동 조합, 해안 지대에는 반농 반어업 협동 조합들을 광범하게 조직 발전시키도록 적극적인 지도 방조 대책을 취하여 왔으며 또 취하고 있다.

요컨대 조직(농호수) 규모와 경영 규모간에 존재하는 일정한 불일치—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가일층 강화하며 전체 조합원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킴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기본 과업으로 되는 것이다.

※ ※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의 점차적--정상적 장성의 일반적 특징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이 특징도 또한 농촌 각 지역들 간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점이니 단적으로 말하여 산간 지대의 농업 협동 조합들에 비하여 평야 지대의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는 보다 빠르게 장성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 조직의 경험적 단계에서 그것들의 평균적 규모는 그 어느 지대에서나 거의 동일하였다. 즉 그것은 평야 지대에서나 산간 지대에서나 대체로 10—20호 내외를 망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농업 협동 조합들이 대중적 발전 단계에 들어선 1955년부터 그것들 간에는 점차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늘에 와서 평야 지대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를 전반적으로 산간 지대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를 현저히 릉가하게 되였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각 도별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도별 1 조합당 평균 농호수

도 별	1956년 6월	1956년 12월
평 남 도	55.9호	59.3호
황 남 도	55.1	60.7
평 북 도	53.1	56.4
강 원 도	50.2	54.2
함 남 도	49.5	60.7
황 북 도	44.9	49.3
함 북 도	41.6	45.8
자 강 도	40.4	47.5
량 강 도	36.6	36.0

(비고)

1956년 6월, 도별 농업 협동 조합 평균 규모에 있어서 제5위를 차지하였던 함남도가 1956년 12월 현재에 와서 제1위로 되게 된 것은 이 지방에 적지 않게 있었던 《통합 운동》(시정되기 전)의 일정한 영향에 의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각 도별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는 평야 지대가 많은 평남도, 황남도 및 평북도 등에서 가장 크며 산간 지대가 많은 함북도, 자강도 및 량강도 등에서 가장 적은 바 이것은 바로 각각 해당 도들의 지대적 특성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의 이와 같은 지대별—도별 순위는 기본적으로 농업 협동화의 속도 및 수준의 지대별—도별 순위와 일치하는 바 이것은 바로 농업 협동화 운동의 발전 속도를 규정하는 제 조건이 또한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 장성을 규정하는 조건과 밀접히 련관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사실 평야 지대에 비하여 농민들이 분산 거주하며 토지가 산재하여 있는 산간 지대의 자연적 조건이 협동화 운동의 발전 속도와 아울러 이미 조직된 협동 조합들의 규모 장성을 제약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는 것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 장성을 규정하는 방면에 있어서 자연적 조건과 함께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농업 기술적 제 조건이다. 단적으로 말하여 동일한 평야 지대에 있어서도 농업 기술 제 조건의 차이에 따라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에는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자연적 조건과 관리 일'군들의 수준이 동일한 조건하에서도 농기계 임경소의 방조를 받거나 대규모 관개 시설을 리용하는 협동 조합들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협동 조합들의 규모보다 현저히 크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실례로 600호 이상을 망라하고 있는 황남도 신천군 새날 농업 협동 조합, 평북도 룡천군 전진 농업 협동 조합 등을 비롯하여 200호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농업 협동 조합들은 모두 농기계 임경소, 대규모 관개 시설 등 현대적 농업 기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평야 지대에 비하여 자연적 조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상에 지적한 현대적 농업 기술의 도입이 또한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는 산간 지대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가 금후 상대적으로 더욱 적은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용이하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를 산간 지대 내부에 국한하여 본다면 앞으로 이 지대에 새로 조직될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는 그가 처하게 될 보다 불리한 자연--기술적 조건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이미 조직 운영되고 있는 조합들의 규모 보다 더 적은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과 정부는 경험적 단계에서부터 농업 협동화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그 조직 규모를 적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로--점차적 장성의 원칙을 견지하여 왔거니와 이 원칙은 농업 협동화 수준이 뒤떨어지고 있는 산간 지대를 비롯한 전체 농촌 경리의 협동화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이미 조직된 전체 농업 협동 조합들의 한결같은 조직--경제적 공고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기본 원칙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요컨대 생산 관계의 한 측면을 이루는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는 사람들의 의지와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객관적 합법칙성의 지배와 작용을 받는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의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 기능 및 관리 능력 그리고 또한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이 처하고 있는 자연--지리적 및 기술--경제적 제 조건이다.

우리 나라는 쏘련과 같은 광활한 나라는 아니지마는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를 규정하는 이 모든 조건들이 지역별로 현저하게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곧 우리 나라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일률적인 합리적 규모라는 것은 원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적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극히 다종 다양한 규모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례로 1956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는 약 50호로 되여 있으나 그 중에는 최소 8호(량강도 후창군 송리 농업 협동 조합)로부터 최대 610호(황남도 신천군 새날 농업 협동 조합)에까지 이르는 큰 넓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비고) 지역별 농업 협동 조합들의 평균적 규모의 차이는 현재 쏘련에서 특히 현저함을 볼 수 있다.

쏘련에서의 지역의 광활성 그리고 또 그의 자연—지리적 및 기술—경제적 제 조건의 현저한 차이는 각 가맹 공화국들의 꼴호즈의 평균적 규모에 직접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쏘련 전체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조적인 몰다비야 및 까렐로 핀 공화국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농호수에 의한 꼴호즈들의 구성 비률(1955년)

	100호 미만	101—200호까지	201—300호까지	301—500호까지	501호 이상	계
쏘 련	19.6%	35.0%	20.8%	17.1%	7.5%	100.0%
몰다비야	0.1	1.8	8.4	29.9	59.8	100.0
까렐로핀	95.1	4.5	0.4	—	—	100.0

(《쏘련 인민 경제 통계집》 131페지 1956년판)

일반적으로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가 우선 지역적으로도 일정한 차이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만큼 우리는 일률적인 그 어떤 기준을 세워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매개 조합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 분석함으로써 해당 조합의 규모를 규정하는 객관적 합법칙성의 요구에 완전히 적응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들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주관적 욕망에서 협동 조합들의 규모를 마음대로 확대하려 하거나 또 이와 반대로 모든 조건이 이미 성숙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동 조합들의 규모를 종래대로 묵수하려는 등 오유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지적할 것은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40호로부터 100호 좌우의 규모가 적당하다고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기계적으로 리해 혹은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그 점이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에는 우리 나라 여러 지역들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또 일반적인 것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제시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규모의 조합들을 억지로 40호 정도까지 확대하려 하거나 또 혹은 100호 좌우를 초과한다 하여 이미 자기 발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조합들에까지 분할하려고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소규모 조합들에 대해서는 조건이 성숙되는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미 조직된 대규모 조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조하며 관리 일'군들과 조합원들이 더욱 노력하여 잘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 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그의 통합 문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작년도 말에 함남도와 평남도의 일부 농촌들에서는 당의 로선과는 어긋나게 협동 조합들을 통합하려는 《운동》이 일어 났었다. 이 운동은 첫째로 협동 조합은 아무런 커야 된다는 기계적인 관점, 둘째로 선진적인 조합들과 뒤떨어진 조합들 간에 존재하는 이러 저러한 차이—모순을 평균화의 방법으로써 해결하려는 소부르조아적 관점, 세째로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간편하게 하려는 관료주의적 관점, 네째로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합원 대중의 요구로 《인식》한 비 군중적인 관점 등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것이였다.

현 시기 우리 나라 조건에서 통합 《운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합리하며 또 통합하려는 이러 저러한 관점이 얼마나 옳지 못한가 하는 점들은 이미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대회에서의 김 일성 동지의 연설에서 전면적으로 분석 비판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를 규정하는 객관적 합법칙성이 존재하는 이상 이것을 무시하고 뛰여 넘으려는 통합 《운동》은 그의 주관적 의도 여하를 불문하고 허용될 수 없는것이다. 물론 우리는 지난 시기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을 통합하여 성과를 달성한 긍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속하는 것은 그의 규모가 너무 적어서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옳게 발휘할 수 없는 조합들, 토지가 호상 교차되여 합리적인 농업 경영과 효과적인 현대적 농기계 및 관개 시설의 리용 등에 모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던 조합들에 국한되였던 것이다. 엄격한 자원적 원칙 우에서의 이러한 조합들의 통합은 협동 경리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통합 《운동》으로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일부 대규모 조합들의 분할도 포함한 농업 협동 조합 정리 사업의 한개 고리로서 진행되였던 것이다. 지난 시기 농업 협동 조합 분야에서 진행된 일부 조합들의 통합은 실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였다.

이와 같이 객관적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부분적인 통합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당과 정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집중적 지도 방조 사업과 엄격히 병행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과 정부가 통합 문제를 얼마나 신중하게 처리하여 왔는가 하는 점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 주는것이다. 비록 통합의 객관적 요구는 성숙되여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합들 간에는 이러 저러한 차이와 모순—물질적 측면으로부터 정신적 측면에 이르기까지—들이 존재하는 것 만큼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성의 원칙은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엄격히 준수되지 않으면 안될 기본 원칙으로 되는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것은 쏘련에서의 력사적인 경험이다.

농업 집단화 운동이 완성된 후 쏘련에서는 부분적인 통합을 통하여 꼴호즈의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여 갔다. 그러나 본격적인 통합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50년이였다. 이 통합 운동을 통하여 1940년에 235 500개에 달하던 꼴호즈의 수는 1950년에는 약 반수인 121 400개로 격감되고 이에 따라서 1꼴호즈당 평균 농호수는 81호로부터 165호 즉 2배 이상으로 증가되였다. (1955년 현재 쏘련의 꼴호즈는 85 700개로 감소되고 1꼴호즈당 평균 농호수는 229호로 증가되였다.)

그러면 쏘련에서의 본격적인 꼴호즈의 통합 운동은 어떠한 객관적 제 조건과 관련하여 전개되게 되였는가? 1950년 3월 모쓰크바현 근로자 대의원 쏘베트 회의에서 진술한 흐루쑈브 동지의 보고에 의하면 이점은 아주 명백하다. 즉 1949년에 쏘련의 꼴호즈, 엠떼에쓰 및 쏩호즈들은 1940년에 비하여 3—4배 이상의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및 농업 기계들을 받았다.

그리하여 꼴호즈들은 알곡 작물의 전체 기본 작업과 기타 작물의 수확 작업을 대부분 기계화함으로써 많은 로력을 경감할 수 있게 되였다. 꼴호즈들의 핵심인 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들의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각종 농업 전문가들이 꼴호즈를 일상적으로 방조할 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규모의 꼴호즈들은 벌써 농업 과학의 성과와 현대적 농업 기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없게 되였다.

실례로 350—450 헥타의 토지를 가진 꼴호즈들에서의 콤바인의 작업 능률은 140—200 헥타의 토지를 가진 꼴호즈에 비하여 1.5—2배나 높았다. 탈곡기 엠.까 1 100호의 작업 능률은 소규모 꼴호즈에 비하여 대규모 꼴호즈에서 2.4배나 높았다. 더우기 이 탈곡기는 40명 이상의 로력을 요구하였음으로 소규모의 꼴호즈들에서는 로력 부족으로 이것을 잘 리용할 수도 없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꼴호즈들은 양성된 농학 기사, 축산 기사 및 수의사들도 가질 수 없는 형편이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관리 부문의 로력과 지출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었다. 이와 같은 모든 조건들은 꼴호즈의 통합 운동이 가능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절실한 요구로 되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쏘련 공산당은 꼴호즈원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통합 운동을 조직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쏘련 공산당의 신중한 태도이였다.

흐루쑈브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꼴호즈 지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꼴호즈들의 통합 사업에 있어서도 행정적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 통합의 가능성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매개 꼴호즈들의 경제적 및 조직 경영적 특성을 옳게 타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 문제는 자원적 원칙에서 꼴호즈원 자신들이 결정하여야 한다. 당 및 쏘베트 기관들의 임무는 꼴호즈의 가일층 강화와 꼴호즈원들의 물질적 복리 향상의 과업에 적응하는 이 방책의 유리성을 꼴호즈원들에게 해설하는 데 있으며 또한 해설할 뿐만 아니라 이 중대한 사업을 지도하는 거기에 있다》(동상 23—24페지).

이러한 쏘련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나라에 아직 통합 운동의 조건이 성숙되여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는 적어도 제 2차 5개년 계획까지나 수행하여야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리라는 것과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3—5년간은 협동 조합을 통합하는 《운동》을 그만 두어야 하겠다는 것을 교시하였다. 이 교시에 립각하여 현 시기에 있어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조직(농호수)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령세한 경영 규모를 급속히 또 부단히 확대하도록 적극 투쟁하는 것——이것이 농업 협동 조합 분야에서 제기되는 기본 과업의 하나이다.

※ ※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의 농업 협동 조합들의 형태별 구성에 있어서는 제 3 형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협동화의 급속한 속도와 아울러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된다. 이제 형태별 농업 협동 조합들의 장성 동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년 월	제2형태 조합수	%	제3형태 조합수	%	합 계 조합수	%
1954년6월	502	46.0	589	54.0	1 091	100.0
1955, 6	1 272	11.0	10 263	89.0	11 535	100.0
1956, 6	440	3.0	14 337	97.0	14 777	100.0
1956, 12	392	2.4	15 433	97.6	15 825	100.0

(주) 1954년 6월 현재 제2 형태의 농업 협동 조합들 가운데는 약간의 부업 협동 조합이 포함되여 있음

보는 바와 같이 제2 형태의 협동 조합들은 그 비중이 계속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55년 6월을 최고로, 그 이후에는 절대적으로도 급속히 감소되는 경향에 있다.

국유화된 토지 우에서가 아니라 농민들의 사적 토지 소유의 기초 우에서 협동 조합들이 조직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로력일 수에 의해서 만 분배를 실시하는 고급한 제3 형태의 조합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극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고)

(1) 형태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실정을 보면——로력일 수에 의해서만 수입을 분배하는 형태는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 조직되지 않고 있든가 (불가리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것은 70—80% 내외에 도달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야, 루마니야, 중국 등)

(2) 과거 쏘련에서는 토지가 국유화되였던 조건과 관련하여 농업 집단화 시기에 저급 형태인 또즈의 비중은 급속히 저하되였다. 즉 1929—1931년간에 또즈는 60.2%로부터 4.7%, 아르쩰리는 33.6%로부터 91.7%, 꼼무나는 6.2%로부터 3.6%로 각각 비중이 변화되였다.

농민들의 사'적 토지 소유의 기초우에서 그리고 또 농업 협동화 운동의 첫 시기부터 제3 형태의 협동 조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원인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균등성과 령세성으로써 특징 지어지는 우리 나라 토지 소유 관계와 관련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철저한 토지 개혁의 실시에 의하여 토지 없는 농민들과 토지 적은 농민들이 모두 로력자 및 가족수에 따라서 각각 균등한 토지의 분여를 받았다.

물론 토지 개혁 이후 로력과 토지간에 부분적인 불균형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경작권지의 조절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극복되여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농업 협동화 운동이 시작되던 당시에도 농민들의 토지 소유 면적에는 별반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농민들의 토지는 보통 논 지대에 있어서는 약 1정보, 논, 밭—중간 지대에 있어서는 약 1.5정보, 산간 지대에 있어서는 약 2정보를 중심으로 거의 균등적인 상태에 있었다. 농민들의 토지 소유 면적의 차이는 가장 큰 경우에 1:3 정도에 달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토지가 보다 많은 농민은 또한 로력자 및 가족 수가 많은 농민들이였다.

이러한 토지 소유 관계의 특징은 단적으로 1953년도 경지 규모별 농가 호수 구성 비률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니 총 농가 호수 중 1정보 미만의 농가는 22.9%, 1—2정보의 농가는 41.7%, 2—3정보의 농가는 19.1%를 차지하였으며 3정보 이상의 농가는 6.3%에 불과하였다. (3정보 이상의 농가는 거의 전부가 토지가 척박한 산간 지대 농가들이였다.)

(비고)

토지 개혁 후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경지 규모별 농민 경리의 구성 비률은 총체적으로 5헥터 미만—약 60%, 5—10 헥터—약 30%, 10 헥터 이상—약 10%에 달하였다. 토지를 많이 가진 10 헥터 이상의 부농들은 협동 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금지되였으나 빈농과 중농들 간에 있어서도 1—2 헥터부터 10 헥터에까지 이르는 적지 않은 토지 소유 면적의 차이가 발생되게 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1농호당 토지 소유 면적이 적을 뿐만 아니라 거의 균등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토지의 령세성이 농업 협동화 운동의 급속한 발전을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면 (적은 토지에 기초를 둔 개인농 경리 발전의 제한성은 다수 농민들을 협동화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 조건이였다) 토지 소유의 균등성은 바로 협동 조합들에서 토지몫에 의한 분배를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제3 형태의 협동 조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원인은 주로 농민들의 토지 소유 면적에 큰 차이가 없다는 현실적 조건과 관련된다. 그러나 만약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차 등이 무제한 허용되여 왔다고 하면 결과는 반드시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령세한 균등적 토지 소유 관계를 기초로 토지의 임대차가 금지되고 매매가 엄격히 제한되여 온 객관적 조건과 또한 해방후 혁명 과정을 통하여 급속히 제고된 농민들의 정치 사상적 수준—주관적 조건은 호상 결부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특히 제3 형태의 농업 협동 조합들을 급속히 장성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3 형태 협동 조합들의 급속한 장성—발전을 규정하는 조건들이 바로 이러하다면 이 조건들이 동일하지 않거나 성숙되지 못한 곳 즉 농민들의 소유 토지에 보다 큰 차이가 있거나 혹은 그들의 정치, 사상적 수준이 아직 충분히 높지 못한 그러한 곳에서는 제3 형태가 적합하지 않으며 또 급속히 장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용이하게 리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조건을 무시하거나 뛰여 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농업 협동 조합 형태들 중에서 제3 형태는 가장 고급한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농업 협동 조합들의 생산력이 더 발전하여 토지 많은 조합원들의 수입까지도 개인농 경리 당시보다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2 형태의 협동 조합이 또한 그의 존재 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제3 형태의 협동 조합이 이미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제2 형태의 협동 조합들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 지역적으로 개성시 주변 농촌에서는 제3 형태의 협동 조합보다 제2 형태의 협동 조합이 더 큰 비중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즉 1955년 6월—1956년 12월간에 제3 형태의 협동 조합은 16개로부터 74개로, 제2 형태의 협동 조합은 49 개로부터 159 개로 각각 장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개성시 주변을 포함하여 전체 신 해방 지구 농촌이 일반적으로 38이북 지역에 비하여 토지 소유 관계 및 사회적 생활 관습 등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비단 이 지역에 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유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제3 형태 협동 조합들의 급속한 장성이 가지는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2 형태는 물론, 제1 형태까지 포함하여 낮은 형태의 협동 조합들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을 견결히 반대하여 왔다.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농민들의 의식 수준과 경

제적 처지를 고려함이 없이 덮어 놓고 높은 형태만 추구하는 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토지는 많고 로력이 적으며 비교적 잘 살아 온 농민에게 처음부터 제3 형태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농민들에게 처음부터 제3 형태를 강요한다면 중농의 리익을 침범할 수 있다》.

현 시기 농업 협동 조합들의 형태 문제를 옳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나라 농업 생산력의 발전 수준, 둘째 농업 협동 조합에 아직 망라되지 않고 있는 농민들의 경제적 처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구된다.

지난 3년간의 창조적 로력 투쟁을 통하여 절대 다수의 협동 조합들은 개인농 경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생산과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생산력은 아직 전체 조합원들의 수입을 한결같이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농업 협동 조합들의 조직 초기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당 중앙에서는 전국의 농업 협동 조합들에 초기의 수년간에는 평년작인 경우에 90%의 조합원들이 수입을 증가시키도록 하고 그 후에는 생산을 발전시키는 토대 우에서 전체 조합원들의 수입이 해마다 증가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류소기, 《중국 공산당 제8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의 중앙 위원회의 정치 보고》).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전체 협동 조합원들 중 약간의 부분은 현재 그의 수입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속하는 것은 토지는 많았으나 로력이 적은 중농의 일부분이다. 이런 조합원의 수입이 모두 증가되기 위하여서는 물론 일정한 시일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지마는 호상 리익의 원칙에서 이 문제를 옳게 조절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역축 및 중요 농기구 등의 통합—평가 사업과 대금 지불을 정확히 진행하도록 지도 대책을 강구 실시하는 동시에 특히 협동 조합의 형태 규정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는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에 이미 농민 경리의 80%가 망라되고 있는 오늘 우리 당이 계속 그의 형태 문제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이상에 지적한 농업 생산력의 현 수준과 아울러 특히 협동 조합에 아직 망라되지 않고 있는 농민들의 대부분이 산간 지대를 제외한다면 비교적 잘 사는 농민들이라는 그 조건과 관련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농업 협동화 운동이 완성 계단에 들어선 현 시기에 있어서 제2 형태의 협동 조합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큰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단 개성 지구나 신해방 지구를 포괄하는 황해남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로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농촌 지역에 걸쳐 그러한 것이다.

생산력의 성격에 대한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이 바로 이것을 요구하며 또 이 법칙의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당의 방침과 요구가 또한 그러한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의 완성을 전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협동 조합에 들어 온 후에 개인농으로 있을 때보다 적어도 생활 수준이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 협동 조합에 들어 오지 않은 농민들을 인입하려면 협동 조합 자체를 강화하여야 한다. 협동 조합이 강화되고 조합원들의 생활이 아직 남아 있는 개인 농민들의 생활 보다 높아진다면 그들은 권고하지 않아도 협동 조합에 들어 올 것이다》.

이 교시는 이미 조직된 협동 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가일층 공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새로 조직될 협동 조합들의 형태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고급 형태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저급 형태 특히 제2 형태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주의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 및 형태 문제에 있어서 당의 일관한 방침을 준수하는 것——이것은 곧 우리 나라에서 이미 조직된 협동 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더욱 급속히 강화하며 또한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전체 농촌 경리의 협동화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된다.

사회주의 도덕과 부르죠아 도덕

리 형 우

정치적 및 법률적 이데올로기, 예술, 종교, 과학, 철학, 도덕 등과 같은 사회의 의식의 제 형태는 모두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다. 이것들은 사회적 존재의 어떤 부문 또는 측면을 반영하는 가에 따라서 또 그것들이 사회 생활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역할에 따라서 서로 구별된다.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의 도덕도 사회적 존재를 반영하는 특수한 부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련계를 떠나 단독적으로 생존할 수는 없는 만큼 그는 사회 생활 행정에서, 그 사회 또는 일정한 계급의 요구의 정신으로 교양되며 사회 또는 계급의 요구가 인정하는 일정한 행동의 규범과 규칙을 가지게 된다. 만일 사회적 련계 없이 고립적인 인간이 있다면 그는 아무런 행동 규범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란 있을 수 없다. 도덕이란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의 규범과 규칙의 총체를 말하는 바 이것은 사회 (조국, 국가, 자기 계급과 적대 계급) 에 대한 개인의 행동과 사람들 호상간의 관계를 포괄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은 사회적 존재를, 주로 법칙, 개념 등의 형태로써 반영하는 과학이나 철학과 구별되며 또 예술적 형상의 형태로 반영하는 예술과도 구별된다.

인간 행동의 규범과 규칙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도덕은 법과 같다. 그러나 량자간에는 차이가 있다. 법은 지배 계급의 의사를 국가적 의사로 표현하며 법 규범들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나 도덕은 권력을 자기의 원천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직접적인 국가적 강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매개 계급의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 등에 대한 관념을 표현하며 도덕적 규범의 준수는 사회 여론의 힘, 인간의 내부적 충동, 량심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맑스 이전의 사회 학자들은 도덕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들은 도덕을 《인간의 영원한 본성》 《신의 섭리》 등에서 이끌어 내였으며 모든 시대와 모든 계급에게 일률적으로 적합한 그 어떤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도덕이란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구 불변한 것, 초계급적인 것이 아니다. 도덕도 사회적 존재의 반영인 만큼 사회 경제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이 부단히 변화한다.

도덕은 또한 적대적 계급으로 분렬된 사회에서는 불가피적으로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된다. 왜냐 하면 각 계급은 서로 물질적 생활 조건이 다르며 계급적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배 계급은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통하여 자기의 지배를 정당화하며 피지배 계급은 그들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투쟁한다. 때문에 각 계급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며 각기 자기 계급의 도덕을 가진다.

례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죠아지는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부르죠아 도덕을 가지며 프로레타리아트는 지배 계급인 부르죠아지와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고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레타리아 도덕을 가진다. 부르조아지와의 계급 투쟁 속에서 형성된 프로레타리아 도덕은 사회주의가 승리한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도덕으로 발전한다. 사회주의 도덕은 사회주의 국가 쏘련에서 처음으로 승리하였으며 그후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서 또한 지배적인 도덕으로 되였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부르조아 도덕과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지배적인 사회주의 도덕은 각각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그들 간의 차이점은 어데 있는가?

부르조아 도덕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도덕이며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와 프로레타리아트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복무한다. 부르조아 도덕은 부르조아적 관계의 지반 우에서 발전하면서 한 때 로후한 봉건적 토대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진보적 역할을 놀았으며 봉건 제도의 태내에서 형성된 새로운 부르조아적 토대의 승리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적 모순이 첨예화되고 더는 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지 않게 되자 쇠퇴해 가는 낡은 부르조아 제도를 불가피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애쓰는 반동적 역할을 논다.

부르조아지와 함께 발생한 프로레타리아트는 종전의 모든 계급들과는 달리 자기의 해방과 함께 계급과 착취의 존재의 가능성으로 되는 사'적 소유를 페절하고 무계급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사명을 가진 계급으로서의 최후의 계급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자기의 력사적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는 부르조아 제도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 있어서 단결의 정신, 동지애, 자기 계급에 대한 충실성, 적에 대한 적개심 등을 요구하는 바 이는 곧 프로레타리아트의 도덕적 품성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도덕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로동 계급이 처해 있는 물질적 생활 제 조건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일상 생활 행정에서 형성된 이와 같은 도덕적 품성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선진 분자들에 의하여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과 결부되고 프로레타리아트당의 교양자적 활동에 의하여 확고한 새로운 도덕으로 발전한다.

프로레타리아 도덕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제도를 타도하고 승리한 후에의 새로운 조건하에서는 새로운 도덕적 품성 즉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무한한 충실성, 착취 및 억압에 대한 증오, 호상 원조와 협력,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 사회주의적 인도주의 사상 등으로써 풍부해진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발생한 프로레타리아 도덕은 사회주의 사회의 조건하에서의 사회주의 도덕, 공산주의 도덕과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지배적인 도덕은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는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전체 애국적 인민의 리해 관계와 지향을 표현하며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주의 도덕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도덕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제와 그 주구 예속 자본가, 지주들을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형성 발전하였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되자 조선 인민은 당의 지도하에 인민 정권을 수립하고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하여 반봉건적, 식민지적 사회 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였다. 조선 인민은 계속 자기들의 리상인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로 매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성, 모든 나라 근로자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 호상 협조와 호상 원조, 사회주의적 인도주의와 같은 사회주의 도덕을 지배적인 것으로 되게 하였다.

도덕의 기본 내용으로 되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관계, 인간에 대한 인간의 관계의 립장

에서 사회주의 도덕과 부르조아 도덕의 차이는 무엇인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에 대한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부르조아 도덕이 개인주의 원칙에 립각한다면 사회주의 도덕은 집단주의 원칙에 립각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이것은 부르조아 사회의 생존 조건인 만큼 부르조아지는 개인으로서도, 자기 계급의 성원으로서도 사'적 소유를 유지하며 그를 신성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며 부르조아 사회의 모든 사회 관계와 제도를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이와 같은 사'적 소유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서 사회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과 치부를 언제나 높이 내세우는 개인주의를 산생시킨다.

부르조아 개인주의의 립장에 의하면 일자의 리익은 반드시 타자의 손해로 되며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리익을 침해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모해하며 사회의 공동 재산을 탐오 랑비하게 된다.

이러한 부르조아 개인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첨예화됨과 함께 극단한 패덕주의에까지 빠진다. 오늘 미 영 제국주의 사상가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부르조아 개인주의는 로골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 침략 전쟁, 식민지 략탈을 파렴치하게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주의에 립각한 부르조아 도덕은 프로레타리아트에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그의 계급적 본성으로 보아 자체와 함께 온갖 피압박 인민들을 영원히 해방시켜 공동의 번영을 달성하는 것을 력사적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는 그들에게 있어서 비도덕적인 것으로 된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근로자들의 련대성, 사회적 의무에 대한 의식, 개인의 리익의 사회적 리익에의 적응 등을 자각하게 되며 개인주의 원칙의 야수성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사회주의가 승리하자 부르조아 개인주의와는 정 반대되는 집단주의 원칙이 지배적인 것으로 된다.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서의 집단주의 원칙은 사람들의 단결, 그들의 사회적 리익에의 충실성을 표현한다. 만일 부르조아 국가에는 전반적 리익이란 없고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억압, 착취만이 있다면 사회주의 국가는 전체 인민의 리익을 표현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의 리익이 국가의 리익과 일치하며 사회적 리익은 동시에 개인의 리익으로 된다. 때문에 매 개인은 사회적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리익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게 된다. 사회를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자기의 온갖 능력을 다하였을 때 참된 행복감을 체득하게 되며 이것은 사회를 위하여 헌신성을 발휘케 하는 중요한 도덕적 충동으로 된다.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불행으로 되는 개인주의 립장이나 지상에서의 고통의 대'가로 천국에서 행복을 받을 수 있다는 위선적 설교는 사회주의 도덕에서 본 행복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때문에 각자는 자기의 행동에서 개인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리익을 위한 복무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어느 개인이 자기의 개인적 리익 만을 생각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객관적으로 유익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는 아무런 도덕적 충동은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리익을 지침으로 삼는 행동 만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도덕적 행동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결코 개인의 리익의 침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주의 도덕은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만 그러나 결코 개인의 발전, 개성의 발전을 억제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를 다른 사람 보다 우에 내세우고 자기를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러한 개인과 투쟁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개인의 선진적 모범, 로력적 위훈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대한 도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개성의 발전, 개성의 자유라고 해서 부르조아적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초계급적, 절대적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독재와 민주를 분리시키며 당의 령도와 대중의 자체 활동, 조직 규률, 공동 생활의 규률과 개인의 자유 등등을 분리시키면서 대립의 통일과 호상 련계에서 사물을 관찰하지 않으려는 반동적 관념론적 견해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견결히 배격한다. 이러한 자유란 곧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며 당적 및 일체의 조직적 규률, 집단 생활의 규률을 거부하는 방자(放恣)로 된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개성의 자유는 어데까지나 그것이 혁명의 리익에, 계급의 리익에 복종되여야 한다.

주권과 생산 수단이 인민의 수중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자기의 리익 추구를 선차적으로 내세우는 개인주의적 도덕의 사회—경제적 지반이 기본적으로 소멸되였다. 여기에서는 근로자들의 단결, 그들의 사회적, 국가적 리익에의 충실성을 표현하는 집단주의 도덕이 지배적인 것으로 된다. 오늘 조선 인민은 사회적, 국가적 리익이야 말로 근로자들의 공동의 리익으로 되며 동시에 매 개인의 리익을 충족시키는 담보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사회적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난관과 애로에도 굴할 줄 모르는 적극적인 로동 태도를 가지며 국가의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하며 사회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는 데 혈연적인 리해 관계를 가진다. 때문에 그들은 반탐오, 반랑비, 증산 절약 투쟁의 선두에 서고 있다. 특히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고무되면서 근로자들은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 과제와 증산 과제를 초과 실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 적극성과 로력적 위훈들을 발휘하고 있다.

김책 제철소, 강선 제강소, 흥남 비료 공장을 비롯한 수 많은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일체 내부 원천을 동원 리용하며 국가 재정과 원료 자재를 애호 절약하기 위한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을 높임으로써 국가 계획을 빛나게 초과 완수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적, 국가적 리익을 증대시키는 길이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길이다. 이러한 사회적, 국가적 리익에의 충실성은 집단주의 사상에서 흘러 나온다.

집단주의 도덕의 표현은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도 볼 수 있다. 오늘 매개 조합원은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협동 경리의 장성 만이 그의 개인적 복리를 증대하는 중요 원천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나 많이 일하고 많이 받으면 그만이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개인주의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또 그것은 조금도 허용될 수 없다. 그들은 협동 조합의 리익이 결국 자기의 리익으로 되는 까닭에 만일 조합원 중에서 로동에 대한 소홀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견결히 반대하는 것이다. 즉 매개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자기 조합의 공동 리익을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개인의 리익만 고려하는 태도는 배격을 받고 집단주의 정신은 널리 배양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동 경리의 결과 개인 경리 시기에 비하여 농업 생산력이 급속히 제고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여 가고 있다. 조합을 조직하기 전에 평안남도에 빈농민이 약 35%가 있었다면 오늘에는 불과 5%미만으로 감소되였다는 사실이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집단주의 도덕은 지배적인 것으로 되였으며 전체 인민은 사회적 리익을 위하여 모든 정열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주의 도덕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이러 저러하게 표현되고 있는 바 이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제 사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나라 경제에서의 자본주의적 및 소상품 경제 형태가 부르조아 사상을 낳게 하며 더우기 남반부에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도당들이 부르조아 사상을 류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 난관에

부닥칠 때 개인주의적 잔재들은 소생하며 전파될 수 있다. 개인적, 물질적 관심의 원칙의 위반, 민주주의 원칙의 위반, 사회주의 사상 사업의 약화 등은 또한 개인주의 도덕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된다.

개인주의 도덕은 우선 당 및 국가 규률을 위반하며 개인의 향락과 안일을 위하여 국가 사회 재산을 탐오 랑비하는 데서 표현된다. 동지 호상간의 우의와 협조의 정신을 발양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만 원하는 개인주의는 필연코 출세주의와 자유주의를 동반한다. 이 자들은 일신의 출세와 공명을 위해서는 당의 정책을 외곡까지 한다. 이와 같은 개인주의는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엄중한 죄악으로 된다.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르조아 도덕이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꼬스모뽈리찌즘의 립장에 선다면 사회주의 도덕은 진정한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립장에 선다.

애국주의는 수백 수천년을 두고 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조국, 자기 인민, 자기 언어, 문'자 및 자기 민족의 우수한 전통에 대한 깊은 사랑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를 사랑함과 아울러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 고향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감정, 부모, 안해, 자식들에 대한 애정에도 표현되는 것입니다》(김 일성 선집 제3권 289 페지). 이 감정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조국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자기 조국을 위하여 헌신성을 발휘케 하는 심각한 도덕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착취 계급들이 지배하는 사회 제도하에서는 인민들의 애국적 감정은 충분히 발양될 수 없으며 일정한 제한성을 가진다. 여기에서의 인민들의 애국적 감정은 주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 투쟁하는 시기, 당해 사회, 정치 제도에 대한 반항시에 발휘되였다. 례컨대 우리 나라에서는 수양제 대군을 물리치던 시기, 거란의 대군을 물리치던 시기, 왜적을 반대하던 7년간의 임진 조국 전쟁 시기 19세기 후반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구미 자본주의 제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 일제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투쟁, 특히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 무장 투쟁 등등에서 인민 대중은 자기 조국을 수호하는 데 거대한 애국심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인민 대중은 국가 및 사회 활동에 참가할 수 없었고 지배 계급은 인민들의 애국심을 자기의 탐욕적 리익에 리용하는 까닭에 애국적 감정은 저해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직 로동 계급의 지도하에 근로자들이 주권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으로 된 사회 제도하에서만 애국주의 감정은 완전히 발전할 수 있었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결과 쏘련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조국을 창건하였으며 그후 구라파,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근로 인민의 진정한 조국을 창건하였다. 이 나라들에서는 조국의 리익과 계급의 리익이 일치하며 근로자들의 자기 조국에 대한 헌신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일치한다.

제국주의 부르조아지는 최대한의 리윤 획득이 자기의 목적임으로 이를 위해서는 조국과 인민까지도 서슴치 않고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먹는다. 이와 같이 부르조아지에게는 조국에 대한, 인민에 대한 사랑이란 없으며 오직 자본에 대한 애착 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도 부르조아 도덕의 야수성이 표현된다.

근로자들의 조국에의 복무는 그들의 국제적 련대성과 분리할 수 없다. 즉 진정한 애국주의는 국제주의와 불가분리적 관계에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란 일체의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과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각국 프로레타리아트 및 근로자들의 국제적 친선 단결의 사상이다.

각국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 나라 부르조아 제도를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민족적 범위 내에서 투쟁을

전개한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투쟁을 다른 나라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과의 련관 밖에서 생각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자국의 부르죠아지 뿐만 아니라 타국의 부르죠아지도 또한 그들의 적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만국의 프로레타리아트 및 근로자들의 근본적 리해 관계의 공통성이 나온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가 처해 있는 위치로부터 또는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리해 관계의 련대성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자본의 집중이 증대하면 할수록 프로레타리아트는 더욱 조직되며 장성한다. 자본의 국제적 련결이 발전됨에 따라 이 자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증대된다.

일련의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전복되고 근로자들의 주권이 확립된 후에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더욱 거대한 력량과 의의를 갖게 되였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형제적인 호상 방조하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간책으로부터 자기 나라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수호하고 있다. 국제주의 기치하에 오늘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은 자본과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식민지 및 예속 국가 근로자들은 해방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결코 애국주의와 상반되지 않는다. 자기 조국에 대한 근로자들의 진정한 사랑, 계급적 및 민족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자기 조국의 보위 및 그에 헌신성을 표현하는 애국주의와 다른 나라 근로자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 평화,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국제주의와 호상 련결되여 있다. 때문에 프로레타리아트의 공통적인 국제적 리익과 매개 사회주의 나라의 민족적 리익과는 완전히 일치된다. 따라서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나라 인민과의 친선이 있을 수 없으며 다른 나라 인민과의 친선이 없이는 자기 조국을 사랑할 수없다. 이것은 조선 인민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뚜렷이 실증되였다. 조선 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여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호하는 애국적 투쟁이였으며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국제주의적 투쟁이였다. 또한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의 기치를 들고 조선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 지원군의 투쟁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에 충실한 모범으로 되는 동시에 자기 조국을 보위하는 애국적 투쟁이였다.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는 공산주의 투사들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원칙이다.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도덕적 의의는 공산주의를 위한 투사들이 자기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민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까지도 귀중히 여긴다는 데 있다. 이들은 모든 사회가 인민들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서 조직되기를 원한다. 때문에 공산주의 투사들은 어떠한 인종적 및 민족적 특권이나 압박도 용허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도덕적 특징은 전 세계 평화, 민주주의, 사회주의 및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 계급에게 관통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꼬스모뽈리찌즘으로써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사상을 마비시키고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자기 민족의 리익을 다른 민족의 리익과 대치시키며 또 민족들의 접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렬시키고 제 인민의 친선을 파탄시키는 부르죠아 민족주의를 자기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무기로 리용한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민족적 감정을 리용하면서 《분렬하여 통치하라》라는 구호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 민족적 분렬을 장려하면서 이들은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 속에 불화를 조성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현 시기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억압, 미제를 비롯한 세계 제국주의 진영의 전 세계 노예화 계획 등은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추악한 발현인 바 이러한

사상과 태도를 그들은 도덕적인 것으로 설교한다. 이와 같은 사상은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친선 단결을 도모하는 국제주의 사상과는 정반대로 된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함께 자기 조국, 민족적 감정, 전통 등을 포기할 것을 설교하는 꼬스모뽈리찌즘의 반동 사상을 또한 도덕적인 것으로 설교한다. 이들은 세계 인민에게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마비시키며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게 하려는자들이다. 결국 《아메리카식 생활 양식》에 따르라는 반동 사상이다.

민족주의와 꼬스모뽈리찌즘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의 량면이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세계를 제패하고 다른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독소를 설교하며 동시에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그의 민족적인 것을 제거시키려는 꼬스모뽈리찌즘적 독소를 선전한다. 이와 같이 꼬스모뽈리찌즘과 민족주의는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애급에 대한 영, 불 식민주의자들의 무장 간섭에서,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 음모에서 참패를 당한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 근동 지역에서 전쟁 준비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아이젠하워주의》를 류포시키며 사회주의 진영 내에 불화를 조성하며 특히 세계 근로자들 속에서 쏘련의 위신을 훼손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악랄한 책동에 발맞추어 최근 리 승만 도배는 미제의 사촉하에 《북진》 소동을 발광적으로 선동하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파괴 책동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선 인민은 민족주의적, 꼬스모뽈리찌즘적 반동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며 세계 근로자들의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일체 평화 애호 인민들과 단결을 튼튼히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 및 근로 인테리겐트들의 창조적 로력에 의해서 쟁취된 모든 성과, 과학 및 문화분야에서 달성한 성과에 커다란 긍지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리 승만 도당들이 남반부에서 우리 조국을 영구히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책동에 대한 증오심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파괴 책동에 대해서 조국의 적극적 방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조국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나라 과거의 애국적 전통에 대한 존중 및 그의 계승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외래 침략자들과 국내 반동들에 대한 인민 대중의 애국적 투쟁의 전통, 유구한 과학 문화의 전통, 아름다운 도덕적 미풍 등을 가지고 있는 바 이것들은 오늘 새로운 조건하에서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는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애국심을 마비시키며 아메리카식 생활 양식을 강제로 부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족적 량심이란 털끝 만치도 없는 미제의 주구 리 승만 역도들은 타락 부패한 생활 양식과 살인 강도와 동물적 야욕의 만족을 설교하는 영화나 소설을 보급시키는 데 광분할 뿐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 감정이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미국식 생활 양식을 강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인도주의와 부르죠아적 인간 증오 사상

인간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르죠아 도덕이 인간 증오 사상에 립각한다면 사회주의 도덕은 사회주의적 인도주의에 립각한다.

사회주의적 인도주의는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 인간의 노예화에 대한 증오를 표현한다.

그러나 착취와 억압에 의거하여 생존하는 부르죠아지에게 있어서 인도주의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부르죠아 사회의 사회 관계는 자본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간이 물질적 부의

생산 과정에서 적용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의 총체로서의 로동력은 어떤 사회 형태 하에서도 생산의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오직 자본주의 하에서만 로동력은 상품으로 된다. 부르죠아지에 의한 로동자의 고용이란 결국 로동력이라는 상품의 매매에 불과하다. 부르죠아지는 프로레타리아트를 고용한 다음에는 그의 로동력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러한 행정에서 부르죠아지의 자본의 증식이 진행되며 잉여 로동에 대한 착취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부르죠아지의 탐욕적 리익은 프로레타리아트를 아사케 하거나 혹은 류혈적인 전쟁에까지 몰아 넣게 된다. 인간의 가치를 존중히 하는 인도주의를 운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부르죠아 사상가들 중에는 《인도주의》의 외피를 쓰면서 《자선》, 《박애》, 《사랑》 등의 문구로서 자기들의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한다. 그러나 오늘 많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이러한 《인도주의》의 가면까지도 집어 던지고 로골적으로 전쟁을 찬양하며 인간 증오 사상을 선전하고 있다. 조선 인민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도시와 농촌에 대한 야만적 파괴, 평화적 주민에 대한 폭행 학살, 세균 무기의 사용, 포로 수용소에서의 전쟁 포로의 잔인한 학살과 같은 행동을 감행하는 등 초보적인 인간성까지 유린하였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인간 증오 사상과는 반대로 사회주의 도덕에서는 사회주의적 인도주의가 대응한다.

과거의 선진적 인사들 중에서 인도주의는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옹호하며 노예화를 반대하는 항의 등으로써 표현되였는 바 이는 일정한 진보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현실적으로 가장 위대한 가치로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뿐이다. 여기서는 인간은 착취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인간 관계는 동지적 협력 관계로 되였으며 매개인은 자기의 온갖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였다.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자기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기의 로력 여하에 의하여 측정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인간은 착취 관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가치에 대한 감정을 가진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도 존중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하에서 인간은 관료주의나 아첨, 기생과 같은 현상들과 투쟁하여야 하며 또한 사람들에 대한 조롱, 표리부동, 위선, 불량 행위 등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은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분리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는 반드시 그의 능력과 력량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는 바 여기에 인도주의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신뢰는 결코 그의 약점과 결함에 대한 무원칙한 타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는 결함에 대한 비판과 높은 요구성을 전제로 한다. 즉 인간을 신뢰하고 존중함과 함께 그가 옳게 행동하게 하며 결함의 시정을 요구하며 그 결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에 대한 요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요구성과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에게는 인간에 대한 배려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인간 호상간에 증오하고 멸시하며 호상 거리를 멀게 하려고 애쓰는 인간 관계에서의 반목과 리간을 전제로 하는 부르죠아적 비인도주의 원칙이 지배한다.

사회주의적 인도주의는 자기 조국의 배반자,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에서도 표현된다.

오늘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인류를 새 세계 전쟁에 몰아 넣으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오심 없이는 자기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된다. 때문에 원쑤, 조국의 배반자들에 대한 증오는 더욱 인간을 고상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원쑤에 대한 증오는 사회주의 도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

그러나 조국과 인민과 당을 배반하고 반혁명의 길로 나갈 때는 이를 동지로서가 아니라 원쑤로서 대하여야 할 것이다. 미제 고용 간첩인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의 청산은 미제와 그 주구 리 승만 도당에 대한 증오와 함께 계급적 원쑤에 대한 증오의 발현이였다.

해방 전에 우리 로동 계급을 비롯한 수 많은 근로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예속 자본가들에 의하여 2중 3중으로 압박을 당하였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갖은 탄압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광명한 앞날을 믿고 자기의 삶에 대한 영예를 간직하면서 원쑤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이를 증오하였다. 이와 같은 착취자들에 대한 투쟁과 그들에 대한 증오 속에는 인민에 대한 고상한 인도주의 정신이 담겨 있었다. 또한 우리 인민에게는 년장자들에 대한 존경, 근로하는 정신, 도의심, 대담성, 겸손성 등과 같은 수 많은 인도주의적 요소들이 있었는 바 이것들은 오늘 새로운 조건 하에서 새로운 도덕적 내용으로 담겨져서 계승 발전되고 있다.

가증스러운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매개 근로자는 실제적으로 자유롭게 되였으며 인간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호상 협조와 우의의 정신으로 관통되였다. 여기에서 인간은 가장 귀중한 보배로 되며 그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고상한 도덕적 요구로 된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중요시하나 사업 행정에서 발로되는 오유와 결함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충고와 비판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의 귀중한 인도주의 정신이다.

인도주의 정신은, 군중 로선에 립각하지 않고 정당한 비판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고 자대하거나 혹은 웃사람 앞에서는 그의 결함을 알면서도 비판하지 않고 맹종 맹동하는 행위와는 결코 량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일부 일'군들의 작풍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를 형성시키는 바 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막대한 지장으로 된다.

현 시기 미제와 그 주구 리 승만 도당이 극단으로 패덕주의를 설교하며 로골적으로 《북진》 나발을 불며 식인종적인 인간 증오 사상을 발광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만큼 이 적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 원쑤들에 대한 일상적인 혁명적 경각성은 극히 중요하다. 혁명적 경각성은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있는 안일성, 연약성, 소극적인 련민,악에 대한 무저항 등과 무자비하게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은 원쑤에게 유리하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이나 인도주의 정신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계급의 원쑤나 인민의 원쑤에게도 적용하게 된다면 엄중한 과오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과 지주의 예속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이미 그들에 대한 증오와 경각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의 원쑤, 혁명의 원쑤에 대한 증오와 각성을 계속 제고하며 어떠한 반동의 선전에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그를 제때에 분쇄하며 자기의 립장을 고수할 줄 알게 하는 계급적 교양을 더욱 높여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 우리는 인간에 대한 참된 존중과 배려, 원쑤에 대한 무자비한 증오를 배양하는 사회주의적 인도주의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행동하는 혁명 일'군으로 될 수 있다.

* *

이상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도덕이 부르죠아 도덕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르죠아 도덕은 멸망에 처해 있는 낡은 자본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복무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 사상과 인간 증오 사상을 고취하며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꼬스모뽈리찌즘을 그의 사상적 무기로 리용한다. 특히 이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도덕을 전체 인민의 도덕인듯이 허위 날조하

여 인민 대중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오늘 남반부에서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부르조아 도덕이 유지, 선전되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부르조아 도덕은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인민이 주권을 장악한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부르조아 도덕은 필연적으로 멸망하며 사회주의 도덕이 그에 대체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 도덕은 인류 력사에서 가장 고상하며 가장 인간적이며 인민적인 도덕이다. 왜냐 하면 이 도덕은 가장 선진적인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리해 관계를 잘 표현하며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회 발전 법칙에 가장 완전히 적합하며 모든 선행 도덕 가운데서 인민적 내용을 가진 우수한 전통들을 체현한 도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주의 도덕은 집단주의 원칙에 립각하며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사상으로 관통되고 사회주의적 인도주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고상한 도덕이다.

우리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부르조아 도덕의 잔재들과 날카롭게 투쟁하며 반드시 사회주의 도덕의 원칙에 립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사회주의 도덕의 원칙이나 규범을 리해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실지 투쟁과 로동 속에서 사회주의 도덕의 정신으로 교양받는다. 즉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 선진 사상은 실천에 옮겨지며 리론은 행동으로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행동 규범은 도덕적 행동과 분리될 수 없다. 사회주의 도덕 원칙을 말로써는 시인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회주의 건설자로 될 수 없다.

사회주의 도덕 원칙의 정당성을 리해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때에 우리는 자기 앞에 부과된 과업을 영예로운 의무로 간주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제1차 5개년 계획 과업 수행의 성스러운 첫 걸음에 들어 섰다.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된 이 중대한 과업은 곧 우리 조국 발전을 위한 영예로운 의무로 된다. 이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리익의 사회적 리익에의 적응,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성, 모든 민족, 근로자들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 사회주의적 인도주의와 같은 내용을 가진 사회주의 도덕이 노는 역할은 극히 중대하다.

사회주의 도덕의 정신으로 우리 인민과 후대들을 교양하는 과업은 오늘 우리 당과 전체 인민 앞에 제기된 중대한 과업의 하나로 되고 있다.

특히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 되는 조선 로동당의 영예로운 당원들은 솔선 사회주의 도덕을 준수하며 그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선봉대적 역할을 놀아야 할 것이다.

연암 박 지원의 철학 사상

신 남 철

그의 선진적 사상 발생의 력사적 환경과 사상적 근원

연암 박 지원(1737, 영조 13년——1805, 순조 5년)의 선진적 유물론적 철학 사상이 형성되게 된 력사적 환경은 임진 왜란(1592—98)과 병자 호란(1627) 이래 더욱 격화 발전한 리조 봉건 사회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및 사상 문화적 제 모순에 의하여 설명된다. 즉

첫째로, 이 시기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맹아가 호릿하게 나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두 차례에 걸치는 외적의 침입에 의하여 국토는 황폐화되고 농업 생산력은 파괴되고 인구는 감소되였으며 인민의 생활은 극도로 빈궁하여졌다. 그리하여 봉건 리조의 통치 제도의 경제적 토대는 현저히 약화되였다. 그러나 봉건 지주들의 농민 수탈은 그럴수록 가혹하여졌다. 리조 통치 계급은 봉건 지주와 농민간의 더욱 더 격화해 가는 모순을 미봉해 보려고 공물 제도를 폐지하고 17 세기 말부터 18 세기 초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대동법(大同法)(주)을 실시하게 되여 개인 수공업과 광업 기타의 생산이 약간 활기를 띠게 되였다. 특히 18 세기 전반기에는 혹심한 착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애국주의적 투쟁에 의하여 농업 생산력이 상당한 정도로 복구 발전되였다.

(주) 대동법은 궁중(宮中)과 국가에 바치는 각종의 현물세를 미곡으로 통일하여 처음에는 1결(結)에 16두(斗)씩 받다가 나중에는 12두로 한 대동미법(大同米法).

리조 봉건 국가는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자기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 생산품을 사서 쓰게 되였으며 그러기 위하여 화폐의 주조와 그 류통이 광범하게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상품 류통이 촉진되였고 상업의 발전을 보게 되였다. 연상(燕商——청나라와 무역한 상인), 만상(灣商——의주 상인), 송상(松商——송도 상인)들의 활약은 대청(對淸) 무역과 국내 상업을 촉진시켰다. 물론 봉건적 착취 때문에 산업 자본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으나 상품—화폐 관계의 발전에 있어 일정한 긍정적 역할을 놀았다.

이 대동법의 실시와 화폐의 주조에 의하여 초래된 상품—화폐 관계의 발전은 봉건 국가의 세입을 증가시켰으며 두 차례의 전쟁에 의하여 입은 농업과 수공업의 상처를 일정한 정도로 회복시켰으며 그리하여 우리 나라 사회 경제의 발전에 대하여 큰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즉 농업 생산과 수공업자들의 단순 상품 생산의 총량이 증가되여 상품 수요와 류통이 증대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에도 전후 시기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봉건 지주들의 착취는 더욱 강화되여 농민의 각종 형태의 투쟁이 격화되여 갔다. 상품 화폐 류통의 발전은 지주와 고리 대금업자들의 파렴치한 치부욕을 더욱 자극하였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생을 조건지어 주었다. (중국에서는 명대 후반기에 벌써 그 맹아가 중국 동남부에서 발생하

였으며 청대의 건륭 시대—18 세기—에는 그것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상업 자본과 고리대 자본 및 봉건 국가는 서로 결부되여 농민들을 착취하였다. 당시의 상업 자본은 미약하게나마 자립적인 것이였으나 기본적으로는 봉건 국가의 수중에 예속되여 있었다. 이리하여 상업 자본이 반봉건적 부르죠아적 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이 제약되였다. 생산력은 발전하였으나 마누팍뚜라의 형성에 이르기까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상품—화페 관계의 발전은 리조 봉건 사회의 경제적 토대에 발생한 심대한 모순과 위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으나 동시에 지주 대 농민간의 모순이라는 리조 봉건 사회의 기본 모순을 격화시키는 자기 모순에 빠졌으며 18세기에는 연암의 《허생전》에 반영된 변산(邊山) 농민 폭동을 비롯한 허다한 농민 투쟁이 일어났으며 그 투쟁은 봉건 관료 계급 내부의 모순과도 결부되였다.

영조—정조의 통치 시대(英 正 時代, 1724—1800)는 표면상 《태평 시대》인듯 하였으나 사실에 있어서 사회적 모순이 내공하여 격화되는 시기이였으며 청 나라와의 접촉으로 류입된 과학과 사상상의 자본주의적 요소는 상품—화페 관계의 발전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 국내의 미약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생에 일정한 자극제로 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에 선진 과학과 사상의 도입과 선전 및 인민 생활을 위한 개물성무(開物成務)의 주장은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둘째로, 정치적인 관계에서 동 서 남 북의 사색 당쟁이 격화되였다. 봉건 리조 초기의 통치 계급 내부의 훈구파(勳舊派)와 사림(士林)간의 모순 투쟁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사색 당쟁으로 전화되여 봉건 리조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권력의 쟁탈전은 정명 사상(正名思想)과 례론(禮論)을 표면상의 리유로 하였으나 그것은 봉건 귀족 내부에 발생한, 대지주가 되여 소위 공명과 사치를 누리기 위한 파쟁이였다. 이 파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관념론적 정주학의 교조에 정통하고 형식주의적 시부(詩賦)에 능숙하여 과거(科擧)에 급제하여야 하며 씨족적 종법(宗法) 제도에 복종해야 하였다.

봉건적 신분 제도와 위계 제도(位階 制度)를 법제화하며 세습화하는 것은 봉건 량반 계급 내부의 소수의 지배를 확립함에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한 봉건 귀족적 지주 집단의 정권을 확고히 하려고 하였다. 그 몇개의 지주 집단인 사색 당파들은 비록 변발(辮髮)과 호복(胡服)은 하지 않았으나 내면은 소위 존명 대의(尊明大義)에 사로잡히여 불복이면서도, 강대한 만청에 대한 사대(事大)로써 조국의 영예와 민족적 긍지를 포기하였다.

연암이 자기 저작의 도처에서 정권을 잡은 소위 사대부들의 무능과 위선, 기생 생활을 조소하며 풍자하면서 부국 강병을 웨친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세째로, 선진 과학 지식과 사상의 전래이다. 당시 명말 청초에 걸쳐서(17세기) 구라파의 자연 과학 지식이 중국에로 전래하였고 그것에 의하여 중국의 천문 력학(曆學), 수학, 지리, 생리, 농경 수리(水利), 공예, 병기 등 각 방면의 실리 실용의 학문이 발전하였다. 그러한 과학 지식과 문명의 리기(利器)들이 봉건 리조 정부가 만청 정부에 파견한 이러저러한 명목의 사행(使行)에 의하여 조선에도 전래하여 왔다.

17—18세기에 걸치는 구라파의 과학 기술 지식이 예수교—천주교의 전도에 묻어들어오게 됨과 아울러 량반 출신의 선진적 지식 분자들은 조국의 위기를 구출하기 위하여 유교적 교조와 형식을 반대하면서 천원 지방(天圓地方)의 반과학적 자연관대신에 지원지동(地圓地動)의 과학적 진리를 확신하게 되였다.

이것은 당시 리조 봉건 사회의 위기와 극히 미약하나마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생이라는 조선 사회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결합된 것이였다. 리조 봉건 사회가 자기 모순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당면한 임무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합법칙성은 새로운 과학적 리론을 요구하게 되였던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사회적 사상, 리론 및 과학 지식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발전이 사회 앞에 새 임무를 제기한 뒤에라야 그 반영으로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암 박 지원은 자기의 허다한 서(序)와 기(記)와 론(論)과 서(書)들에서 특히 《열하 일기》중의 《곡정필담》(鵠汀筆談)에서 우선 객관적인 사물의 실태를 정확히 관찰할 것과 온갖 종류의 미신 사상을 반대하여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조선 사대부들에 의하여 더욱 신비화된 교조로서의 정주(程朱)의 관념론적 성리학(性理學)을 배격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륭성 발전과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을 위하여 《과농소초》(課農少抄)에서는 농업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농구들과 영농 방법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를 밝히려하였으며 《한민명전의》(限民名田議)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밝히려 하였다.

그가 《과농소초》의 서론 부분인 《제가총론》(諸家總論)에서와 《홍범우익서》(洪範羽翼序)에서 중국 사상가들의 과학 사상, 특히 농경 과학과 음양설(陰陽說)에 관한 견해를 연구하며 그들의 음양설의 관념론적 신비적 외피(外皮)를 벗겨버리고 그것을 농경 활동과 결부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사회 생활의 물질적 제 조건의 개혁을 위하여 과학 기술 지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였던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또한 조국의 선행한 선진 사상가들의 실용 실학적 제 견해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실학의 선구자들인 한 백겸(韓 百謙 1552—1615), 리 수광(李睟光 1563—1628), 류 형원(柳馨遠 1622—1673)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리 익(李, 瀷1682—1764), 홍 대용(洪大容, 1731—1783) 등의 유물론적 자연관과 실학적 사회 정치적 견해들이 박 지원의 유물론적 자연 과학 사상과 사회적 견해의 형성을 조건지였다.

이와 같이 조선 사회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구라파와 중국의 선진적 과학 기술 지식의 전래가 호상 통일된 기초 우에서 유물론적 자연 과학 사상이 발생한 것은 연암의 직접적 선행자인 김 석문(金錫文, 1680년경 서거)과 홍 대용에게서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박 지원은 열하 일기 중의 <태학 류관기>(太學留館記)와 <곡정필담>에서 김 석문의 <삼환부공지설>(三丸浮空之說)과 홍 대용의 지구 지전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근대 조선에 있어서 유물론적 자연관의 발생은 사회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실사구시적 정신의 발생과 불가분이다. 실사구시 정신은 곧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 합법칙성의 연구를 의미한다. 영조 5년(1729) 량 득중(梁得中 1665—1742)이 실사구시 정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왕에게 진언한 것은 단순히 청의 고증학(考證學)에서 그것을 본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선 자체내에 그 정신을 요구하는 경제 발전의 조건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17—18세기 중국 중요 사상가들이 유물론적 사상으로써 만청(滿淸) 통치 계급의 지배적 사상 도구이였던 정주학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며 인민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을 반대한 사상 투쟁이 일정한 정도로 조선의 선진 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세 조선의 국가 사회 생활 자체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면 사문란적으로 몰리는 정주학을 반대하는 인민을 위한 일용경세(日用經世)의 학이 요구되였던 것이며 그것에는 농민의 념원이 반영되여 있었다.

박 지원은 진지(眞知)와 실천(實踐)을 경시하는 공리공담의 말학(末學)을 반대한 리 수광 이래의 조선 근대 유물론적 실학 사상을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계승하여 통치적 량반 귀족들의 무내용한 관념 유희에 리용된 성리학을 반대하는 투쟁의 전면에 나섰던 것이다.

같이 종래의 반과학적인 천원 지방설을 반대하고 지구 지전설을 전개하였다. 물론 이 사상은 그의 창조는 아니다. 그의 선행자들이 벌써 이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은 상술한 바다. 그 진리는 세계에서 최초로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확증되였던 것이다 박 연암은 구라파와 중국의 선진 자연 과학지식을 섭취하고 자기의 사색으로써 천지(자연)는 하나의 법칙에 의하여 운동하며 그것은 미세한 물질 원소로서의 먼지(塵)로써 구성되여 있다고 주장하였다(곡정필담). 그는 땅은 극히 미세한 먼지의 집적인 것이며 그것은 원구(圓球)이고 원구인 것은 도는(回轉)것이니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것은 가장 자연한 리치이라고 주장하였다. 먼지가 서로 엉키고 의지하여 흙이 되고 모래가 되고 굳으면 돌이되고 먼지들의 진액은 물이되며 더우면 불이되고 움직이면 바람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곡정 필담》에서 먼지가 더위에 뜨고 기운이 북바치면(塵蒸氣鬱) 일종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여 각종의 《벌레》——생물이 발생하며 그 벌레의 가장 진화 발전한 것이 인류라는 벌레의 일종이 발생한다는 력사주의적 진화론적 우주 창생론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자연이 자체로서 존재하며 운동 변화한다는 견해는 신——조물주 또는 절대 정신 등에 의하여 우주 자연이 창조되였다는 관념론적 우주 발생론을 배격한 유물론적 무신론적 견해이다. 그것은 **유기체 생명**의 발생이 무기 물질의 자기 운동의 긴 력사적 과정의 한 단계에서 질적 변화에 의하여 합법칙적으로 진행되였다는 탁월한 사상이다. 《진증기울》이라는 그의 표현은 극히 미세한 물질 원소로서의 먼지의 자기 운동과 자기 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의 자연 과학 발전의 세계사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견해가 소박한 성격을 면치 못하나 유물론적 무신론적인 천재적 착상이며 그와 같은 견해는 조선의 선행자들에게서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이였다.

그는 《담연정기》(澹然亭記)와 《열하일기》 중의 《상기》(象記)에서도 천(天)과 천의(天意) 또는 신(神)의 관념을 부인하였다. 우주 자연은 자기의 본래적인 자연 필연성을 가지고 자기 운동을 하는 것이며 결코 천의 의지와 명령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 하도 많은 사물 현상을 《어떻게 하늘이 다 명령을 해서 냈을가부냐》하고 연암은 반문하였다. 그는 또 주관적 관념이 사물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불교와 예수교를 비교하여 불교는 허탄하고 황당하여 결국 환(幻)한자에 그치는 것이며 예수교는 본래부터 불교 리론의 찌꺽지를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왕곡정》의 입을 빌어 말하고 있다.

그는 철학의 기본 문제를 유물론적으로 해결하면서 환상적 종교적 세계관의 반 과학성을 배격하였다. 그는 《열하일기》 중의 《황교문답》(黃敎問答)에서 부패한 유학자들의 허위적인 공리 공담을 신랄하게 규탄하면서 종교를 자기의 통치적 사상 도구로 리용하는 만청 귀족들의 반인민성과 반동성을 조소하며 야유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객관적 정신적 실재를 부인하고 자연 그 자체의 일차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합법칙적 운동의 인식만이 사물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청조 고증학자들의 실사구시 정신이나 조선 실학자들의 리용 후생에 관한 실천적 리론이나 다 정신에 대한, 자연, 사유에 대한 실재의 일차성을 주장한 유물론적인 명제인 것이다. 박 연암에 있어서의 리용 후생의 사상도 곧 정신에 선행하는 자연의 운동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며 그것을 사회 생활에 리용하자는 학설인 것이다. 《담연정기》(澹然亭記)에서 그는 《천(天)은 원래 무궁 무한한 것이며 자연 그대로 사시가 운행되여 그 순서를 잃지 않으며 만물이 그 순서대로 맡은 책임을 어기지 않을 뿐이다. 하늘——우주 자연이 무슨 신의(信義)를 지키기에 뜻이 있어서 사물의 뒤꼬리를 좇아 다니면서 재고 닫고 할 것인가》고 말하였다. 이것은 철학의 기본 문제를 유물론적으로 해결한 연암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고 자명한 진리였다.

박 연암이 철학의 기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고대 중국의 소박한 유물론인 오행설(五行說)을 외곡하며 신비화한 유가학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五행이라는 것은 하늘이 준 것이며 땅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얻어서 리용하는 것(得以資)**이다. 그것은 리용 후생의 도구이며 그 작용인즉 적당히 조화하여 키우는 공(功)일 따름이다》 (홍범우익서)라고 하면서 한유(漢儒)가 그것을 신비적으로 외곡하여 음양 복서(陰陽卜筮)와 참위(讖緯)의 황당 무계한 미신과 결합시키며 나아가서는 오행 상생(五行相生)의 설을 만들어 낸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연암은 《범의 꾸중》(虎叱)에서도 《음양 오행설》에 대하여 신랄하고 무자비하게 배격하고 있다.

연암의 그와 같은 견해는 객관적 사물이 인간 정신보다 선차적으로 자체로서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합법칙성을 인식하며 그것을 리용한다는 사상과 불가분인 것이며 그 객관적 사물들은 호상 련계되여 있는 것으로서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만물은 토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거든 어찌 홀로 금만을 낳으며 모든 금속은 불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니 어찌 꼭 토에서만 나온다고 하겠느냐고 하였다. 그와 같이 강하(江河)의 물이 홀로 금에서 나온다는 것도 잘못이며 불은 쇠와 돌이 서로 부딪쳐서도 발생하거든 어찌 나무에서만 나온다고 하겠느냐고 하면서 모자(母子)관계와 같은 그러한 상생(相生)관계가 아니라 모든 물질은 다 호상 련계와 호상 작용 속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그와 같은 객관적인 진리와 법칙을 옳게 인식하여 인간 생활에 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홍범 구주(洪範九疇)의 리치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미신화된 오행설을 반대하여 그것을 유물론적으로 리해하여야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서 유가 속학자들에 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그는 물질 원소에 의하여 자연 현상이 구성되며 발생한다는 것, 천과 천의를 부인한 것, 그리고 오행설에 관하여 과학적 해석을 줌으로써 철학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는 그 기본 문제 해결에 관한 연암의 사상에서 당시 조선의 자연 과학 발전의 락후성이 반영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유물론적 무신론적 사상은 그의 유물 변증법적인 운동관(運動觀)과 떨어져서는 그 과학성을 옳게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유물론적인 우주 창생론이 그 자체로서는 당시의 세계사적인 자연 과학 수준보다 소박하다고 하겠으나 그의 변증법적인 운동관과 통일적으로 고찰할 때 상당히 심각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연암은 물질—먼지라는 극세 미립자를 시원으로 하는 물질 세계가 영원한 운동 변화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자연 세계 뿐만 아니라 풍속, 륜리 같은 사회적 현상까지도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그는 《망양록(忘羊錄)》에서 천 즉 자연의 운동 변화와 지 즉 지상 사회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함축 있게 표현하였다. 즉 《성인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은 운(運)이다. 차고(盈) 이즈러지고(虧) 없어지고(消) 자라고(長) 하는 것은 하늘의 운이요 외롭고(孤) 허하고(虛) 왕성하고(旺) 서로 돕는 것(相)은 땅의 운이다. 오래 되면 변화를 생각하고(久則思變) 묵으면 새 것을 생각하고(舊則思新) 궁극에 도달하여 막히면 통할 것을 생각하는 것(窮則思通)은 운에 있어서 한개의 지음(際)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자연과 사회에 있어서의 운동 변화의 변증법적 성격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이라고 한 것은 운명론적인 어떤 불가지의 세(勢)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변화 발전의 자연 필연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오래고(久) 낡고(舊) 궁하면(窮)불가피적으로 변화와 전환을 가져오지 않을수없는 필연적 합법칙성이 곧 《운》인 것이며 그 합법칙성에 있어서의 변화의 계기(契機)가 곧 지음(際)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의 지음》은 신(新)과 통(通)을 지향하는 객관적 사물의 전진 운동의 계기인 것이요 복고(復古)나 순환(循還)을 의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암은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다시 예(舊)로 도라가서는 아니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곧 운동 변화가 전진과 전개를 자기의 본성으로 하는 것이며 단순한 기계적 복고적 순환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그의 확언에 의하여 더욱 명백하다. 즉 그는 《천지가 비록 오래나 부단히 생성 변화하며 일월이 비록 오래나 그 빛이 날로 새롭다. 서적이 비록 많다해도 그 뜻이 서로 다르다. 산천 초목에는 반드시 숨겨진 비밀이 있으며 썩은 흙에서 잔듸가 욱어지며 썩은 풀속에서 반디불이 생겨난다. 례(禮)에도 송사(訟事)가 있으며 음악에도 의론(議)이 있으며 글은 말을 다하지 못하며 그림도 뜻을 다하지 못한다》(초정집서).

이와 같이 자연과 사회의 모든 사물 현상은 다 발전적 운동 속에 있으며 자체 내부에 모순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부단한 운동 발전의 매개 단계는 선행 단계의 계승이며 또한 언제나 인식되지 않은 부지(不知)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또 그가 인식론에 있어서의 부지에서 지(知)에로의 사물 인식의 운동 과정을 암시한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변증법적 견해의 심각성을 또 보여 주는 다른 실례는 《과농소초》의 첫 부분에서 중국 마일룡(馬一龍)의 견해를 주석하고 있는 기(機)와 점(漸)에 관한 리론이다. 그는 자연 현상의 운동의 모순적 두 계기로 되는 음양이 호상 타자를 전제하며 호상 의존하면서 통일되여 있다고 보았다. (陰陽互爲其根) 아직 대립물로 전화하지 않은 상태(그것을 그는 《포함》—含—이라고 하였다)는 곧 타자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機)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타자로 변화한 것(變)은 곧 일정한 그 단계에서의 운동의 완성(그것을 그는 달—〈達〉—이라고 하였다)이요 그것은 또한 영원한 운동을 준비하며 시작을 개시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량적 진화의 시작으로 되는 것 (그것을 그는 점—(漸)—이라고 하였다) 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물 운동에 관한 변증법적 사색으로써 그는 음양이라고 하는 중국과 조선 철학에 있어서의 중요 개념으로부터 아직 완전히 신비적 외피를 벗겨 버리지는 못하였으나 자연 현상의 물질적 운동의 내면적 련계를 천명해 냈던 것이다. 그는 송(宋)의 소옹(邵雍)에서 볼 수 있는 이러 저러한 신비적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연암의 변증법 리론의 합리적 핵심은 적극적 의의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암은 자연 사물 현상의 운동의 법칙을 표현하는 생(生)과 성(成), 합(含)과 달(達), 점(漸)과 변(變)등의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이 호상 통일되여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개념들에 반영된 운동의 내용을 과학적 자료에 의하여 확증하지 못하였다. 생물학, 화학, 력학의 실례로써 론증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과학 발전의 수준이 미약하였던 것과 관련되는 점이다.

자연 사물 운동의 개별적인 형태에 관한 과학들이 17, 18세기 구라파에서 발전하였다. 매개 과학이 각각 자기의 령역 내부에로 만 침투해 들어가면서 채취와 분류와 분석에 치중한 결과에 매개 운동의 전체적 련관 관계를 보지 못하였고 따라서 형이상학이 발전하게 되였던 것이다. 형이상학의 출현은 과학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인 긍정적인 것이였다.

근대 유물론이 변증법과 유물론과를 통일시키지 못한 것이 자본주의와 자연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긴밀히 결부되여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유물론은 유

물론 발전의 력사에 있어서 고대의 변증법적인 요소를 가진 소박한 유물론보다 높은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출현과 과학의 가일층의 발전에 의하여 형이상학적 유물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하여 극복되였던 것이다. 박 연암의 유물론이 변증법적 요소를 극히 풍부하게 가지면서도 유물론으로서 소박성을 면치 못한 것은 봉건적 사회 경제적 토대와 자연 과학 발전의 락후성 때문이다.

연암에게는 객관적 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상에는 발전적 운동 변화, 호상 련관, 호상 작용, 점진과 비약, 부정과 계승, 호상 전화에 관한 변증법적 사색이 상당히 풍부하게 포함되여 있다. 그러나 봉건 사회의 락후성과 자연 과학 지식의 불충분성은 그의 유물론과 변증법을 통일시키지 못하였으며 철저한 전투적 실천적 성격을 띨 수 없게 하였다. 그는 변증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대립물의 모순 투쟁과 그 변증법적 통일에 관한 리해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유물론으로 하여금 소박성과 관조적 성격을 띠게 하였다

그의 유물론이 전투적 철학적 유물론에까지 되기에는 조선 사회의 가일층의 발전이 요구되였던 것이다. 즉 혁명적 계급의 출현을 보지 못한 그의 시대의 력사적 제한성은 그의 세계관에 있어서의 유물론적 변증법적 계기들을 철학적으로 통일시킬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레닌이 겔첸에 대하여 말한 바와 같이 연암의 력사적 불행이였고 그의 과오는 아니였다. 그는 맑스주의 발생 이전에 있어서의 유물론의 제 행태가 가지는 모든 제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은 그 내용의 풍부성과 다채성에 있어서 그가 생활한 력사적 조건에 비하여 높은 형태의 유물론이였다.

그의 인식론은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으나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이 륜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의 유물론적 인식론의 륜곽을 그의 《능양 시집서》(菱洋詩集序)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그는 《사물의 리치에 통달한 선비(연암은 그것을 달사—達士—라고 말하였다)에게는 괴어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세속 사람(연암은 그것을 속인—俗人—이라고 말하였다)에게는 의심스러운 일이 하도 많은 것이니 그것은 그가 옳게 보는 것이 적고 괴이하게 역이는 것이 많은 까닭이다. 어찌 달사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물 (연암은 그것을 물—物—이라고 했다)을 쫓아 다니며 자기 눈으로 보기야 하랴》(逐物而目覩)고 하였다. 이 말은 곧 객관적 사물이 감각적 지각을 통하여 리치(본질)에 통달하는(인식하는) 사유 작용의 의의를 강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달사는 《하나를 들으면 눈에 열가지를 형용(形)하고 열가지를 보면 마음에 백가지를 설정(設)하며 천가지의 괴이한 것과 만가지의 신기한 일이 사물 자체에 돌아가 부칠 뿐이요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還寄於物而已無與焉). 이것은 복잡다양한 객관적 사물 현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인식이 감각적 단계로부터 추상적 리성적 단계로 발전하면서 객관적 법칙의 인식에 접근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인식론의 기초도 객관적 사물의 다양성의 시인과 그것의 감각적 수용을 통하여 현상의 본질을 인식하며 지식의 내용이 확장되여 가는 과정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철학의 기본 문제를 정확하게 세우면서도 인식론이 극히 미약하며 초보적인 륜곽만을 제시한 것은 곧 당시 조선과 중국의 자연 과학——특히 생리학과 심리학의 발전이 락후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식론에 있어서의 유물론적 립장으로부터 인식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를 고찰하고 있다.

즉 그는 《초정집서》에서 옛 것을 토대로 하여 새것을 알며(法古而知新) 새것을 창설하여 능히 전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刱新而能典). 이 《법고》와 《창신》은 말하자면 변증법에 있어서의 계승과 부정, 량적 축적 과정과 질적 비약의 불가분의 관계를 언명한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법고 창신》의 리론은 중국 철학사에서——특히 공자의《온고지신》(溫古知新, 옛것을 습득하여 새 도리를 발견하는 것), 순자(荀子)의 《지지 유고》(持之有故, 사물을 인식하려면은 전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의 사상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 있으나 옛것의 전면적인 부정 우에 새 것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옛 것——낡은 것 속에서 합리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계승하는 변증법적 부정의 사상이 연암에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그리하여 질적 비약으로서의 창신(刱新)의 사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법고》와 《창신》은 호상자오(互相訾謷——서로 훼방하며 서로 어긋나는 상호 모순)하는 것이나 그것을 옳게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의 유물론적 세계관에 더욱 더 긍정적인 부분을 첨가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변증법적 부정의 사상을 그저 전연무의식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암은 유교 철학의 중요 명제들에 대한 자기 견해를 임형오(任亨五)에게 보내는 서신체의 론문인 한유(韓愈)의 저작《원도》(原道)를 토론하는 글에서 론술하고 있다. 심, 성, 정, 리, 기(心, 性, 情, 理, 氣)에 관하여 그는 종래 중국과 조선의 유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 저러한 리론의 범위를 특히 벗어져 나오고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는 이것들을 독자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였으며 또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주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심은》 오장(五臟)의 하나인 데 때리면 소리가 나는 종과도 같으며 불을 켜대면 타는 심지와도 같다 하면서 어떤 외계 사물에 의하여 촉발되여 영향을 받는 신체내의 기관으로 리해하였다.

그리고《성》은 본래 어디서나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선천적으로 선(善)한 것임은 불이 밝은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심》이 없으면 《성》은 깃드릴 곳이 없으니 《성》은 《심》에 다음가는 것이나 《성》이 없으면 《심》은 빈집(空舍)과 같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비유로써 《심》과 《성》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조선과 중국의 생리학과 심리학의 발전의 미숙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의 인식론이 륜곽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제기는 되였으나 전개되지 못한 것도 그와 같은 《심》과 《성》에 관한 소박한 비유적 견해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리(理)와 기(氣)에 관하여서도 그는 리 률곡의 견해보다 별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하겠으나 그것들을 철저하게 유물론적으로 리해하려고 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물론 그는 리를 기보다 선차적이라고 보는 리 퇴계의 주리론(主理論)을 반대하고 리 률곡의 주기론(主氣論)에 가담하고 있다. 즉 기는 사물 존재의 본질적 시원으로서 《만물이 산생됨에 있어 어찌 기 아님이 있으랴 천지는 큰 그릇인데 그것에 채워지는 것이 기라고 할진데 채우게 하는 것은 리다》라고 말하였다(萬物之生何莫非氣也天地大器也所盈者氣則所以充之者理也). 즉 기가 먼저이고 리는 나중이라는 것이다. 《기가 아니면 리를 볼 도리가 없다》(非氣則無以見理)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가 아니면 리가 살바가 없으며(非氣則理無所活) 리가 없으면 기는 곧 과객(우연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無理則氣是過客)고 하였다. 이는 곧 리와 기와의 관계를 세계의 객관적 물질적 시원으로서의 기와 그 운동의 법칙으로서 리를 리해하려고 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물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 화담, 리 률곡의 주기설에서 보는 우리 나라 유물론적 전통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 그는 리는 언제나 기를 타(乘)고 있는 것인 데 리와 기는 통일되여 천지 만물의 존재와 그 본질, 운동과 그 필연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생각한다.

연암은 천지 자연이 그 천지 자연으로될 수 있는 것은 곧 리, 기 때문이며 그 리, 기의 용성(容聲)(모양과 음성)이 언어라고 하였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운동함으로 그 용성에 근거하여(体)사람은 언어를 발한다. 즉 천하의 리치에 통하며 만물의 정(情)을 다하는 것이언어라고 하였다. 그럼으로 만물의 정(實情—상태)를 표현하는 언어는 곧 분별(分別—판단)이며(言語者分別也)그 분별의 주체인 인

간의 성(性)과 떠날 수 없다. 성은 인간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소질로서 청명순수(淸明純粹)한 심덕(心德)이며 그것은 곧 기의 산물이다. 《심이 없으면 성이 의지할 곳이 없고 성이 없으면 심은 빈집과 같은것》이니 기는 성의 존재 리유로되며 따라서 심과 리는 기와 성의 인식 근거로되는 것이다.

연암은 심, 성, 정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한유(韓愈)의 관념론적 견해에 의거하고 있다. 한유의 《성은 나면서부터 갖추어져 생긴것이요 정은 사물에 접하여 생긴 것이다》라고 하였다(원성편). 연암은 리, 기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유물론적이였으나 심, 성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관념론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 연암은 유교 철학에 있어서의 소위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인간의 성과 사물의 성과가 같으냐 다르냐 하는 론의)의 문제를 심, 성, 정, 리, 기에 관한 이상과 같은 견해로써 고찰하면서 《기》의 개념을 명백히 《물》(物)의 개념과 통일시키고 있다.

즉 《물》은 기에 의하여 산생된다. 그런데 《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는 것은 자연 필연적인 것이다. (有物有則者地之所以自信也) 그러므로 《물》을 형성하는 기도 또한 객관적인 필연 법칙에 의하여 존재하며 영원히 운동하는 것이다. 이 운동 속에서는 자연 사물이나 인간—《심》을 가지고 있는—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세계의 일체의 존재는 모두 그 산생의 기원이 동일한 까닭으로 인간이 사물과 구별되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인간도 포함한 모든 사물은 호상 자기의 립장에서 다른것을 본다면 서로 다같이 기(氣)로 되여 있어서 조그마한 틀림도 없다고 연암은 말하였다. 《물의 립장에서 나를 본다면 나도 또한 물의 일종이다. 따라서 물의 편에 서서 나에게 요구한다면 사물의 모든 속성이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나의 성을 다하는 것은 능히 물의 성을 다하는 소이(所以)이다》.

그는 인성과 물성,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구별하며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을 구별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종래 봉건제도를 옹호하는 유학자들이 계급제도와 인간 차별관의 리론적 기초를 끌어 내는 전거로 된 《인물성 차이론》과 성에 본질적 차별이 있다는 견해를 연암은 반대하였다. 그 반대의 철학적 근거를 그는 자기의 유물론적 세계관인 진적설(塵積記)과 주기설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륜리학의 인간 평등관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립장을 철학적으로 기초지어 주고 있는 것이며 이것으로부터 봉건적 질곡으로부터의 인간 해방의 사상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의 유물론은 명확히 근대 유물론의 류형에 속한다고 말하여야 한다. 연암의 철학의 선진적 적극성을 우리는 이 점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천지 만물을 구성하는 시원으로서의 극세미분자인 먼지는 자연 현상의 발생의 최초 단초를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는 진화론적 범주이다. 기도 물질적 시원이면서도 두드러지게는 사물의 운동의 존재론적 철학적 범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적설은 종교적 사물 발생론을 타격하는 리론이고 기는 사물의 존재와 운동에 관한 관념론적 관점을 반대하는 철학적 본체론적 범주이다. 《진》과 《기》는 다같이 물질의 영원성 불멸성 객관성 및 그 운동의 필연성을 발생론적 및 본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견해는 그의 독자적인 창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 연암은 중국 철학사에 있어서나 조선 철학사에 있어서나 중요 개념으로 되고 있는 물(物), 기(氣), 질(質)의 의의를 명확히 하였다고 생각한다. 기는 만물이 생성하는 철학적 근원이다. 그러나 그 물이 자기의 존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서《질》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즉 《무릇 사물이 형성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질을 가져야 한다. 비록 그 형체는 깨여졌다 하더라도 질은 의연히 존재한다. 나무가 타고 쇠가 녹고 물이 흐르고 흙이 흐터 진다 하더라도 그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물의 질은 형체를 달리하여 우주 자연에 의연히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곧 객관적 실재로서의 물질의 일반적 질의 불멸(不滅)을 주장한 것으로서 서 화담의 기 불멸론을 계승한 것이다. 연암에 있어서는 기와 질은 같은 것이나 그 작용의 면에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담에 있어서도 기와 질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다만 그 표현이 다를

뿐이다. 연암에 있어서도 물은 기를 자기 존재의 시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존재의 방식에 있어서는 질적 규정을 가지며 기나 질이 다같이 불멸인 것이다. 화담의 기 불멸론을 연암은 질불멸론으로, 물의 질—물질 불멸론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것이다.

연암은 인간의 심, 성, 정을 관념론적으로 리해하면서 성을 맹자와 같이 선(善)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인성론적 견해의 관념론적 성격을 보여 주는 점이다. 그는 인간 의식의 사회 력사적 제약성의 사상에까지 투철하지 못한 단적 표현이다. 유교 철학에 있어서의 성선설과 인(仁)에 관한 리론들은 결국은 통치 계급의 선의(善意)와 인자(仁慈)를 증명하려는 내면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 바 연암은 이 비밀을 폭로하지 못하였다. 정통적인 유가학파는 선천적으로 선한 인간 본성이 물욕과 외계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심성의(正心誠意)하여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하여 수제치평(修齊治平)을 해야 한다는 관념론적 리론을 제기하고 있는 데 연암은 그 관념론적 반동적 리론의 본질을 천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은 인간 사유와 그것의 객관적 피 제약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면서 심과 성이 자체로서는 하등의 선과 안의 본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요 생활과 경험에 의하여 제약된다는 것——따라서 후천적 경험적이라는 것을 밝여 주고 있다.

그러나 연암은 착취적 통치 계급과는 반대로 예속과 빈궁에 허덕이는 농민들에 대한 무한한 동정과 그들을 해방시키며 그들의 개인적 리성의 자유와 선성(善性)을 확충하려는 인도주의적 사변이 그의 사상의 기저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연암은 다른 선행 실학 사상가들과 같이 독립적 개인적 농민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산 생활을 념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인도주의적 민주주의적 사상이 특징적인 것이며 그것이 철학적으로 안받침되여 있는 것이다.

그의 륜리학이 유물론적 자연관과는 달리 관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철학의 제한성이다. 즉 그것은 맑스주의 발생 이전의 유물론의 력사적 성격과 결부된 것이며 또 그 자신의 계급적 출신과 그가 대변하는 봉건적 농민의 립장과의 모순의 반영으로서 그와 같은 제한성이 륜리학에서 표현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철학 사상은 객관적 실재로서의 기와 물에 기초하고 있느니 만큼 현실적 자료의 풍부화에 의하여 그의 유물론과 변증법의 내용이 풍부화되여 있으나 그것이 풍부화되면 될수록 그에게서는 형이상학적 관조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물론과 변증법을 사회 력사와 도덕 및 심리 활동에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그는 인식론에 있어서 실천의 역할을 천명할 수 없었으며 륜리학에 있어서 관념론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는 인식과 실천 및 일용 후생(日用厚生의 유물론적 철학적 기초를 계통적으로 체계화하지는 못하였으나 선진적 유물론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유교, 불교, 예수교 등의 제 종교적 관념론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과 검토를 수행하면서 인간 해방과 개인 리성의 자유를 그같이 다채롭고 풍부한 사고로써 주장한 것은 조선 철학사상에서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사실주의적 미학적 견해와 선진적 개혁적인 사회 정치적 견해는 그의 유물론적 철학 사상과 더불어 연암의 전체 사상 체계가 18세기 조선 사회 발전의 이데올로기적 반영이며 또 그것의 앞으로의 전진 운동의 객관적 지향을 적라라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조선의 선행 철학자, 사상가들의 선진적 긍정적 리론과 사상을 계승하여 심화 발전시켰으며 그것을 리 덕무, 박 제가, 정 다산 및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계몽 사상가들에게 전수하였다.

그의 탁월한 문학적 철학적 선진 리론은 조국과 근로 인민을 위한 열렬한 애국주의, 민주주의 및 인도주의 사상으로 일관되여 있으며 모든 낡은 것과 반동적인 것을 분쇄하는 오늘의 우리의 투쟁에 대하여 고무적일 뿐만 아니라 근대 조선의 철학 사상과 문학 예술적 리론의 광대하고 심원한 저수지로서 후대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조선 인민의 유구한 사상 생활의 주류우에 탁월하게 솟아 있는 사상가, 예술가, 작가, 정론가이였다.

중 근동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

고 동 혁

중 근동 지대는 현 국제 정세에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전후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환 강화되였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여 가는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의 가일층의 위기에 봉착한 제국주의자들이 중 근동 지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지대를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며 이 지대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 말살하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 근동 지대는 구라파와 아세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을 련결시키는 중요 지대이며 풍부한 석유를 비롯한 기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식민주의 략탈자들의 더욱 큰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영, 불 및 이스라엘의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으로 말미암아 중 근동은 국제 긴장 상태의 한 초점으로 전환되였으며 식민주의와 반식민주의 세력간의 모순, 전쟁과 평화 세력간의 모순,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모순의 집결처로 되였다. 수에즈 문제도 이러한 제 모순의 충돌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였으며 그는 중 근동 정세를 더욱 복잡하고 긴급한 문제로 만들었다.

수에즈 문제를 비롯한 여러 중 근동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세계는 엄연히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였는 바 한 진영은 쏘련과 중국을 선두로 하는 평화 진영으로서 그는 수에즈와 중 근동 문제를 이 지대 인민들의 민족적 리익과 세계 평화의 리익에 부합되게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다른 진영은 미국을 선두로 하는 영, 불 및 기타 국가들인 바 그들은 수에즈와 중 근동 문제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결하며 이를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킴에 리용하기 위하여 갖은 힘을 다 쓰고 있다.

이러한 두 진영간의 투쟁에서 평화 진영은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애급을 반대하는 영, 불 및 이스라엘의 침략은 좌절되였고 장차 중 근동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력사는 일련의 교훈을 얻게 되였다.

우선 수에즈 문제를 통하여 쏘련 및 중국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와 진보와 평화의 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유력하였으며 그의 단결되고 적극적인 투쟁 앞에는 재 전쟁을 도발하려는 어떠한 침략 세력도 무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따라서 세계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재확인하였으며 전쟁과 힘의 방법으로써는 중 근동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회담과 협의의 길 만이 그의 유일한 길인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이 엄연히 존재하고 강화되여 가는 조건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는 력사 발전의 불가피적인 귀결이며 객관적 현실이므로 서구 렬강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려는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 민족 해방 운동의 실제적인 국제적 인정이야 말로 중 근동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이는 장차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을 준수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은 식민주의 지반을 회복 유지하려는 기도 밑에 중 근동 인민들의 민족적 자주를 반대하는 침략적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국제 긴장 상태를 다시 격화시키려고 발악하였지만 평화 세력의 강력한 반격으로 말미암아 국제 긴장 상태를 다시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였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패를 꿈꾸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력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조성된 세력 변동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리용하려 한다. 탐욕스러운 그들은 애급 전쟁에서 정치—도덕, 경제, 군사적으로 참패를 당한 영, 불 식민주의자들의 계승자로 출현하면서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는 식민주의 정책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전 중 근동 지대 인민들을 자기에게 굴종시키며 국제 긴장 상태를 악화시키려 한다. 이러한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는 미국의 대 중 근동 정책의 더욱더 로골화된 것이 바로 금년초에 선포된 《아이젠하워주의》이다.

*　　　　*

레닌은 일찌기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규정하면서 《피묻은 제국주의의 피묻은 력사》라고 말하였다. 미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이 규정은 다른 많은 인민들에게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우리 조선 인민에게는 직접적인 체험으로 된 진리이다. 이러한 미제 흡혈귀가 겉으로는 《평화》와 《자유 세계》를 부르짖으면서 《자선 사업》을 자처하여 나서고 있으나 그의 뱃심은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정치 및 경제적 예속을 쉽게 함으로써 세계 제패의 야망을 달성하려는 데 있다.

《정신적으로 하나의 세계》인 《자유 세계》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간악한 나라이며 현재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으로 온갖 반동과 전쟁 세력을 규합하여 자기의 침략 목적에 리용하고 있는 바 그는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비약적 발전 법칙에 대한 레닌적 명제를 확증하여 주는 좋은 표징으로도 된다.

미 제국주의는 벌써 19세기 말엽부터 세계 제패를 꿈꾸고 있었으며 20세기 초엽에 들어와서는 영국의 산업과 국제 통상의 령도권을 빼앗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미제는 제국주의 렬강간의 세력상의 변동을 리용하여 자기의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에 광분하였으며 세계 도처에 자기 세력을 부식하는 데 갖은 발악을 다 하였다.

미국 지배층들은 이러한 세계 제패를 위한 침략 정책의 본질을 음폐하기에 있는 힘을 다하여 《자유 세계》니 《자선 사업》이니 《평화》니 《반식민주의》니 하고 떠들고 있지만 미국의 대외 정책의 본질은 세계 제패를 위한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인 바 이는 1월 10일부의 아이젠하워의 멧세지에서도 똑똑히 표현되여있다. 아이젠하워는 자기의 멧세지에서 《우리들의 의무와 자체의 리해 관계…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 정치에서 고도의 역할 즉 정열적인 지도적 역할을 차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이러한 미국 대외 정책의 본질과 목적이 중 근동에 대한 그의 정책 속에 포함되고 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중 근동에 대한 미제의 팽창 정책은 그들의 세계 제패를 위한 침략 정책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중 근동에 대한 《아이젠하워주의》는 오래'동안 세계 제패를 꿈꾸고 있던 미제의 침략 정책의 계속이며 그의 새로운 계단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에는 이 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제국주의 렬강간의 쟁탈전에서 영국이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 늦게 이 쟁탈전에 참가하게 된 미국은 전후 영, 불이 약화된 지위를 리용하여 단 시일내에 영, 불의 진지를 빼앗아 이 지대에 대한 령도권을 장악하게 되였다.

미, 영간의 모순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의 기본이였는 바 영국은 지중해에서와 중 근동에 있어서 미국과 의견 충돌이 빈번하였고 자기 세력권내에 뻗치는 미제의 팽창을 증오하였으나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고 흔들어진 자기의 지반을 보존하기 위하여

서는 미제의 《조력》을 애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영국에 대한 《조력》과 아울러 식민지 및 락후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의 명목하에 미국의 독점 자본은 중 근동 지대의 정치, 경제 생활에 깊이 침투하였으며 계속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강화하여 왔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세력 권(圈)과 리득 그리고 식민지와 기타를 재분할하기 위하여서는 분할에 참가하는 자들의 힘 즉 일반 경제적, 금융적, 군사적 및 기타의 힘의 고려 이외에 다른 근거를 생각할 수 없다》(레닌 전집 22권 281페지)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법칙은 중 근동을 위한 미, 영간의 쟁탈전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 지대를 빼앗기 위한 미 독점 자본의 팽창 정책의 기본으로 되여 왔다. 이 제국주의적 쟁탈전에서 우세한 미국 독점 자본은 《동맹자》를 타승하고 그의 지위를 탈취하게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최근에 조성된 정세 즉 중 근동에서의 영, 불 세력의 가일층 약화와 영, 불의 석유난, 재정난 등을 리용함과 동시에 앙양된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함으로써 전 중 근동 지대를 독점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아이젠하워주의》의 진 의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주의》의 작성자들과 고취자들은 미제의 침략적 본질을 음폐하기 위하여 허위 날조한 《공산주의 침략》을 떠버리면서 마치도 미국이 중 근동 국가들의 독립을 《옹호》하는 듯이 인민들을 기만하면서 자기네들의 경제적 및 군사적 《원조》를 강요하고 있다.

아이젠하워는 국회에 보내는 멧세지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의 기본 목적은 《정의에 기초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는 데 있으며 미국은 《다른 어떠한 인민에 대하여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지배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지어는 《누구나 로씨야를 반대하는 침략 기지로서 근동을 리용하려고 계획하지 않으며》미국은 《언제나 일초도 그러한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는 중 근동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마비시킴으로써 그들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쉽게 실현하려 한다.

그러나 세계 인민들은 이미 미제가 자기의 팽창 정책의 본질과 목적을 음폐하기 위하여 조작해 낸 대외 정책의 《전통적》인 여러 《주의》를 알고 있는 바 벌써 19세기 초엽에 선포된 《몬로주의》, 19세기 말엽에 유명하던 《올니주의》, 《헤이주의》를 비롯한 이 여러 《주의》들은 례외 없이 전부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띠고 있었다. 특히 전후 시기에 있어서 악명높은 《트루맨주의》는 아직도 세계 인민들의 기억 속에 새로운 것이다.

트루맨은 마치도 미국 자본은 다른 나라에 투입되면서 그들에게는 오직 《원조》만을 줄뿐이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외국으로 하여금 리윤을 얻기 위한 착취는 우리들의 계획 속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미 제국주의는 《옛 제국주의와 근사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 트루맨의 언사와 그후 미제의 행동 및 미제의 《원조》의 후'과를 대비해 볼때 우리들은 금번 아이젠하워가 국회에 보내는 자기의 멧세지에서와 대통령 취임시에 한 연설에서 언급한 중 근동에 대한 미국의 《원조》의 목적과 그가 가져올 후'과를 분명히 예측할 수 있다.

트루맨이나 아이젠하워가 미국은 《자유 세계》와 약소 민족들을 위하여 《자선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을 때 그의 배후의 독점 자본가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가? 벌써 1948년 말에 뉴욕시에서 《근동에서의 미국의 리해 관계》라는 표제 밑에 소책자가 나온 일이 있다. 이 소책자에서 저자인 갈웨이 홀과 칼 포스는 미국의 세계 제패를 위한 계획에서 중 근동의 비중은 대단히 크며 《근동에서의 미국의 정책은 근년에 부여된 리해 관계 즉 전술적 지반과 세계에서도 제일 풍부한 석유의 채굴을 둘러싼 투쟁에서 형성되였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미국 독점체들의 대변인들인 많은 출판물들은 계속적으로 《중 근동의 석유 산지는 미국의 정치, 외교 및 군

사적 전략과 긴밀히 련관된 미국의 경제적 전략의 중심지》임을 대대적으로 론증하여 왔다.

근년에 와서는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이 중 근동에 대한 대폭적인 침략적 의도와 계획의 필요성을 직접 말하고 있는 바 벌써 작년 초에 미국 스탄다드 석유 회사의 소유자인 넬슨 록펠러는 대통령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자기의 비밀 서한에서 《융통성과 효과가 적은》국무성의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적 원조》와 군사적 수단으로 미국 지배 계층의 식민주의적 리익을 보장하는 보다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또한 《아이젠하워주의》가 선포되기 1개월 전인 1956년 12월에는 모르간 회사의 지도자인 아레크싼데르가 《중 근동을 위한 미국의 도크트리나(주의)를 선포하여야 된다》고 말하였으며 《이는 마샬안이 나올 때보다 더욱 더 긴급하다》고 말하였다. 같은 시기에 덜레스도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우리의 정책은 《아랍 민족주의의 강화를 중지시키며 근동에 조성된 진공을 메우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근동에서 이러한 과업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와 근거를 미국에 줄 일정한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전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중 근동에 대한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계획》이 바로 《아이젠하워주의》인 것이며 미제의 침략적 의도는 아이젠하워가 국회에 보낸 멧세지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그는 자기의 멧세지에서 《근동은 구라파와 아세아와 아프리카간의 통문으로 되며 또한 그것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3분의 2의 석유가 매장되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지대가 가지는 전략적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세계 제패를 꿈꾸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미제의 팽창 정책의 일부이며 그의 한 계단을 이루고 있는 중 근동에 대한 《아이젠하워주의》도 제국주의 본질에서 나오는 침략 정책이며 자기의 《동맹자》들을 구축하고 그들의 영향하에 놓여 있던 전략적 원료의 원천지와 병참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전 중 근동 지대를 독점하려는 새로운 식민주의임을 확증하여 준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이젠하워주의》는 중 근동을 침략하려는 미국의 식민주의의 높은 계단을 의미한다. 그들의 중요한 대상은 이 지대에 풍부한 전략적 원료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이 지대의 석유 산지이다. 때문에 최근 이를 점유하기 위한 미제의 식민주의 정책은 맹렬하며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유는 현대의 경제 및 군사상 매우 중요한 원료이며 연료이기 때문에 《흑금(黑金)》이라고까지 불리워지고 있으며 그의 사용 범위와 사용률이 대단히 확대되였다. 이러한 석유가 중 근동에 풍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지대를 둘러싸고 제국주의자들의 맹렬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특히 미,영간의 모순이 날카로운 것이다.

중 근동 지대에는 크롬과 우람광이 많이 매장되여 있지만 석유는 특별히 풍부하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탐지된 세계 석유 매장량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약 179억톤의 석유가 매장되여 있으며 다음의 일람표가 표시하는 바와 같이 생산량에 있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세계 생산량의 약 4분의 1이나 해당되는 석유를 채취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와 시장을 근처에 가지고 있는 관계상 국제 석유 통상의 과반수를 이 지대가 차지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이 지대에 대하여 미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중근동과 자본주의 세계의
석유 생산량 비교표

(단위 천톤)

구분 ＼ 년도	1938	1946	1950	1954	1955
세　계	282000	378000	525 000	690 000	754 000
중 근 동	16 080	35 550	88 610	135 630	164 000
비 률 %	5.7	9.4	16.8	19.7	21.7

＊ <國際問題 譯叢> №1, 2페지 참조.

그 외에도 중 근동의 석유 생산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미국의 로동자들의 25분의 1 내지 27분의 1로 낮으며 반면에 그의 한 유정(油井)의 1주야의 생산량은 미국에서보다 약 389배나 더 많은 사정은 적은 자본으로 많은 리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경제적 타산으로하여 미제의 관심은 더욱 큰 것이다. 리윤률을 본다면 쿠웨이트에서 한 바레루(영 용적 단위)의 석유의 원가가 10쩬트라면 페루샤만 항구들에서는 그의 판매 가격이 1딸라 95쩬트나 되니 이 지대 석유에서 얻게 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리윤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 독점체들은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품고 중 근동 지대의 석유 산지들을 자기의 세력 범위에 넣으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석유 산지외에도 기타 많은 침략 대상들이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중 근동 지대를 략탈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최초 미국의 립장은 이 지대의 《문호 개방》에 있었다. 이 《문호 개방》은 제국주의자들의 자유 경쟁에서 미제가 자기의 자본의 우세를 리용하여 경쟁자들을 타승할 수 있으리라는 심산에서 꾸며 낸 그들의 《전통적》인 외교 수법이였다.

미국의 석유 회사가 직접 이 지대에 침입하기 시작한 것은 1927—1929년대에 《스탄다드 오일 오프 뉴제시》와 《소코니 와쿰》(현《소코니 모빌 오일》)회사들이 《이라크 페트로움 캄패니》의 23.7%의 주권(株券)을 획득하였을 때부터이다. 30년대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바흐레인과 쿠웨이트 석유 산지의 경영권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싸우디 아라비야 석유 산지 경영권을 얻어 그곳에 《아라비엔 아메리캔 오일 캄패니》(아랍—미국 석유 회사)를 창설하고 이 지대 인민들을 착취하였다.

미국 자본의 대대적인 침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바 1945—1946년에는 그의 팽창에 방해로 되는 《홍룡(紅龍)조약》(1928년)을 폐기함으로써 미국 자본가들은 중 근동의 석유 탐험과 경영을 확대할 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미국의 5대 석유 회사인 《스탄다드 오일 캄패니 오프 칼리포니》, 《스탄다드 오일 오프 뉴제시》, 《텍사스 오일 캄패니》, 《소코니 와쿰 오일 캄패니》(《현 소코니 모빌 오일》), 《갈프 오일 캄패니》등은 중 근동 지대에 있는 많은 석유 자원을 장악하게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전후에 발생한 세력 변동 특히 영국의 약점을 리용하여 락후한 나라에 주는 《원조》의 미명하에 급속한 템포로 중 근동 지대에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영,불의 지반을 압축하면서 그 지대의 석유 산지를 독점하려 달려 들었다. 다음의 일람표는 이것을 증시하여 준다

중근동의 석유 생산에 대한 미, 영의 통제 비교표

(단위 천톤)

국가별 채취량 ＼ 년도	1938년			1952년		
	총 채취량	그 중		총 채취량	그 중	
		영 국	미 국		영 국	미 국
싸우디 아라비야	100	—	100	40 700	—	40 700
쿠웨이트	—	—	—	37 600	18 800	18 800
이란	10 400	10 400	—	1 300	—	—
이라크	4 300	2 200	1 100	17 800	9 000	4 000
애급	200	200	—	2 400	1 800	600
바흐레인	1 100	—	1 100	1 500	—	1 500
까따르	—	—	—	3 300	1 600	800
총계	16 100	12 800	2 300	104 600	31 200	66 400
비률 (%)	100	80	14	100	30	63

이. 엠. 레민, 《전후 영,미간의 모순》, 102페지 참조

전후 시기에 들어와서 미제의 중 근동에 대한 침략 대상도 더욱 확장되였는 바 미 독점체들은 이 지대에 풍부한 석유 산지 뿐만 아니라 군사 기지도 탈취하여 왔으며 그것을 더욱 확장하려 한다. 그들은 쏘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과 동방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기 위하여 중 근동 지대에 자기들의 군사 기지망을 창설하는 데 광분하여 왔다.

이리하여 미국의 침략 정책의 중요한 대상은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석유 산지와 군사 기지를 획득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 독점체들은 근년에 와 더욱 더 로골적인 침략적 책동을 하였다. 그들은 벌써 최초에 부르짖던 《문호 개방》은 집어 던지고 중 근동 지대를 자기네의 독점적 세력 범위로 만들기 위하여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었으며 그의 실현을 위한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들이 중 근동에 보지하던 정치--도덕적 및 경제적 영향을 상실하였으며 씨리야 송유관과 스에즈 운하를 리용할 수 없게 된 영, 불은 석유의 공급,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의 필요로 말미암아 더욱 더 미국에게 의존하게 되였다. 이를 미 독점체들은 자기의 계획 실현의 절호의 기회로 인정하고 《진공 상태》의 리론을 부르짖으면서 《아이젠하워주의》를 조작해 낸 것이다.

또한 《아이젠하워주의》의 출현은 중 근동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앙양이 미제가 영, 불의 세력 범위를 계승하는 데 방해로 될 뿐만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의 지반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아이젠하워주의》는 중 근동 지대에 풍부한 석유를 비롯한 기타 많은 자원들과 전략적 지점들을 탈취하며 그를 독점하기 위한 《문호폐쇄》의 정책이다. 이는 중 근동 인민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인민들에게도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는 오직 미 독점체에게만 유익하며 따라서 월스트리트 독점체들의 팽창 정책의 공동 선언서에 불과하다

* *

침략에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중 근동을 침략하기 위한 《아이젠하워주의》는 《반식민주의》라는 미명하에 《원조》의 수'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중 근동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이 고도로 앙양되였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였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식민주의 방법으로서는 략탈하기 곤난하였던 것이다.

중 근동 인민들은 더는 옛날과 같이 살 것을 원하지 않으며 식민주의자들은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더는 지배할 수 없게 되였으므로 제국주의자들 특히 오늘에 와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민족 해방과 반제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인민들을 기만하는 책략으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의 하나로서 채용한 것이 《원조》이다. 이러한 형식의 간섭 및 침략에 대해서 레닌은 여러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부르조아지들은 《원조의 구실하에 질식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광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물론 중 근동 제국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얻었으나 장기간의 노예 생활로 인하여 현재의 경제—사회적 발전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놓여 있으며 이 지대의 풍부한 자원들도 아직 잘 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외국 자본에게 략탈 당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민족적 정치적 독립은 급속한 경제적 독립과 그의 발전이 동반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선진 국가들의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일지라도 이 원조의 대'가로서 이들 국가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중 근동 인민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지향을 악용하면서 《원조》의 구실 밑에 노예의 새로운 멍에를 이들에게 씌우려고 책동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아이젠하워주의》에서도 《정치 군사적 원조》를 강요하고 있다.

《아이젠하워주의》는 《원조》를 제의하면서 뻔뻔스럽게도 미국은 《식민주의적 야욕이 없으며》 락후한 국가들의 독립을 《옹호》하며 그들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여 인민의 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력사적 사실이 증명해 주는 바와 같이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 당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트루맨주의 제 4항》에 의하여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애급,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싸우디 아라비야이고 《마샬안》에 의하여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는 토이기였다. 미국의 《원조》는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락후케 하였는 바 《원조》의 대부분은 군사적 목적에 지출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군사화를 더욱 강요하였고 경제를 곤난한 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며 인민 생활을 급속도로 악화케 하였다.

실례로서 토이기를 들 수 있는 바 그는 미국과 1947년 7월에 군사적 《원조》에 관한 조약, 1948년 7월에 《마샬안》에 근거한 경제적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들에 의한 미국의 《원조》의 결과는 토이기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예속시켰다. 미국의 잉여 상품들은 토이기 민족 산업을 령락케 하였다. 매년 상품 총생산고에서 산업 생산고보다 농업 생산고가 높아 가는 현상을 낳았다. 만약에 1939년 산업 생산고가 전체의 24.2%였고 농업 생산고가 75.8%였다면 1953년에는 18.1%와 81.9%로 각각 변경되였다.

이는 미국이 토이기를 자기의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으로 전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와 함께 미국의 《원조》는 토이기의 중요한 군사 기지를 획득케 하였으며 토이기로 하여금 두개의 군사 뿔럭에 가입케 하였다. 그리하여 토이기 정부로 하여금 매년 거액의 군사비를 지출케 하였는 바 그는 매년 국가 예산의 약 60%를 군사 목적에 리용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미국은 토이기에 군사적 《원조》를 약속하였으나 이 《원조》는 토이기가 미국을 위하여 소비하는 군사 비용보다 훨씬 낮은 액수 였다. 토이기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 《원조》는 1948년부터 1955년까지 겨우 15억딸라였다면 이 기간에 토이기가 군사비로서 소비한 금액은 무려 95억릴(약 34억 딸라)이나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인민 생활을 더욱 빈곤케 하였다. 만약에 1939년의 직접세 총액이 7 960만릴이였다면 1953년에는 5억 4 470만릴이나 되였다. 물가는 등귀하여 1956년 초에는 1955년 초에 비하여 약 65%나 더 높아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토이기 경제가 미국의 《원조》에 의하여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의 위험에 빠져 있음을 말하여 준다.

외국 신문 기자가 토이기의 한 운전수에게 《미국의 원조가 토이기에 무엇을 가져 왔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미국의 원조는 지배층의 당들에게는 정권을, 고관들에게는 자동차 <룩스>를, 그들의 처에게는 털외투를, 지주에게는 뜨락또르를, 신문 기자들에겐 거짓을, 토이기 인민에게는 빈궁과 무권리를 가져 왔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의 《원조》의 본질을 잘 말하여 주는 바 미국은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주를 거부케 하며 국내 상층부를 매수하여 진보적 세력에 대치시키며 심지어는 정치적 음모까지 단행함으로써 외래 자본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지향을 억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조》는 그것을 받고 있는 나라를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이러한 례는 넬손 록펠러가 표현한 바 《전형적 실제적 례》로서 이란을 들 수 있다. 1951년 3월 이란 정부는 인민의 영향하에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고 영국--이란 석유 회사를 구축하였을 때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성된 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리용하는 데 광분하였으며 마사디크 정부를 압박 하였다.

1953년 6월 말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마사디크에게 보낸 자기의 각서에서 이란 정부가 석유 문제에 있어서 외국 독점 자본가들의 제의 즉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게 이란 석유 산지의 경영권을 부여하라는 제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만 미국은 이란에게 경제적 원조를 줄 것이며 이란 석유를 구입할 것이다 라고 강압하였다. 결국에 가서 미제는 마사디크 정부를 전복하고 자기에게 잘 순종할 자헤디 정부를 수립하고 그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란 석유 국제 재단의 주권의 약 40%를 탈취하였다. 영국은 여기서 패배를 당하게 되였다.

이러한 반면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의 대'가로서 막대한 리윤을 얻게 된다.

금번 미국은 1958과 1959 회계 년도에 중 근동 제국에 2억 딸라의 《원조》를 줄 것을 약속하고 있으나 그와 반면에 미 영 독점체들은 1955년 1년만 치더라도 이 지대에서 총계 2억 4천만 딸라의 비용으로 1억 5천만톤의 석유를 채취하여 이 석유로 순리윤 19억 딸라를 획득하였다. 이것이 《자선 사업》을 위한 미국의 《원조》의 진상인 것이다

이것으로써 《아이젠하워주의》가 제의하고 있는 《원조》가 중 근동 인민들에게 무엇을 가져 오며 어떠한 결과를 낳겠는가를 똑똑히 알 수 있다. 이 《원조》가 어떠한 좋은 구실을 라렬하여도 결국 이를 받는 나라를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그 나라 인민들을 착취하는 도구 외에는 아무 것도 될 수 없다.

금번 《아이젠하워주의》는 이러한 《원조》를 제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장력까지 동원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더우기나 그들은 원자 무기까지 동원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바 아이젠하워는 기자들과의 담화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동에서 소형 전술 원자 무기를 사용함이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도를 모른다》고 공공연하게 언명하였던 것이다.

《아이젠하워주의》는 《원조》의 힘으로 중근동 나라들을 예속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무장력까지 동원하여 침략적 야욕을 채우려 하며 또한 평화적인 회담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힘의 립장》에 서서 중 근동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리하여 그것은 중 근동 국가들을 압제하며 이 지대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가들을 미국과 서구 렬강에 순종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인 것이며 나중에 가서는 전체 중 근동을 포괄하는 일대 군사 뿔럭을 형성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려는 획책인 것이다.

외면은 자선자요 뱃심은 강도격의 외교 방법은 아이젠하워가 처음으로 발명한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벌써 20세기 초에 당시의 대통령이였던 테돌 루즈벨트가 처음으로 이를 리용하였는 바 이러한 방법은 《말은 부드럽게 하되 그러나 손에는 큰 방망이를 쥐라》고 한 그의 말에 잘 표현되여 있다. 이러한 정책은 비률빈, 멕시코, 하이티, 싼—도민고와 코럼비야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실제 체험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아이젠하워주의》에 근거하여 미국이 중 근동 지대에 자기의 군사력을 임의의 시각에 동원하려는 시도를 폭로한 이란의 잡지 《오미 테이란》이 쓴 바와 같이 미국은 《침략》을 방지한다는 구실 밑에 미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어떠한 국가에게도 압제를 가하려고 한다. 례로서 씨리야를 든다면 40만의 인구도 못가진 그가 50만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와 이라크를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실이나 서구 출판물들은 마치도 씨리야는 《쏘련의 군사기지》로 화하였으며 씨리야 지도자들이 토이기와 이라크에 대한 《침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사태를 꾸미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국경 충돌을 조작하고 씨리야가 토이기와 이라크를 《침략》한다는 구실로 그를 비난하고 《아이젠하워주의》에 근거하여 여기에 자기의 무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간책은 이스라엘을 앞잡이로 추동시켜 애급과 기타 아랍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아이젠하워주의》를 지지하면서 미국 합동참모 본부 의장인 레드폴드는 금년 1월 17일 국회에서 《미국은 현재 필요한 경우에 근동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벌써 일련의 경우에 싸울 수 있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에서도 우리들은 5분 후이면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여 있다》고 호언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아이젠하워주의》는 《전쟁 접경》의 정책이며 《랭전》을 다시 야기 확대하며 나아가서는 《열전》에로까지 지향하는 전쟁 정책인 것이다. 애치손은 하원 외교 위원회에서 한 자기 증언에서 중동에 대하여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달라는 아이젠하워의 요청은 전쟁 접경에로의 새로운 접근》처럼 위험스럽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중 근동 지대에 새로운 전쟁의 위험성을 초래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며 평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오기 때문에 중 근동 지대 인민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재화를 가져 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국제적 도덕과 유엔 헌장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이젠하워주의》를 선포하면서 자기네들의 침략적 반 평화적 야욕을 감추기 위하여 또한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 《원조》와 그의 무장력의 동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중 근동 지대에《진공 상태》가 조성되였다느니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이를 《옹호》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인민들을 기만하려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진공 상태》에 대한 리론은 오래 전부터 미국의 독점체들에 의하여 주장되여 왔는바 그의 본질은 전후 미제가 세계의《지도적 역할》만 노는것이 아니라 《응당히》 영, 불의 재산을 계승하여야 한다는 데있다. 덜레스가 자기의 저서 《전쟁과 평화》에서 《진공상태》에 대하여 《리론화》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전후 《마샬안》에 의하여 서구를 예속시킴으로써 《경제적 진공》을, 그리고 나토의 창설로써 《국사적 진공》을 메꾸는 데 광분하였던 것이다.

현재 미제는 중 근동에서의 영, 불 지반의 약화와 독립을 위한 아랍 인민들의 투쟁 성과를 마치도 《진공 상태》와 같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를 군사 및 경제적 간섭으로써 충당하려 한다. 미국 국회에서 덜레스는 멘스필드가 《아이젠하워주의》는 인도와 비르마를 제외하고 《다른 어떠한 진공 상태도 남기지 않게 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의 정점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중 근동에 《진공 상태》가 조성되였다는 것은 침략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아랍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의 공고화와 반식민주의의 투쟁의 강화는 중 근동에 《진공 상태》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이는 중 근동 인민들의 민족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 발전의 진보적 요인으로 되는 것이다.

《진공 상태》란 이 지구상에는 어느 곳에도 없으며 동방 인민들은 더욱 더 훌륭한 생활을 위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진공 상태》의 리론을 비판하면서 《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진공 상태>를 발견할 것을 원한다면 그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로부터 떠날 것을 권고하고저 한다》고 한 일본 전국 금속 로조 위원장 요시다 아끼라의 말은 지당한 말인 것이다.

또한 《아이젠하워주의》는 《공산주의 위협》에 대해서 떠든다.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구호는 중 근동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호위》를 접수케 하며 쏘련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식민주의에 대한 반항을 좌절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구호는 히틀러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아이젠하워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제패를 위한 침략 정책을 음폐하며 중립 국가들을 자기네 군사 뿔럭에 인입시키고 쏘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을 고립시키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만약에 미국이 중 근동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고 평화를 진실로 원한다면 왜 그는 영국과 불란서가 애급의 도시를 폭격하고 인민을 살해하고 있었을 때 그를 반대하여 철저히 싸우지 않았으며 예멘에 대한 영국의 침략을 묵인하고 있으며 불란서가 알제리야 인민을 무도하게 학살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가?!

중 근동에 대한 침략의 위협은 공산주의와 쏘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서구에서 오는 것이다.

애급을 반대하여 침략 전쟁을 개시한 것은 쏘련인 것이 아니라 서구 렬강 및 이스라엘인 것이다. 《공산주의 위협》이니 《진공 상태》이니 하면서 중 근동에 대한 침략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은 쏘련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다. 또한 오늘 날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롯하여 각 중립적 평화 애호 국가들의 내부 파괴 행동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쏘련인 것이 아니라 또한 미국인 것이다.

쏘련은 그가 존재하는 첫 날부터 평화의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항상 약소 민족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자결권과 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지향을 옹호하여 나섬으로써 민족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으며 또 투쟁하고 있다. 중 근동에 대한 쏘련의 립장은 명확한 바 그는 이 지대 인민들의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위업을 진심으로 방조하는 데 있다.

최근에 있은 사건들만 보아도 쏘련의 평화적 공존과 경제적 련계 강화를 위한 정책, 그리고 침략을 반대하여 약소 민족을 옹호하는 적극적인 투쟁의 시종 일관성은 의심할 바 없다.

중 근동 인민들은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누가 그들의 벗이며 누가 그들의 원쑤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아이젠하워주의》가 반쏘베트적 반공산주의적 허위를 날조하여 전파하였을 때 많은 아랍 제국의 사회계 대표들은 이를 반대하고 그의 허위성을 폭로하였다. 애급 신문《아씌 샤아브》는 《애급을 공격한 것은 쏘련인 것이 아니라 영 불이며 씨리야와 요르단을 반대하여 출연하였으며 이들의 령토 완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쏘련인 것이 아니라 서구 렬강인 것이다》고 썼다. 씨리야 정부 성명에는 《결코 씨리야의 안전에 대하여 공산주의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이며 유태국가의 부흥이다》라고 하였다.

오늘 미국이《공산주의 위협》을 떠들고 있지만 그의 선전은 완전히 허위이며 자기네들의 침략적 목적을 음폐하고 침략의 구실을 날조한 데 불과한 것이다. 중 근동 인민들의 적은 다른 평화 애호 국가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과 서구 렬강인 바 미국은 현재 제국주의의 원흉으로 식민주의의 간악한 성채로 되여 있다. 이리하여 중 근동 인민들 및 기타 인민들은 미국의 침략 정책과 그의 한 표현인 《아이젠하워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 ❊

오늘 세계에는 《트루맨주의》가 용납되던 시기와는 전연 다른 시기가 도래하였다.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여 가는 조건하에서 동방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은 력사 무대에서 인민들의 역할을 무한히 제고시켰다. 과거에는 몽매와 무지로서 예속과 억압 당하던 동방 인민들은 각성되였다. 그들은 오늘 날 국제 무대에서 국제적 분쟁 문제들을 평화적이고도 정당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자기들의 위력하고 단결된 힘을 시위하고 있으며 《반둥의 정신》에 굳게 서서 어떠한 형태의 식민주의도 배격 규탄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국가 주권과 독립의 공고화를 위하여, 경제적 완전 자립을 위하여 궐기하고 있다.

새로운 식민주의인 《아이젠하워주의》가 세상에 알려 지자마자 애급, 씨리야 기타 아랍 국가들의 많은 지도자들과 사회계는 미국의 침략 계획을 반대하여 항의하고 있다. 카이로에서 1월 18—19일에 걸쳐 있은 애급, 씨리야, 싸우디 아라비야, 요르단 등 아랍 4개국 회의에서는 공동 성명서가 채택되였는바 그는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단결심을 시위하였으며 《아이젠하워주의》를 비판하면서 4개국은 《진공 상태에 대한 리론을 배격하는 데 동의》 하였다. 그들은 역시 자기의 나라들을 《어떠한 외국의 세력 범위에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전 레바논 수상인 까라마는 《아스—씨야싸》지에서 미국은 중 근동에서 영, 불 제국주의자들이 시행하던 정책을 다시 실시하려고 한다고 썼으며 그는 다시 1월 30일 국회에 출연하여

미국의 《주의》의 접수는 레바논으로 하여금 미국의 원자 무기 기지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레바논은 중립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난에 봉착한 미제는 자기의 교활성을 더욱 더 나타내면서 침략 계획의 접수를 아랍 인민들에게 우회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례컨대 그는 싸우디 아라비야 왕을 직접 초청하여 그를 통하여 애급과 기타 아랍 국가들을 설복시키려 하였으며 또한 애급과 이스라엘간의 충돌의 조정에 나서는 등의 술책을 씀으로써 아랍 국가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한다. 미국은 애급의 가자와 아카바만에서 이스라엘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듯이 사태를 꾸미려고 했으나 각성된 애급 인민은 미국이 이 지대의 《국제화》를 획책함과 동시에 이 《중재》를 미끼로 애급을 설복하려 하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2월에 있은 아랍 4개국 거두 회의의 결정에서는 아랍 국가들은 어떠한 제국주의적 예속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서구 뿔럭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시종 일관하게 중립 정책을 고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당한 아랍 인민들의 편에는 오늘 날 쏘련을 선두로 하는 강유력한 사회주의 진영과 평화를 애호하는 수다한 동방 국가들이 서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중 근동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수에즈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회주의 진영을 선두로 하는 세계 평화 세력은 영, 불, 이스라엘의 부당한 침략 행위를 규탄하면서 물심 량면으로 애급 인민들에게 원조를 주었다. 이러한 애급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평화 세력에 의하여 애급 인민은 외래 침략자들을 구축하는 위업에서 승리했던 것이다.

《아이젠하워주의》에 의하여 중 근동 인민들에게 침략적 위협과 세계 평화에 위협이 생긴 오늘에도 쏘련을 선두로하는 사회주의 진영은 이를 반대 배격하여 중근동 인민들의 철두 철미한 옹호자로 평화의 투사로 나섰다. 쏘련은 서구 렬강의 침략에 대하여 규탄했을 뿐만 아니라 침략과 전쟁의 위협을 방지하고 중 근동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미, 영, 불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제안을 내여놓았다.

1. 회담의 방법에 기초하여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 문제들을 조정함으로써 중 근동에서의 평화를 유지할 것

2. 중 근동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며 이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할 것

3. 렬강이 참가한 군사 뿔럭들에 이 나라들을 인입시키려는 온갖 기도들을 포기할 것

4. 중 근동 제국 령토로부터 외국의 기지들을 제거하며 외국 군대들을 철거할 것

5. 중 근동 제국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것.

6. 이 나라들의 위신 및 주권과 량립될 수 없는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또는 기타 조건들도 첨부함이 없이 중 근동 제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 등이다.

이상과 같은 6개 조항에 대한 쏘련의 제의는 가장 옳은 중 근동 문제의 해결책이며 그의 기본으로 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중 근동 인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들의 진정한 독립과 자주를 위하여 《반둥 정신》에 립각한 경제적 및 기술적 협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쏘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은 동방 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강요하는 승냥이와 같은 원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에 립각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쏘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은 동방 국가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면서 어떠한 침략적 야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협조의 대'가로 민족적 자주권의 거부이라든지 군사 뿔럭에 가입이라든지 그 국가 제도의 변경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쏘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이야 말로 중 근동 인민들의 진정한 벗인 것이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단결되고 경험이 풍부한 중 근동 인민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평화 애호 국가들의 열렬하고 단합된 지지를 받으면서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자기의 정치적 및 경제적 자주 발전을 위한 승고한 투쟁에서 반드시 성공이 있을 것이며 《아이젠하워주의》는 결국 휴지로 되고야 말 것이다.

당 생 활

면화 증산을 위한 당 단체 사업

조선 로동당 룡강군 위원회
위원장 김 왕 도

과거 형편과 올해의 계획

우리 룡강군 농민들은 도내의 어느 군 농민들보다도 면화를 많이 재배하여 왔다. 오래'동안 면화는 군내 농민들의 농업 생산과 경제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군내 농민들은 면화 재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비배 관리 기술을 가지게 되였다. 면화는 룡강군의 특산물로 되였다.

다른 작물에 비하여 비배 관리가 힘들며 일정한 특성을 가진 면화를 룡강군 내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군내의 자연 경제적 특성에 의하여 조건지어 졌다.

군내 농경지의 토질 구성과 기후 조건이 면화 재배에 유리한 것이다. 군내 전체 밭 면적의 거의 25~30%가 사질 양토질이다.

물론 사질이 많은 토질에서도 열은 많이 요구하지 않으나 비교적 많은 수분을 요구하는 조, 밀 및 보리 등을 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하고 높은 수확을 거두기는 힘들다.

룡강군 농민들의 오랜 경험은 사질토에서 면화를 재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면화는 다열성 심근 작물이다. 그러므로 면화는 사질 양토에서 왕성하게 자라날 수 있으며 보통 한발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질 양토에서의 면화 재배에 의한 수확고와 수익성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그리하여 사질 양토질 밭을 가진 농민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면화를 재배하게 되였으며 그의 생산고도 상당히 높았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 년간의 사정은 그렇치 못하였다. 아는 바와 같이 전후 최근 년간에 우리 나라의 식량 사정은 곤난하였다. 따라서 전후 년간에 농촌 경리 분야 앞에는 식량 증산 문제가 긴급하게 나서게 되였다. 식량 증산을 위한 알곡 작물 면적의 급속한 확장은 알곡 작물 이외의 다른 작물의 파종 면적에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군내의 일부 당 일'군들과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들에게서 면화 재배에 대한 홀시적 태도가 나타났는 바 이것은 면화 재배, 특히 그의 수확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파종된 면화에 대한 농민들의 비배 관리 작업을 지도 방조하는 것조차도 등한히 하였으며 농민들의 오랜 면화 재배 전통과 경험 그리고 룡강군 내의 지대별 특성 등을 참작함이 없이 일률적인 면화 재배 방법을 무조건 내려 먹여 면화의 재배 행정과 수확고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최근 수년간에 군내의 면화 파종 면적과 단위당 수확고는 종전에 비하여 훨씬 감소되였다. 1953년에 면화 파종 면적은 1 570 여 정보, 면화 수확고는 정당 760키로그람이였다면 1956년에 파종 면적은 809정보로, 면화 수확고는 정당 404키로그람으로 각각 감소, 저하되였다.

전쟁에 의한 심한 피해와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에 의하여 군내의 알곡 생산은 궤도에 올라 섰다. 알곡 증산 성과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면화를 증산하며 축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룡강군 당 위원회는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받들고 군내의 자연 경제적 조건들과 군내 농민들의 면화 재배 전통을 타산하여 지난해 보다 면화 파종 면적을 훨씬 더 확장할 목표를 내세웠다. 이것은 면화 파종 면적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반면에 알곡 생산고를 감소시키려는 것인가? 결코 그렇게 손쉽게 일하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럴 수도 없다. 우리들은 알곡 생산고를 지난해 보다 약 2 000톤 더 높이는 동시에 면화 재배 면적을 200%로 확장하며 정당 수확고를 136%로 제고할 목표이다. 우리들에게는 금년도의 방대한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비들과 가능성들이 있다. 올해에 우리들은 벼의 랭상모 육성의 광범한 보급, 옥수수 파종 면적의 가일층의 확대, 가축 증식으로 인한 자급 비료 시비량의 증대, 국가로부터의 화학 비료 공급의 증가 등 기타 예비 동원으로 알곡 파종 면적을 축소하면서도 알곡 생산고를 지난해 보다 높일 수 있다.

군당 위원회가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고리는 지난날 면화 생산에 대한 지도 사업에서 옳은 경험과 교훈들을 찾으며 그에 근거하여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옳게 전개하는 데 있다. 지난날 면화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당 지도 사업에서의 주되는 결함은 당 정치 사업이 군내의 구체적 현실과의 긴밀한 련계 속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깜빠니야식 일반적 호소에 그쳤으며 오랜 면화 재배에서 얻은 농민들의 경험——파종 적기, 파종 방법에 대한 경험 등이 파묻혔으며 따라서 선진적인 영농 방법을 군내의 지대적 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일률적으로 내려 먹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당 위원회는 금년도 면화 증산 목표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 당의 호소를 대중 자체의 리익의 절실한 표시로, 그들의 행동 강령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당 정치 사업을 조직 전개하는 데 주목을 돌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면화 재배에서 얻은 농민들의 경험과 과학적 영농 방법을 옳게 배합시켜 광범히 일반화하며 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배합시키는 데 심각한 당적 관심을 돌리고 있다.

면화 증산을 위한 당 정치 사업

우선 우리 군당 위원회는 섬유 원료——면화 증산에 대한 당의 호소를 군중 자체의 구호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군, 리 및 농업 협동 조합 내의 당 및 농촌 경리 지도 일'군들이 중요한 역할을 노니 만큼 그들 속에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깊이 침투시키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군당 위원회는 군'급 당 및 농촌 경리 부문 일' 군들을 중심으로 수차에 걸쳐서 강연회와 토론회를 조직 전개하였다. 여기에서는 지난날에 섬유 원료인 면화 생산에 대한 지도 사업에서 어떠한 경험들과 결함들이 있었는가를 12월 전원 회의 결정에 비추어 토론케 하였으며 군내에는 면화를 증산하기 위하여 어떠한 가능성과 예비들이 있는가도 연구 토론케 하였다. 군당 위원회는 군'급 일'군들 속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하였다.

그후 군당 위원회는 군'급의 유능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각 리와 농업 협동 조합에 파견하였다. 그들은 각 리와 농업 협동 조합 내 당 및 농업 지도 일'군들 속에 12월 전원 회의 호소 특히 면화를 증산할 데 대한 호소를 해석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리와 조합 내 일군들과 더불어 군'급 일'군들 속에서 종합된 의견들을 참작하면서 면화 증산 방도를 토의하였다.

이러한 준비 사업만으로서는 불만족하였다. 당 및 농업 지도 일'군들이 농촌 현실——매개 리와 조합 내의 면화 재배 경험과 적지의 유무를 모르고는 면화 증산에 대한 당의 호소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당 위원회는 농민들 속에 파견될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면화 증산에 대한 당의 호소를 해석하는 동시에 해당 리와 농업 협동 조합 내의 실정을 연구케 하였으며 조사 연구한 현실에 근거하여 해석 선전 사업을 전개케 하였다.

그들은 농민들이 과거에 면화를 얼마나 재배하였으며, 면화 재배로부터 어떠한 리익을 얻었으며 면화 적지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면화 재배 전망은 어떠한가를 조사 연구하였다. 그들은 조사 연구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알곡 생산고를 계속 장성시키면서 면화 파종 면적을 확장할 수 있겠는가를 농민들과 더불어 상의하였다.

《면화 면적을 확장하자!》, 《열성을 발휘하자!》 등의 일반적 구호만을 웨치던 때에는 농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잘 내놓지 않았으며 창발적 제기가 적었고 지도 일'군들이 하부 실정을 잘 료해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도 일'군들 자신이 농촌 현실을 조사한 토대우에서 당의 호소를 해석하며 그의 실행 대책을 농민들과 더불어 세우려고 할 때에 그들은 자기의 창발적 의견을 활발히 제기하며 그것을 자기의 일로서 간주하고 온갖 가능성과 예비를 탐색해 내였다.

실례로 갈천리 교전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12월 전원 회의 결정과 호소를 심각히 토의하고 올해에는 200반보 (지난해 17반보)의 발에 면화를 파종할 데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기하였으며 그 반면에 알곡 파종 면적은 축소되나 랭상모 육성과 옥수수 파종면적의 확대, 시비량의 증대 등의 예비 동원으로 알곡을 지난 해보다 증산할 구체적 방도도 제기하였다. 이외에 애원리, 양곡리 내 농업 협동 조합원들을 비롯한 군내의 많은 조합원들이 지난해보다 면화 재배 면적을 확대하면서도 알곡을 증산할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우리 룡강군 당 위원회는 이에 기초하여 당의 호소를 대중 자체의 구호, 그들의 절실한 리익과 념원의 표현으로 전환시킬 목적으로 국가적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켜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에서도 정치 사업을 전개하였다.

농촌에 파견된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서 면직물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량의 면화가 요구된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면화가 적음으로 년년이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여 그를 수입하고 있다는것과 또한 전쟁에 의한 피해와 최근 년간에 면화 생산의 급격한 감축으로 인하여 국가 수요 뿐만 아니라 농민들 자체의 면화에 대한 수요도 긴절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배합시켜 해설케 하였다. 한편 당과 국가가 농민들의 면화 재배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물질적 방조 대책을 구체적으로 해석케 하였다.

그들은 면화 재배 농민들에 대한 국가적인 물질적 방조 대책을 매개 리 농업 협동 조합, 개인들의 구체적 실정에 결부시켜 선전하였다. 동일한 토지에서 알곡 작물과 면화를 각각 재배한다면 수익성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수'자적으로 밝혀 주었다. 례를 들어 옥도 농업 협동 조합 내에는 약 1 100반보의 면화 파종 적지가 있다. 이 전체 면적에 면화를 파종한다면 반보당 100키로 그람의 수확을 예견하여 110톤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 전량을 국가 수매에 응한다면 국가 환산 비률에 의하여 411톤의 옥수수를 수확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 면화 재배 적지에 옥수수를 파종한다면 반보당 최고 220키로그람의 수확을 예견하여 242 톤을 수확하게 되는 바 면화를 재배하여 수매에 응함으로써 옥수수를 국가로부터 보상 받는 것보다 169 톤의 차이를 가져온다. 물론 면화를 국가 수매에 응한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견직물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일용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사업은 조합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12월 전원 회의 호소를 그들의 리익의 표현으로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

그리하여 군내 농민들 속에서 면화 재배 열의는 한층 고조되여 갔다. 실례를 들어 옥도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군중적 토의와 연구를 거듭한 후에 지난해 보다 알곡을 증산할 예비를 탐구하고 1 100반보 중 이미 파종한 추기 맥류 면적을 제외하고 870반보의 면화 재배 적지에 전부 면화를 파종할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그들은 자기들의 다년간의 면화 재배 경험에 의거하여 조합적으로 면화 수확고를 정당 1톤 100키로그람(군적 평균 수확 목표의 2배) 까지 높일 것을 다른 농업 협동 조합들에 호소하였다.

군내 농민들의 면화 증산 열의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였다. 군내 농민들은 자기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알곡을 지난해보다 증산하면서도 면화 재배 면적을 지난해의 200%로 확장할 것을 자기의 금년도 생산 목표로, 증산 경쟁 의무 조항으로 내세우고 그의 준비 사업에 궐기하고 있다.

농민들의 경험과 선진 기술을 옳게 배합

면화의 다수확을 쟁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로 되는 것은 농민들의 오랜 재배 경험과 선진 과학 기술을 옳게 배합시키는 것이다.

면화는 다른 작물과 달리 세밀하고 복잡한 기술적인 비배 관리와 많은 로력과 비료를 요구한다. 면화의 수확고는 자기의 특성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을 옳게 지어 주느냐 못 지어 주느냐에 많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면화 비배 관리상에서 지방 농민들의 오랜 경험과 선진 과학 기술들을 옳게 배합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내 일부 당 및 농업 지도 일'군들은 지난날에 흔히 농민들의 오랜 경험을 도외시하고 선진적인 과학 기술이라 하여 그것을 무조건, 그리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을 농민들에게 강요하였다. 그러한 형식적이며 주관적인 사업 작풍은 면화의 초기 생육으로부터 결실에 이르는 과정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례를 들어 일부 농업 지도 일'군들은 작물의 특성과 지방의 기후 조건들을 고려함이 없이 면화의 조기 파종을 적극 주장하여 그것을 4월 17——22일에 파종케 하였다. 조기에 파종한 면화는 건전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가을에 랭해를 입어 현저한 감수를 면치 못하였다. 농업 지도 일'군들은 이 원인을 연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농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그들과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농업 지도 일'군들은 면화의 평규식 파종 방법도 일률적으로 보급시켰다. 이도 역시 면화의 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우리 군내에서도 지방의 지대적 조건에 따라 면화의 평규식 파종법이 적합할 수도 있고 고규식 파종법이 적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 군내의 일부 농업 지도 일'군들 속에서는 선진 영농 방법에 대하여 옳은 리해와 인식을 가지지 못한 데로부터 농민들 자신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수확고를 높인 것은 홀시하고 외부에서 섭취하는 것 만을 선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우리 룡강군 당 위원회는 농촌에 파견된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지난날 면화 재배에 대한 지도 사업에 있었던 결함들을 농민 대중과 같이 심각히 검토 시정하며 매개 지방과 지대별로 선진적인 영농 방법과 농민들의 경험을 결합시키기 위한 토의를 진행케 하였다.

그들은 리별, 조합별로 우선 면화 재배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늙은이들과 개인 농 때 높은 수확고를 쟁취했던 조합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좌담회들에서는 면화 재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파종 적기, 파종 방법, 우량 종자 확보, 집중 재배, 비료 확보 등등에 관한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교환되였다.

종합된 의견에 의하면 너무 조기에 파종한 면화가 발아는 빨리되나 초기에 성장이 불량한 탓으로 가을에 랭해를 입으며 수확고가 낮아 지는것은 주로 서해안 지대의 기후로 보아 아직도 찬바람 (《소만풍》)부는 시기에 면화가 발아되므로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며 가을에 목화가 완전히 피기 전에 서리를 맞게 되는 때문이였다. 농민들은 일치하게 서해안의 찬바람 (《소만풍》)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4월 17일——22일에 파종할 것이 아니라

4월말——5월초까지의 사이에 파종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최근 년간에 있어서 일부 리들에서의 경험은 이의 정당성을 립증하여 주고 있다.

《소만》 후에 발아한 면화는 처음부터 찬바람을 맞지 않고 건전하게 자라므로 병충해를 입는 폐단도 없이 제때에 목화가 피며 결실이 좋았다.

또한 대다수 농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종전에 선진적 방법으로서 장려하던 평규식 파종 방법은 군내의 지대적 조건에 비추어 보아 일률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였다. 습한 경지에서는 고규식 파종 방법이 유리하며 건조한 경지에서는 평규식 파종 방법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면화의 평규식 파종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농민들은 지난날 국가로부터 받은 면화용 화학 비료마저 다른 작물에 사용하고 《노랑 거름》(부숙되지 않은 곡초 거름을 농민들이 이렇게 부른다)만을 대강 주어 더욱 수확고가 낮아 졌다는 것도 밝혔다. 이외에도 많은 창발적 의견, 비판 등이 제기되였다.

우리 룡강군 당 위원회는 좌담회들에서 제기된 의견, 비판, 요구들을 개별적인 것, 분산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석하고 종합한 데 근거하여 면화 증산에 대한 당적 지도 방침을 세웠는 바 이 지도 방침은 군내의 객관적 현실과 생산자 대중의 지향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게 되였다. 면화의 파종 방법은 군내에 습지가 많은 실정에 비추어 주로 고규식을 장려하되 건조한 경지에는 평규식을 장려하며 파종 적기는 서해안의 찬 바람 (《소만풍》)을 피하기 위하여 4월말부터 5월초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면화의 생육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면화 모 이식 방법도 시험적으로 적용케 할 방침이다.

한편으로 오늘 농촌에서 협동 경리가 지배적인 조건하에서 면화 재배 적지의 선정과 우량 종자 확보 대책들을 새롭게 강구케 하고 있다.

룡강군 내의 자연 조건으로 보아 면화 재배 적지는 일정한 지대에 집중되여 있다. 면화 재배 적지가 집중되여 있는 지대들에서는 거의 전부의 농가들이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군내의 적지 않은 리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면화의 집중 재배를 가능케 하고 있다. 례를 들어 군내의 애원리에는 1 600반보, 양곡리에는 1 200반보, 옥도리에는 1 100반보의 면화 재배 적지가 자연적으로 집중되여 있는 동시에 이 리들에서의 농업 협동화는 완성되였거나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곳들에는 오랜 면화 재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많다.

군당 위원회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가능한한 면화 재배지를 집중적으로 선정케 하였다. 조합원들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면화를 집중적으로 재배한다면 면화 재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조합원들을 배치하여 복잡한 면화 비배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개인 농때에 가장 애로로 되여 있던 면화의 병충해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 등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면화를 집중적으로 재배하게 되면 우량 종자는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집중 재배지에는 채종 포전을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또 면화의 수확기에 집중 재배 포전에서 좋은 목화 송이를 골라 채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것 이외에 자급 비료 확보, 선진적 면화 재배 방법의 광범한 교환과 보급, 급격히 장성된 파종 면적에 소요되는 종자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때문에 우리 룡강군 당 위원회는 앞으로 군적인 면화 재배 농민 열성자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또 다시 광범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면화 파종기에는 집중 재배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실지 견학을 조직케 할 대책도 세웠다.

우리 룡강군 당 위원회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궐기한 농민들의 증산 기세를 목전의 춘기 영농 준비에로 더욱 힘있게 조직 동원할 뿐더러 그들의 고도로 앙양된 열성을 금년도 영농 총화시까지 계속 이끌고 나아가고 있다.

꼰쑬따찌야

과학적 무신론에 대하여

리 희 재

변증법적 유물론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세계관이며 공산주의의 리론적 기초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힘은 그것이 《인류에게, 그리고 특히 로동 계급에게 위대한 인식의 무기를 주는》(레닌 전집 19권 5페지) 데 있는 것이다. 맑스주의 철학은 어떠한 미신과도 또 어떠한 착취 제도의 옹호와도 타협할 수 없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철저한 무신론적 세계관으로서 그는 온갖 형태의 관념론 및 종교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맑스 전 시기의 무신론자들, 특히 18세기 불란서 유물론의 대표자들(디드로, 엘베찌우스, 돌바크, 라메트리)은 신학이 의거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 개념들, 즉 신의 존재, 령혼의 불멸,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 전개된 비판을 가하면서 이 개념들의 파산성, 모순성과 그 관념론적 허구성을 론박하였으며 종교와 교회의 반동적 역할을 폭로하고 종교적 도덕은 승려 계급과 귀족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또한 종교는 저승에서의 징벌로써 사람들을 공갈하면서 그들 속에서 공포감을 강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는 세속적 및 정신적 폭군들에게 복무한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그들의 무신론적 저작들은 오늘날에도 종교와의 투쟁에서 그 예리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종교와 교회에 대한 비판의 그와 같은 정당성과 전투적 정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신론은 그들의 세계관의 형이상학적 성격과 부르죠아적 본질로 하여 그 제한성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정한 적대적인 사회적 제 관계가 종교 발생의 원인 및 그 존재의 기초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오직 사람들의 무지와 미개, 자연력과 자기들 자신의 본성에 대한, 자기들의 자연적 권리에 대한 무지가 종교 발생의 원인이요 그 존재의 기초라고 간주되였던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사람들의 무지가 승려들로 하여금 종교를 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것을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게 하였다.

18세기 불란서 유물론자들의 무신론의 이 제한성은 불피코 그들의 종교와의 투쟁 방도에 관한 표상에서도 나타났으니, 그들은 계몽 사업의 전개, 과학적 지식의 보급 및 《개화된》 대신들과 립법자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종교 극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의 본질적인 결함은 종교의 발생과 존재의 근원을 사람들의 무지와 승려들의 기만에서 보고 종교적 신앙의 극복은 계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인정한 데 있는 것이다.

과학적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맑스와 엥겔스는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유물론을 사회 현상의 령역에까지 확장함으로써 종교의 현실적 사회적인 근원, 착취 계급의 지배와의 그의 련결을 과학적으로 해명 폭로하였다. 만일 부르죠아적, 관조적, 계몽적 무신론이 종교를 자본주의 제도의 틀안에서 과학적 지식의 보급에 의하여 페절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면 맑스—레닌주의는 종교가 근로자들을 정신적으로 예속시키는 도구임을 증시하고 그의 완전한 극복은 착취 제도의 페절과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기초해서 만 가능하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즉 종교는 상부 구조의 일부로서 그것을 발생케 하고 유지하여 오던 토대가 청산됨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부 구조는 토대에 의하여 산생되는 것이며 그의 반영인 것이지마는 그는 자기의 토대의 운명, 계급의 운명, 사회 제도의 성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중립적이며 수동적인 것은 아니다. 발생한 상부 구조는 자기의 토대의 형성 및 강화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거대한 역할을 노는 것이다. 상부 구조의 이 적극적 역할은 적대적 계급 사회에서의 지배 계급의 상부 구조가 락후한, 사멸하여 가는 자기의 토대를 보호 유지하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는 데서 잘 표현되는 바 독점 자본주의가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파씨즘에로의, 근로자들에 대한 테로적 독재에로의 전화를 의미하는 오늘 자본주의적 지배 계급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복무하는 종교도 또한 이에 상응하여 그의 반인민적 본성을 로골화하고 있다.

신학자들과 많은 현대 부르죠아 학자들은 종교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는 언제나 있은 것은 아니다. 원시 사회의 초기 단계에서는 하등의 종교도 종교적 관념도 없었던 것이다. 종교는 원시 사회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 발생하였는 바 그것은 원시인들이 주위의 자연과 자기 자신의 본성에 관한 암매하고 무지한 표상으로부터 발생하였던 것이다.

종교를 발생시킨 원시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은 생산력 발전의 극히 낮은 수준으로서 거기서는 자연의 외부적인 힘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우뢰, 번개, 지진, 폭풍, 홍수와 한발, 혹한과 혹서, 산화 등등 원시인들을 둘러싸고 있던 자연의 이러한 모든 무서운 맹목적인 힘은 그들에게는 불가사의한 것이며 또 비밀이였다. 이러한 힘을 자기들의 힘에 복종시킬 수 없는 원시인들은 그 힘에다 초자연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신화하였다. 그들은 주문(呪文), 탄원, 희생물 제공에 의하여 이러한 힘을 위무하려고 하였다. 즉 그들은 그것을 환상적으로 자기들의 힘에 복종시키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의 힘에 대한 무력과 그것에 대한 공포가 초자연적 힘에 대한 신앙, 령혼과 신에 대한 신앙 및 숭배를 낳았던 것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발생과 함께 인간을 지배하는 자연의 힘에 그에 못지 않는, 아니 그보다 더 큰 근로 대중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으로 되는 사회적 힘이 첨가될 때 《착취자들과의 투쟁에서의 피착취 계급들의 무력(無力)은 자연과의 투쟁에서의 야만인들의 무력이 신, 악마, 기적 등등에 대한 신앙을 낳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피적으로 보다 나은 저승에 대한 신앙을 낳게 한다》 (레닌 전집 조선문판 10권 1분책 110—111페지).

이와 같은 사정을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온갖 종교는 인간의 일상 생활을 지배하는 저 외계의 힘들이 인간의 머리속에 환상적으로 반영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 반영에 있어서는 지상의 제반 힘이 하나의 비지상적인 힘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력사의 초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반영의 객체는 무엇보다도 우선 자연력인 바, 이 자연력은 제 인민간에서 가일층 발전하여 극히 다양하고 잡다한 인격신을 낳게 된다. … 그러나 얼마 안가서 자연력과 함께 사회력이 또한 나타나는데 이 사회력도 인간에 대해서는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역시 외부적인 것, 최초에는 역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인간에 대립하고 또 일견 자연력과 같은 자연 필연성으로써 자연력처럼 인간을 지배한다》(엥겔스, 《반듀링론》 조선 문판 419페지). 이와 같이 종교는 현실이 사람의 의식에 공상적, 환상적으로 전도되여 반영된 이데올로기 형태인 것이다.

탁월한 유물론자들은 맑스, 엥겔스 이전에 이미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하였다는 사상에 도달하였었다. 그러나 구유물론자들은 이러한 옳은 사상을 표명하면서도 왜 사람들은 세계를 2중화하였는가, 왜 그들은 자연적 물질적 세계, 자연과 함께 그들의 상상에서 초자연적 실체라는 공상적 환상적 세계를 창조하였는가를 설명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관념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 생활이 종교적 신앙, 종교적 관념의 반영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종교적 신앙 및 관념이야 말로 당해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의 반영——환상적 공상적 형태에 있어서의 반영인 것이다. 공상 속에서 신을 창조하면서 사람들은 신에다 인간적 본성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세계 종교 즉 각국 인민들 사이에 가장 널리 보급된 종교는 기독교와 마호멧트교와 불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세한 세계적 종교로 되여 있는 기독교의 발생과 발전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종교 일반의 력사적 성격과 그의 사회적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기독교는 노예 소유자적 로마 제국의 태내에서 그 노예 소유자적 로마의 붕괴기에 노예와 노예 소유자, 유산자와 무산자간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된 조건하에서 동방의 신학, 특히 유태의 신학과 비속화된 희랍 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과의 혼합물로부터 발생하였다. 최초의 기독교는 노예, 피압박자, 불행한 평민의 종교로서 나타났으며 거기에는 혁명적인 동기 즉 노예, 평민, 빈민들의 부자, 노예 소유자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다. 최초에는 크리스트의 형상은 사람들을 참을 수 없는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할 사명을 가진 메씨야(구세주)의 형상으로서 묘사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한 바와 같이 기독교도 피압박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다만 천상에서의 위안 뿐이였다. 그것은 노예에게 무감각적 순종과 노예 제도와의 타협을 설교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노예 소유자 계급의 대변인들 속에서도 보급되였으며 그들은 그것을 곧 피압박 계급들을 착취하는 무기로 전화시켰던 것이다.

착취 계급은 착취 받는 노예들의 이데올로기야로부터 노예 소유자들의 이데올로기야로, 착취 계급의 무기로 전화된 기독교로부터 그것이 초기에 가지고 있던 반란자적, 반(反)노예 소유자적 요인을 몰아내고 거기에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원칙 즉 온량, 온순, 순종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봉건 시대에도 기독교는 계속하여 일층 더 진화하였는 바 그것은 봉건 제도의 정신적 지주로 되고 교회는 최대의 령주로서 서구라파의 전 토지의 약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다. 봉건 령주를 반대하는 농노 및 도시 평민층의 치렬한 계급 투쟁은 종교적 이단, 종파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지지자들은 봉건 제도를 옹호하는 교회와 투쟁하였다.

초기 서구라파 부르죠아 혁명들에 뒤이어 더 성숙된 조건하에서 봉건 제도에 대한 변혁을 수행한 불란서 부르죠아지는 비종교적 정치적 기치를 들고 공공연하게 나섰던 것이며 18세기 불란서 부르죠아지의 선진적 이데올로그들은 종교 일반을, 특히 카톨릭교를 용감하게 공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부르죠아지가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기독교는 자기의 최후의 단계에 들어섰던 것이다. 그것은 이제는 벌써 어떤 진보적 계급의 지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분장을 줄 수는 없게 되였다. 그것은 점점 지배 계급의 전유물로 되여 순전히 통치 수단으로 하층 계급의 기반으로 리용되였다. 이 경우에 매개 지배 계급은 각각 자기의 종교를 리용한다. 즉 지주—귀족은 카톨릭적 제수윗트교 또는 정통 프로테스탄트교를 리용하며, 자유주의적 또는 급진적 부르죠아지는 유리론(唯理論)을 리용한다. 게다가 이 신사들이 자기의 종교를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실은 전혀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 로문 제2권 380페지). 기독교의 발생과 발전은 대략 이러하였다.

❊ ❊

그러면 증기와 전기의 세기, 화학과 원자력의 세기, 내연 기관과 비행기의 세기, 현대 생물학과 현대 의학의 세기에 있어서의 종교의 존재와 수백만 사람들의 정신에 대한 종교의 지배는 대체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부르죠아 사회에 있어서의 종교의 존재와 대중의 신앙성의 원인은 첫째로 자본주의 체계에, 생산의 무정부성과 그 법칙의 맹목적 작용에, 자본주의적 경제의 맹목적 힘 앞에서의 사람들의 외견상의 무원(無援)상태에 있는 바 바로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종교적 신앙은 근로 대중의 의식 속에서만 아니라 지배

적 착취 계급들의 의식 속에서도 발생하며 유지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인민 대중을 억누르는 사회적 압박 속에, 세째로는 착취 계급들이 갖은 방법으로 종교——그것은 그들에게 근로 대중의 압박의 무기로서 복무한다——를 유지하며 전파시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자본주의적 압박과 자본주의에 의하여 산생되는 전쟁, 공황, 실업, 빈궁으로 인하여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자연의 모든 맹목적 힘을 한데 합한 것보다도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것이다. 론문 《종교에 대한 로동자 당의 태도》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왜 종교가 도시 프로레타리아트의 락후한 층에서, 반(半)프로레타리아트의 광범한 층에서, 그리고 또 농민 대중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가?…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그 근원은 주로 사회적인 근원이다. 근로 대중의 사회적으로 억압된 상태, 자본주의(이것은 보통의 로동자들로 하여금 전쟁, 지진 등등과 같은 온갖 비상 사건들보다도 그야말로 천배나 더 무서운 신고(辛苦), 더 심한 고통을 날마다, 시간마다 맛보게 한다)의 맹목적인 힘에 대한 그들의 외견상의 완전한 무능력——바로 여기에 오늘의 종교의 가장 깊은 근원이 있다. <공포가 신을 만들어 내였다> 자본의 맹목적인 힘에 대한 공포——이것이 그 근원인 것이다》(레닌 《종교에 대한 로동자당의 태도》로동당 출판사판 10—12페지).

자본주의 제국에 있어서는 종교는 사회적 억압의 도구이며 교회는 근로 대중의 노예화에 사용되는 기관의 일부분이다. 례컨대 로마 법왕을 수반으로 하는 카톨릭 교회나 신교 교회는 어디서나 가장 반동적인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카톨릭 교회의 중앙인 와치칸은 대 자본주의적 상회, 대은행, 려관 및 도박관 등등 시설들의 소유자 또는 주주(株主)이다.

와치칸은 뭇쏠리니와 히틀러를, 그리고 그들의 략탈적 제국주의 전쟁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었으며 제2차 대전 후에는 와치칸은 파쑈적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동정을 요구하여 그들의 변호에 골몰하였던 것이다. 오늘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카톨릭당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장 류혈적인 형리(刑吏), 교살자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태리의 기독교 민주당, 서부 독일의 아데나우어의 당——이것들은 이러한 카톨릭적 반동의 상징인 것이다. 이렇듯 종교 일반이 그렇거니와 카톨릭 교회도 제국주의 반동의 무기로서의 자체를 전 세계 앞에 점점 더 폭로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그 교도들에게 착취자들에 대한 순종, 공손, 불평 없는 굴종을 요구한다. 그것들은 근로자들의 의식을 《저승에서의 생》 《천국》에 관한 허구로써 결박하면서 그들의 생활의 현실적 개선을 위한 혁명적 투쟁으로부터 리탈시킨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기백만 사람들의 의식에 대한 종교의 영향이 아무리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발전과 계급적 모순은 종교적 및 기타 모든 다른 이데올로기야적 최면제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므로 음폐할 수 없는 계급적 모순은 피압박 대중을 계급 투쟁에로 추동하는 바, 투쟁은 착취자들에 대한 공손과 노예적 굴종의 정신과는 량립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력사 발전의 전 행정은 종교적 반동 세력을 포함한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반동 세력을 타승하고 과학적, 유물론적, 무신론적 세계관의 기치하에 투쟁하는 진보적 세력, 공산주의 세력의 승리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로동 계급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자기의 투쟁에서 노예와 농노들과는 달리 종교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맑스주의적 과학에 의거한다. 종교와 선진적 과학은 호상 배격하는 바 모든 종교는 과학에 대립되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종교 및 관념론과의 장구한 투쟁의 력사 행정에서 한걸음 한걸음 그것들의 기초를 무너뜨리면서 전진하고 있다.

지구 중심설에 관한 종교적 관념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의 타격으로부터 출발하여 로씨야의 위대한 현대 유물론 학자들(쎄체노브, 빠블로브, 찌미랴제브, 미츄린 등등)의 진정한 과학적 성과들은 더욱더 온갖 종교적 편견들의 지반을 리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동적 이데올로그들은 과학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종교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며 그것을 관념론 및

종교의 강화를 위하여 리용하려고 시도한다.

현대의 몽매주의와 반동의 책원지로 되여 있는 미국의 많은 주(텐네씨, 오레곤, 미시간, 플로리다, 칼리포르니야 등등)들에서 1921—1926년 간에 벌써 다윈의 학설의 교수를 법률에 의하여 금지하였으며 죠르지야주에서는 천문학은 프로레마이오스의 설에 의하여 교수되며 지구가 원형이라고 씌여 있는 교과서는 금지 당하고 있다. 이러한 반(反)과학적 리론과 야만적인 미신의 설교, 훌륭한 자연 과학 리론에 대한 박해, 진보적 사회 세력에 대한 발광적인 억찌 투쟁을 보라! 미국 반동은 오늘 중세기적 종교 재판의 재판(再版)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진보와 과학의 개화를 위하여서는 종교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로동 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의식적 선진적인 투사들의 당인 맑스—레닌주의당들은 종교적 신앙에서 표현되는 무의식성, 암매성 또는 몽매성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수 없으며 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종교에 대한 로동자 당의 태도》라는 자기의 론문에서 레닌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맑스의 이 금언은 종교 문제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의 전체 세계관의 초석이다. 맑스주의는 시종일관하게 현대의 모든 종교와 교회, 모든 종교 단체들을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의 옹호와 그 마취에 복무하는 부르죠아 반동 기관이라고 본다》고 썼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자들과 맑스주의 당들은 어떠한 형태의 종교적 편견이나 미신과도 결정적으로 투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동 계급과 그의 맑스주의적 당은 반종교 투쟁에서 엄격히 변증법적이며 창발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니, 1874년에 엥겔스는 파리 콤뮨의 도피자인 블랑키주의자들의 유명한 반종교 선언을 론하여 그들의 종교에 대한 요란스러운 선전 포고가 종교에 대한 관심을 더 북돋아 주며 종교의 실제적 사멸을 곤난케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선전 포고를 우둔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그당시 종교와의 전쟁을 로동자 당의 정치적 과업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정부주의적인 헛소리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조건에서는 로동자 대중의 계급 투쟁 만이 가장 광범한 프로레타리아 층을 의식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적 실천에로 전면적으로 인입함으로써 피압박 대중을 종교의 억압으로부터 실지로 해방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엥겔스는 당시에 로동자당이 종교와의 정치적 전쟁에 덤벼들 것이 아니라 우선 프로레타리아트를 조직 계몽하는 사업, 필경에는 종교의 사멸을 가져 오게 하는 그 사업에 인내성 있게 종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로동자당에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철저한 무신론과 종교에 대한 묵인과의 일종의 잡탕이나, 신자인 로동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비겁한 욕망 또는 로동자들이 놀라서 리탈하지나 않을가 하는 공포에서 오는 무원칙한 타협은 아니였다. 종교에 대한 맑스주의당의 전술은 시종일관한 것이며 맑스주의적 전투적 유물론은 불변하게 종교에 대하여 비타협적이다.

종교와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은 맑스주의자의 상식이다.

그러나 변증법적인 유물론자는 이 상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 갈 것을 요구한다. 즉 맑스주의자는 종교와 투쟁할 줄 알아야 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이 신앙과 종교를 가지게 된 근원을 유물론적으로 해명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를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적 설교에 국한시키거나 귀착시키지 말아야 한다. 맑스주의자는 반 종교 투쟁을 종교의 사회적 제 근원의 제거를 위한 혁명적 실천과 련결시켜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한다.

물론 여기로부터 종교를 반대하는 일체의 계몽 선전 사업이 유해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로동자 당의 무신론적 선전이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피착취 대중의 계급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한 로동자 당의 기본 과업에 복종되여야 한다는 것 뿐이다. 또 종교적 세계관에 대한 사상 투쟁은 이

러 저러한 종교 단체나 개별적 신자(信者)들을 반대하는 행정적 조치에 의해서나 승려들과 종교적 의식(儀式)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적인 욕설에 의해서는 결코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것이니, 사람들에 대해서 오직 종교적 관념론적 세계관의 원칙적인 파산성을 신중하고 인내성 있게 해설하는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여야 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 미신, 신비론을 근본적으로 극복 청산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발생시키고 육성하는 지반을 근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자본주의나 반(半)봉건적 사회를 폐절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쏘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의 승리는 맑스—레닌주의의 이 명제를 완전히 확증하였다.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의 수립,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폐절 및 착취 계급의 청산과 함께 쏘련에서의 종교의 사회적 근원은 영원히 근절되였다.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위한 투쟁에서 쏘련의 근로자들은 환상적인 천상의 힘의 원조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에, 과학과 생산에, 공산당의 지도에 의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철학을 그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전투적 무신론자이며 무신앙자이다. 오늘 쏘베트 산업과 교통 운수에서의 제1등급의 기술, 해마다 장성하여 가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 자연 개조에 대한 쏘베트 국가의 정책, 농촌 경리에서의 농업 과학과 농업 생물학의 적용의 발전, 곡물의 높은 수확을 위한 성과적인 투쟁 등은 종교적 미신을 물질적 근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현상 자체로서도 점차 청산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쏘베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종교가 완전히 청산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는 바 종교는 아직 일부 주민들 특히 농촌 주민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종교적 의식은 낡은 제도의 잔재이며 유물인 바 이것은 인간의 의식의 개변이 그 물질적 조건의 개변에 뒤떨어 진다는 유물론적 원칙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 인민들의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쏘련 공산당은 근로자들 속에서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침투 강화와 모든 낡은 자본주의적 잔재, 그중에서도 낡은 종교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상적인 과업으로 인정하면서 과학적 무신론의 근로 인민에 의한 옳은 리해와 체득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조선을 포함한 전체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이미 착취 계급들이 기본적으로 청산되고 인민의 주권하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는 기본적으로 폐절되였다.

이것은 이 나라들에서 종교의 사회—물질적 지반이 기본적으로 청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점차 낡은 자본주의 사회의 유물로 전화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자들의 계급적 의식의 장성과 과학—기술적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이 나라들에서의 종교는 점차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제국주의적 반동 세력이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최후적인 발악적 음모와 흉계를 다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이 나라들에서의 낡은 자본주의적 잔재로서의 종교는 그들에 의한 반동적 음모의 가장 좋은 리용물로 될 수 있으며 사실에 있어서 오늘 와치칸은 국제 반동의 중심지로 되여 있다. 로동 계급과 맑스주의 당이 종교적 유물에 대하여 항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의식은 생활 조건의 변경에 뒤떨어지는 것이므로 이미 사회주의적 토대 건설이 완성되는 그런 시기에 가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과학적 지식, 전투적 유물론에 의한 무장은 계속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맑스주의자들의 잠시도 망각할 수 없는 일상적인 과업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전체 현대 사회에 의하여 몽매, 무지, 편견의 운명을 지니게 된 기

천만의 인민 (특히 농민과 수공업자) 대중이 순 맑스주의적인 계몽의 곧은 길 만을 통하여 이 몽매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맑스주의자가 범할 수 있는 오유 중에서 가장 큰 오유이며 가장 나쁜 오유일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부터 가장 다종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이들 대중의 관심을 일으키며 그들이 종교라는 잠에서 깨도록 하며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신론적 선전에 관한 가장 다종 다양한 자료를 공급하며 가장 다종 다양한 생활 령역에 속하는 제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며, 각종 방법으로 그들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레닌 ≪전투적 유물론의 의의에 대하여≫ 로동당 출판사판 8—9페지). 레닌의 이 교시는 오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로동 계급과 그의 당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지침으로 되고 있다.

조선 인민의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조선 로동당은 전체 조선 인민들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총동원하면서 전체 근로자들을 과학적 무신론으로 교양하고 있으며 그들이 온갖 종교적 잔재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데 방조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서적 해제 및 평론

《조선 문학사》(1~14세기)에 대하여

한 룡 옥

얼마 전(1956년 말)에 교육 도서 출판사 발행으로 리 응수 동지의 《조선 문학사》(1~14세기)가 출판되였다. 이 저서는 원래 대학용 교재로서 집필된 것이나 지금 비단 각 대학에서 어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문학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 문예 연구가들 그리고 이 시기 조선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광범한 독자층에게 리용되면서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저서를 쓰게 되는 의도와 동기에 대하여 저자는 그것이 무엇 보다도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의 민족 문화 유산의 정당한 연구 계승에 관한 교시 정신을 받들고 진정한 인민의 문학사를 서술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서론에서 쓰고 있다.

1~14세기 특히 9 세기 이전의 조선 문학은 그 연구에 있어서 허다한 난관과 애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크게 애로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인 바

첫째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의 결핍이다.

어느 나라 문학사를 막론하고 구체적인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문학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인 데 우리 나라 1~14세기 문학의 실정을 보건대 10세기 이후 문학은 그런대로 견딘다 하고 9세기 이전의 문학에 있어서는 많은 작품들이 인멸 산일되여 버리여 그 자취를 찾기가 매우 딱한 형편에 놓여 있다.

이제 그 정형을 잠간 보면 유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는 일찍부터 문학이 발생 개화하여 6세기 이전에 이미 고구려의 《류기(留記)》 백권을 비롯한 백제 고흥(高興)의 《서기(書記)》, 신라 거칠부(居柒夫) 등의 《국사(國史)》, 고구려 리 문진(李文眞)의 《신집(新集)》 등 수다한 년대기 작품들과 저자 불명의 허다한 《고기(古記)》들이 나왔으며 7세기 이후에 있어서는 일층 발전을 보아 강 수(强首), 설 총(薛聰), 김 장청(金長淸), 김 대문(金大問), 혜 초(慧超), 최 치원(崔致遠) 등의 이름난 산문 작가들과 월명사(月明師), 충담(忠談), 석 영재(永才)등 향가 작가들, 한시 작품들이 나와 우수한 고전적 문학 유산들을 남겨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형편은 어떠한가 하면 김 장청의 《김유신 행록》 10권이 어떻게 생겼으며 김 대문의 《고승전(高僧傳)》, 《화랑 세기(花郎 世紀)》, 《악본(樂本)》, 《한산기(漢山記)》 등 수다한 작품들이 어떤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설총의 작품이란 겨우 《화왕계(花王戒)》 하나만이 남아 전하며, 멀리 안도 여러 나라와 페루샤 등지를 려행하고 그 려행기를 쓴 혜 초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三권은 지금 겨우 한 권으로 된 간략본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최 치원은 당시 중국에까지 천재적인 문인으로서 알려졌으며 30권이나 되는 방대한 문집을 남겨 놓았으나 《계원필경(桂苑筆耕)》과 몇몇 시 작품이 전할 뿐이고 그의 많은 작품들이 산일되였으며 그의 저작이라 전해지고 있는 고대 설화 작품집인 《신라 수이전(新羅 殊異傳)》은 후세 문헌들에 그 일부가 편편이 보존되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시가 작품들도 형편은 마찬가지이다. 허다한 한시 가요들과 함께 7세기 이후에 특히 신라 향가 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였으며 고명한 시인들의 배출을 보아 신라 51대 진성 녀왕(眞聖 女王) 2년(서기 888년)에는 각간(角干) 위홍(魏弘)과 중 대구 화상(大矩和尙)의 공동 수집 편찬으로 되는 향가집 《삼대목(三代目)》까지 나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향가집도 전연 모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 지고 있는 향가 작품이라고는 《삼국 유사(三國遺事)》 소재의 14수와 균여(均如) 창작의 11수를 합하여 도합 25수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고대에 창조된 풍부한 문학

예술 작품들은 그 후 오랜 세기 동안에 자주 있었던 병란, 화재 기타와 외래 략탈자들의 손에 의하여 많은 것이 인멸, 산일, 략탈되여 버리여 작품 자체의 내용은 물론, 작가들의 생애와 활동, 작품 이름들조차 알 길이 막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 고대 문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로 된다.

9세기 이전 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전거로 되는 문헌은 고대 시기의 년대기 작품들인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 기타 몇몇 작품들이 있을 뿐이다.

이 시기 문학사 연구에 있어서 다음으로 들어야 할 큰 애로점의 하나는 조선 고대 특히 7세기 이전의 우리 나라 사회—경제 구성의 성격에 관한 해명이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문학 작품들이 사회 현실과 인간 생활을 반영하고 있으니 만큼 그를 산생시킨 토대인 사회—경제적 성격의 과학적 해명은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나 구체적인 문학 작품들의 연구 분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직접적 관련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전 시기의 문학을 론하면서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문학 작품들의 해석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이 우연치 않다.

다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조선 고대 문학에 대한 연구 유산들이 그리 많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해방 전에 몇몇 부르죠아 학자들에 의하여 조선 고대 문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연구 관점과 방법들이 과학성을 못 띠고 있었던 관계로 하여 결함들이 허다하였으며 또한 그것도 많은 경우에 부분사들에 그치였고 종합적이며 전체 포괄적 체계를 가진 문학사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또한 우리의 고대 문학사를 맑스—레닌주의 문예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성과들도 적었으며 이것은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조선 로동당의 정당한 문화 로선을 받드는 연구가들에 의하여 왕성하게 되였다.

해방 후 우리는 10년간이라는 연구 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청소한 력사이며 많지 못한 연구가들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된 데다가 그 우에 앞서 렬거한 곤난점들도 가로 놓여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고대 문학사가 한권도 세상에 출판되여 나오지 못한 형편이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이번 대학 교재로서 출판된 리 응수 동지의 《조선 문학사》(1~14세기)는 바로 그 첫 성과작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고대 문학사 연구 로상에서의 일보 전진으로 되며 성과의 첫 총화로 되느니만큼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은 그 성과와 의의로서 특기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그 립장에 있어서 우선 이 저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고대 문학의 제 현상과 구체적 작가 및 작품들을 맑스—레닌주의적 문예학의 견지에서 분석 평가하고 그 기초 우에서 진정한 인민의 문학사를 서술하려는 지향과 시도 밑에 씌여졌다는 사실이며 그의 첫 성과작이라는 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에는 (물론 적지 않은 결함이 존재하지만) 작품의 취사 선택에 있어서나 분석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매개 작가와 문학 현상들의 해설에 있어서 두가지 문화에 관한 레닌적 교시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견지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고 학생들과 독자들을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려는 지향이 일관되여 있다.

둘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문학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1~14세기 문학사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8.15 이전에 우리들은 이미 이러 저러한 몇권의 문학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으나 (소설사, 시가사, 한문학사, 연극사 등등) 이것들은 모두 부문사들이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있다 하더라도 조잡하고 부르죠아 라렬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씌여진 것들이 대부분이여서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이 시기 문학을 정당하게 리해할 수가 없었다. 문학의 제 현상을 력사적 유물론의 견지에서 사회 발전 및 인민의 력사와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고찰하면서 문학, 시가, 연극 등 모든 문학 분야를 호상 종합적인 발전 관계 속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분석 서술한 것은 이 저서가 처음인 것이다.

부문사들에 대한 연구가 물론 필요 없는 일은 아니나 우리에게는 전체 포괄적인 이 시기의 종합적 문학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번 째로 지적할 것은 이 저서가 과거의 많은 부르죠아 문예사가들이 왕왕히 하든 소위 《조선 문학사》(국문학사)와 《한문학사》로 우리 문학사를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서술하던 비과학적인 서술 체계와 방법을 극복 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서술 체계와 방법의 수립을 위한 구체적 연구가 진행되여야 하며 또한 어떤 작가와 무슨 작품을 더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

는 앞으로 더 충분한 론의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조선 한문학사를 우리 문학사에서 기계적으로 제외하던 종전의 불합리한 서술 체계는 이 저서에서 원칙적으로 시정되였다. 이점에서도 이 저서는 큰 성과라고 평가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고대 문학은 자기의 문자를 가지지 못하였던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수한 문학가들이 한문을 가지고 자기 창작 활동에 종사하였으며 그러니 만큼 우리의 적지 않은 민족 문학 유산들이 한문으로서 씌여졌다. 그런데 그 풍부하고 우수한 우리의 한문 문학 유산들을 종전의 많은 부르죠아 문학사가들은 우리 문학사에서 별개로 제외하여 버렸던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옳지 않은 방법이였다.

리 응수 동지는 이번에 자기 문학사를 서술하면서 이러한 방법이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그를 극복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허다한 한문 작품들과 작가들을 적지 않게 발굴 연구하여 문학사 속에 도입 풍부화하였으며 정당한 평가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문학사 서술에서 원칙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시기 구분 문제, 문학 제 쟝르의 해명에 있어서 종전의 문학사들보다 일보의 발전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문학사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작가들과 작품들이 적지 않게 연구되여 우리 문학의 발전 력사 서술에 도입됨으로써 우리 문학사를 보다 풍부화하였다는 점이다.

고대 설화 작품들이 풍부하게 발굴 도입되여 취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견지에서 그것이 분석되고 있으며 혜초와 그의 려행기 《왕오천축국전》은 처음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취급되였다. 최 치원이나 정 지상, 리 규보나 리 제현의 많은 한시 작품들과 14세기의 사회—정치적 부패성을 폭로한 진보적 한시 작품들도 역시 새로이 발굴 도입되였다. 특히 고려 시기의 적지 않은 참요(讖謠) 및 민요 한역시들이 처음으로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 작품들로써 평가되면서 문학사 속에 들어 왔다.

이러한 성과는 앞에서도 잠간 언급하였지마는 우리의 문학사를 진정한 인민의 문학사로서 쓰려는 저자의 노력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민족 문학 유산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은 인민적인 작품들인 바 이러한 작품들은 비록 그 수가 적고 또 극히 적은 형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깊게 연구되여야 할 것이다. 저자가 이러한 데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돌린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다.

우에서 이 저서가 거둔 극히 중요한 성과들 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물론 이 저서의 성과와 의의가 여기에만 머무러지지는 않는다. 겸하여 이 저서는 조선 고대 문학 작품들에 대한 리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세한 작품 소개와 현대역 등을 첨부함으로써 독자 대중에게 커다란 편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고대 문학 연구가 가지는 곤난점에 관하여서는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거니와 이러한 애로와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성과들을 거두게 된데에는 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과 함께 저자 자신의 다년간에 걸치는 진지하고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저서가 우리 나라 1~14세기 문학사 연구에서의 일보 전진으로 되며 그 노력과 성과가 다대할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처음으로 나온 맑스—레닌주의적 문예학의 견지에서 쓴 인민 문학사의 첫 성과작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니 만큼 또한 동시에 이 저서에는 결함들도 적지 않게 있으며 지어는 원칙적인 주요한 결함들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공정히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시기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또한 리 응수 동지의 《조선 문학사》(1~14세기) 서술과도 관련하여 제기해야 할 첫째 문제는 1~9세기의 조선 문학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선 1~9세기 시기의 조선 구전 문학과 문학의 력사를 어떻게 처리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제기되며 그와 함께 고려 시기에 편찬된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 소재의 작품들을 어떤 과학적 원칙에서 1~9세기 문학사에 끌어 올려 서술할 것인가 하는 주요한 문제들로서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리 응수 동지도 자기 문학사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바 저자는 《고대에 출현한 문헌들 중 구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나 저작을 또는 고려 때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가 기본적으로 구전 문학이냐 서사 문학이냐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론의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저자는 《필자는 여기서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하여 고대의 일체 저작과 그 속의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서사 문학인 데 다만 그중 많은 것이 고대의 시대적 특성으로 해서 가장 많이 구전 문학에 토대를 두게 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다》(13페지)고 자기의 결론적 대답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여야 할 것은 우선 문제 제기 자체를 저자가 옳지 않게 묘사하고 있으며 자기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독자들이 수긍할만한 리론적 근거의 제시 없이 저자 자신의 주관적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서둘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게 된다.

사실 누구도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구전 문학이겠느냐 서사 문학이겠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어떻게 제기되였던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년대기 작품들 속에 수 많은 고대 구전 문학 작품들인 신화, 전설, 설화들의 풍부한 수록과 개인 창작의 산문 및 시가 작품들 그리고 편술자 자신 저작의 전기 작품들이 허다히 실려 있는 데 이것을 어떠한 원칙에서 처리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제기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서, 보는 사람의 견지에 따라 여러 가지 구구한 의견들이 나왔던 것이다. 복잡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리 응수 동지는 앞에서 보다시피 그 속에 수록된 모든 작품들을 구체적 작품들의 개별적 성격에 의한 구별 없이 전부 통털어 《기본적으로 서사 문학》(13페지)이라고 결론지으면서 모두 (구전 설화 작품들도) 문학 작품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그리 단순하지 않은 관계로 하여 저자의 이 조급한 결론만으로서는 누구나 대뜸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맨 첫 머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고대 문학 작품들은 거의 다 인멸되여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고 다만 우리가 전거로 하는 것이 12~13세기의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 기타의 문헌들인 데 이 문헌들에 대한 고대 문학사에서의 처리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리 응수 동지는 묘사하기를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전 문학이겠느냐, 필사 문학이겠느냐》하는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여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답변은 명백히 지을 수가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필사 문학 작품이며 12~13세기에 된 김 부식 또는 일 연의 작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응당 12~13세기 문학사에서 밖에 취급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데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다. 즉 이 년대기 작품들은 그 이전 시기의 많은 고문헌들을 토대로 하여 편찬 저작되였다. 그리하여 그 속에 수록된 모든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성격이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털어 잡아서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매개 개별적 작품들은 구체적으로 연구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구별 처리되여야 한다. 즉 구전 문학 작품들은 구전 문학 작품으로 개인 창작의 문학 작품들은 그것대로 구별되여야 하며 그 뿐만 아니라 개인 창작의 작품들이라도 또한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명백히 고대 문학 작품이라 인정되는 것은 해당 시기에 취급될 것이며 아무리 그것이 고대 문헌을 자료로 하고 있더라도 그 작가가 김 부식 또는 일연이라고 인정되는 작품들은 그의 작품으로서 취급되여야 한다. 대표적인 례를 들어 김 부식의 《삼국 사기》에는 10권으로 된 렬전(列傳)부문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고대 문헌들을 자료적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히 김 부식 자신의 저작이다. 력사적 인물들의 전기를 쓸 때에 어떤 작가도 문헌 및 기타의 자료에 전혀 전거함이 없이 허황 망탕한 소리를 모조리 지어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리 응수 동지의 견해에 의하면 김 부식이나 일 연은 모두 자기의 저작들을 편술함에 있어서 고대 문헌들에 전거하였거나 《술이부작(述而不作)》하였기 때문에 김 부식이나 일 연의 작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모두 다 통털어 고대로 끌어 올려 취급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김 부식의 《삼국 사기》를 취급하면서 저자는 《본 저작의 기본 문장이나 형상이나 사상이 대부분 고대의 것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저서내 문학 작품들을 고려 때 작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며 부당하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345페지)고 말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는 도저히 없으며 막연하게 통털어 거기에다 《기본적》이라는 패를 붙여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도 비과학적인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 작품들을 과학적으로 갈라 놓고서 론하여야 한다고 본다. 신화, 전설, 설화, 민요 등등과 같은 구전 문학 작품들은 구전 문학 작품으로서 취급되여야 하며 개인 창작의 문학 작품들은 그 작자의 년대에 따라 배렬 서술되여야 한다.

문학사 서술에서의 처리와 취급에서 저자는 과학적 원칙을 정당하게 세운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구전 문학 작품들인 건국 설화 기타 설화 작품들에도 모두 다 《기(紀, 記)》니 《전(傳)》이니 하는 명목을 붙이여 필사 문학 작품으로서 취급하고 있으며 김 부식의 모든 렬전 작품들도 그 주인공들이 살아서 활동한 년대에 끌어 올리여 1~7세기(전반)의 문학 또는 7(후반기)~9세기 문학 작품으로서 취급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건국 설화들은 마치도 1~3세기에 그 어떤 개인 창작가에 의하여 씌여진 문학 작품인 듯이 취급되였으며 허다한 설화 작품들은 그것이 문헌상 서사화(書寫化)된 집체적인 인민 구전 작품들인 것이 아니라 수다한 실명(失名)의 작가들에 의한 개인 창작품인 듯이 취급 설명되였다.

저자의 이러한 취급 설명의 태도와 방법은 문학사 서술 방법상 과학적으로 정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혼란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 결과는 이상의 결함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리에서 응당 대서 특필하여 취급되여야 할 작품들인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가 12~13세기 문학사에서는 극히 대스럽지 않게 슬쳐 넘기고 정당한 평가와 취급을 못 받았으며 이와 함께 10~14세기에는 마치도 산문 문학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하여 쇠퇴한 듯이 묘사되였다.

저자는 10~14세기 문학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고려 문학의 장르상 발전 정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문에 대해서 말 한다면 고대로부터 계승된 년대기, 전기, 설화 문학 형식이 계속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 형식면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고대와 훨씬 다른 면모를 보여 주었다. 즉 첫째로 년대기는 중세에 오면서 지나치게 왕조 및 량반 중심의 단순한 력사 기록으로 전변하게 됨으로써 문학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거의 상실하게 되였으며 전기도 주로 량반 귀족의 행적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리용됨으로써 고대 전기가 가지고 있던 풍부한 예술성을 많이 상실하게 되였고 설화 문학 형식에 있어서도 새로 패설체(稗說体)라는 형식이 발생하였으나 그 역시 많이 한시인의 시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화나 시평 또는 량반들의 신변 잡사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250페지).

고려 시기 산문 문학 발전 정형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산문 문학보다 그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 면에 있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마치도 도리여 저하 쇠퇴한 듯이 설명한 것은 정당하였다고 말할 수가 없다.

리 규보의 《동명왕편(東明王篇)》이나 리 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記)》도 역시 이와 류사한 식으로 취급되고 말았다. 즉 이들은 12~13세기 작가들이였으나 그들의 창작 시 작품들은 고대 초의 《년대기의 발생》에서 언급되고는 정작 취급될 자기 자리에서는 극히 간단히 이야기되고 말았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의 모순과 혼란들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그것은 두 말 할것도 없이 문학사 서술의 방법과 작품 취급에서의 과학적 원칙을 정당하게 못 세운데서 온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 소재의 작품을 1~9세기 시기에 끌어 올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는 과학적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사 문학 운운의 막연한 주관적 결론으로서 해결해서는 안되며 매개 개별적 작품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기초하여 그 작품의 성격에 따라 처리돼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저서에서의 주요한 결함으로써 지적해야 할 것은 문학 장르들의 개념상 리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잘못들과 혼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년대기(年代記)를 그 어떤 하나의 문학 장르로 리해 취급하고 있으며 (13~14 및 27, 35페지 참조) 설화들을 개인 창작의 문학 작품으로서 규정하고 있다(14~15 및 97페지 참조).

이렇게 리해한 관계로 하여 산문 년대기니 운문 년대기니 하는 분류가 나왔으며 12~13세기의 장편 서사시 작품들인 리 규보의 《동명왕편》이나 리 승휴의 《제왕운기》는 운문 년대기라는 부당한 명목이 붙여지게 되였다.

설화 작품들에도 《기》나 《전》자가 붙여졌다. (례, 《삼국 유사》에 있는 연오랑과 세우녀(延烏郞細烏女) 설화를 《연오랑기(延烏郞記)》 (14페지)라 하는 식으로).

이리하여 모든 설화들은 실명의 산문 작가들에 의한 문학 작품으로 되어 버리였던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론의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

년대기를 우리가 우리 고대 문학사의 맨 서두에서 취급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리유에서라고 본다. 첫째로 그 속에 고대 구전 문학 작품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우리 나라 구전 문학 발전 력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며, 둘째로 그 속에 허다한 개인 창작의 산문 및 시 문학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고대 문학 발전 연구에서 역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세째로 년대기를 저술하면서 많은 년대기 작가들이 력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상 예술적으로 묘사 표현하려고 지향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나라 고대 산문 문학 발생에 직접적 자극과 동기로 되였다는 사실과 리유에서이다.

년대기 작품들은 물론 그것 자체가 전체로서 문학 작품인 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력사적 사건들을 년차순에 따라서 기술한 력사 기록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문학사에서 취급하게 되며 높이 평가하게 되는 리유는 바로 예상한 바와 같은 우리 문학 발전에서 그가 논 주요한 역할과 의의에서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리 응수 동지는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정당치 않게 리해 취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서에서는 년대기가 우리 문학 특히 고대 산문 문학 발전에서 논 중요한 역할도 옳게 밝혀 놓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가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도 과학적으로 해명 못하여 놓았던 것이다.

문학 장르들에 대한 정당치 않은 리해와 관련하여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저자가 옛말—고담(古譚) (그 술어 자체에 대하여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을 《조선 구전 설화 중에서 가장 오랜 형식》 (33페지)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증거로서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다.

옛말 고담같은 소리 하지 말라》

라는 속담이 그 시대적 성격을 가장 잘 표시하여 주고 있다고(33페지)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은 독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 또한 과학적 반증이라 할 수도 없다.

세째로 이 저서에 대하여 지적하여야 할 것은 문학 작품들의 분석과 평가에 있어서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비속 사회학적 해석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설화 작품들의 분석에서 이러한 해석들은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자의 해석을 보면 전설적, 설화적인 이야기들을 직선적으로 어떤 력사적 사실(史實) 또는 실재한 사실(事實)로 전화시켜 설명하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심한 례를 몇 가지 들어 보면 거타지(居陀知) 설화나 만파식적(萬波息笛), 사금갑(射琴匣) 설화의 분석 설명에서 또는 처용랑(處容郞)의 고찰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다.

저자는 신라 51대 진성 녀왕 때에 아손(阿飡) 량패(良貝)라는 사람이 당 나라 사신으로 가다가 곡도(鵠島) (리 응수 동지의 저서에는 작도(鵲島)로 되여 있는 데 이것은 곡도의 잘못이다)에서 풍파를 만나 머므르는 동안에 앓아 눕게 되어 점을 쳤더니 대답이 그 섬에 있는 신지(神池)에 제사지 내라하므로 그대로 하였는 데 그 결과 못의 물이 십 여자나 솟아 올랐고 또 꿈에 로인이 나타나 활 잘 쏘는 사람을 하나 남겨 놓고 가면 앞으로의 배'길이 순조로우리라 하므로 그가 거느리고 가던 50명 궁사(弓士) 중 거타지라는 사람을 하나 남겨 놓았는 데 거타지가 섬에 홀로 서 있노라니까 홀연이 못 속에서 한 로인이 나타나 자기는 서해신(西海神)이라 하면서 거타지에게 지난 날 많은 자식들이 있던 것을 해돌 무렵마다 하늘에서 내려와 타라니(陁羅尼) (주문—필자)를 외워 가지고는 자식들의 간장을 빼 먹군하는 이상한 중때문에 다 죽어 버리고 이제는 자기 부부와 딸자식 하나 만이 남아 있는 데 래일 아침에 또 그 중이 내려 올 것이므로 그 중을 쏘아 죽이고 자기들 목숨을 살려 달라고 청하므로 거타지는 숨어서 기다리다가 다음날 아침에 과연 그 중이 하늘에서 내려와 주문을 외우므로 그를 활로 겨누어 쏘았는 데 그랬더니 그 중은 갑짜기 늙은 여호로 변하여 땅 바닥에 떨어져 죽고, 서해신은 기뻐서 그 사례로 그의 딸을 주므로 그를 꽃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신라에 돌아와 안해로 삼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극히 재미있고 고대적이며 환상적인 설화 (《삼국 유사》 소재)를 취급하면서 이것에 모두 다 직선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설명하기를 서해신이라 하면서 물 속에서 나타난 로인은 《십 중 팔구 작도에 거주하는 토호였다고 간주되며, 하늘에서 내려 온다는 중 운운은 진도 방면의 《해적으로서 간주된다》 (171페지)고 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설명을 더 진전시키여 《그래서 이 토호가 왕의 사신들에 의거하여 자기들의 곤경을 타개하려고 하였다고 생각되며 총괄적으로 설화는 국왕의 사신 거타지 등이 해적의 일부와 싸워 일시적인 승리를 얻고 로인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로 딸을 거타지의 안해로 주어서 중국에까지 동행시켰다가 그 뒤 고국으로 돌아와 부부 생활을 하게 한 이야기로서 리해된다》 (171페지)고 하였다.

결국 저자의 해석대로 한다면 로호(老狐)는 인민이요, 서해신은 지배 계급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고대적이고 환상적인 설화는 《계급 투쟁을 반영한 이야기》 (171페지)라고 한다.

우리는 문학 작품들이 사회—현실을 반영하며 인간 생활을 반영하느니 만큼 그의 인식적 의의의 거대성은 어느 이데올로기 형태보다도 못지 않다는 맑스—레닌주의 문예학의 립장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또한 이 원칙은 설화의 해석의 경우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강조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적 문예학의 원칙에서 문학 작품을 분석한다는 것이 바로

곧 모든 전설적, 민화적, 동화적인 이야기들에다가 직선적이고 비속—사회학적인 해석을 내리여 이것은 인민이고 저것은 지배 계급이고 또 어느 것은 착취자요 하는 식의 단순한 해석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전 부다 내리다가는 수천년 동안 우리 인민들에 의하여 창조된 수다한 설화—민화 작품들은 많은 것이 열토 당토않은 패를 차게 될 것이다.

《만파식적(萬波息笛)》 설화도 이런 식의 해석이 가하여 졌다. 그리하여 그 피리를 불면 쳐 오던 적병이 물러가고 창궐하던 악병(惡病)도 곧 나으며 가무던 날에 비가 오고 일든 풍파가 잔다는 이상한 피리(그래서 그 피리를 만파식적이라 하였다함)의 이야기가 인민의 반항의 물'결을 의미한다고 설명되였다. 이 피리는 그 후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고 이름을 고치였는데 이것은 저자의 의견에 의하면 인민의 반항의 파도가 일만 파도로부터 만만파파로 비약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165페지 참조)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작품 분석이라기 보다 오히려 어구 해석에서의 희롱이라 말하여야 할 것이다.

전설적 인물인 처용은 이런 식으로 하여 실재한 편력가인(遍歷歌人)으로 되여 버리였으며 사금갑 설화에서의 못 속에서 나온 로인은 뜻 있는 의인(義人)으로 되여 버리였다.

이러한 주관적 해석들은 다른 작품들의 분석에도 적지 않게 있다. 혜성가는 악신, 월신, 혜성신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였으며 남편을 만나러 바다'가에 나가 을 때에 떠왔다는 도미의 처를 태운 배는 근거 없이 신이 보낸 배로 해석되였다.

이 저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왕왕이 저자가 작품 경개나 작품 내용을 소개함에 있어서 작품 원전에 충실히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의적으로 창조, 가미, 편술을 하여 놓고 그것을 마치도 원전인 듯이 소개하고 있는 엄중한 사실이다.

《박 제상 전》의 경개는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가 저자에 의하여 합쳐 져서 하나의 작품으로 편술 소개되고 있으며 (63~64페지), 《온달전)의 경개 소개에는 원전에 있지도 않는 대화와 사건들이 창작 잡입되고 있으며 (68페지), 《을지 문덕전》의 경개에서도 《삼국 사기》 렬전에는 있지도 않는 칠불사 전설이 첨가되여 소개되였다 (71페지).

문학사가가 자기 문학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원전에 충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원전들에 윤색과 가미를 하며 창작과 편술들을 자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문학사가 소개하는 원전을 그대로 원전이라고 믿겠는가!

이러한 서술적 태도는 문학사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용인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문학사가가 자의대로 첨가와 편술과 윤색을 해놓고 그 작품의 사상성이니 예술성이니 하는 분석을 가한다는 것은 조선 문학이 걸어 온 진실한 발전 과정을 현재의 우리 독자 대중에게 옳게 리해 못 시키고 외곡시켜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앞에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많은 혼란과 모색의 쓰라림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원전 작품에 충실히 의거하는 원칙이 고수되여야 하며 작품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나온 시기에서 취급되여야 하며 작품 내용이나 경개를 문학사가 자신의 손으로 창조 가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다.

이상에서 대략 이 저서가 가지는 기본적인 우 결함을 분석 지적 하였다.

맨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 문학사 서술에는 허다한 곤난과 애로들이 존재하며 또한 1~14세기의 우리 문학에 대하여 이 저서는 새로운 립장에서 서술된 첫 로작이니만치 성과와 함께 또한 그 결함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시기 문학사에 대한 진지하고 꾸준한 연구와 집체적 토론을 거듭함으로써 더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어 과학적인 문학사 서술의 완성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 로 자》 제3호 (루계 제13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쇄 1957년 3월 20일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발행 1957년 3월 25일

ㄱ—40 419　　값 45원